

ISSN 1975-6607

# 금융안정보고서

2023. 12



한국은행  
BANK OF KOREA

##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 비전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 전략방향    Agility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Collaboration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Expertise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 BANK OF KOREA

## 금융안정보고서

2023. 12

---

금융안정이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2023년 11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융시장 참가자, 정책당국 등이 금융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한국은행법>**

##### **제96조(국회보고 등)**

-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이창용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이창용

위원 조운제

위원 서영경

위원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b>차례</b>	<b>[개 관]</b>	<b>1</b>
	<b>[금융안정 상황]</b>	<b>9</b>
	<b>I. 신용시장</b>	<b>11</b>
	1. 가계신용	11
	2. 기업신용	16
	3. 신용 레버리지	20
	<b>II 자산시장</b>	<b>29</b>
	1. 채권시장	29
	2. 주식시장	32
	3. 부동산시장	34
	<b>III. 금융기관</b>	<b>43</b>
	1. 은행	43
	2. 비은행금융기관	47
	3. 상호연계성	53
	<b>IV. 자본유출입</b>	<b>59</b>
	<b>[복원력]</b>	<b>67</b>
	<b>I. 금융기관</b>	<b>68</b>
	1. 은행	68
	2. 비은행금융기관	72
	<b>II. 대외지급능력</b>	<b>80</b>
	<b>III. 금융시장인프라</b>	<b>83</b>
	<b>[종합평가]</b>	<b>87</b>
	<b>[주요 현안 분석]</b>	<b>101</b>
	<b>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b>	<b>102</b>
	<b>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b>	<b>115</b>

---

## 참고 차례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22
참고 2. 최근 지역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	26
참고 3.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39
참고 4.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의 현황 및 특징	55
참고 5.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특징 및 평가	63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	76
참고 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	92
참고 8.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여건 및 시사점	94
참고 9.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98

---

## 부록 차례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129
부록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35

---

## URL 및 QR코드 이용 안내

□ 「금융안정보고서」를 비롯한 용어해설 및 그림 데이터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URL 및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파일 이용자

아래 URL을 클릭

[한국은행>조사·연구>주요 보고서>금융안정보고서](#)

보고서 책자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촬영





---

# 개 관



## 금융안정 상황 및 리스크 평가

### 금융안정 상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하반기중 신용 레버리지 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능력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sup>1)</sup>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10월중 크게 상승하였던 금리가 11월 들어 연준의 긴축기조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중 주기도 하락 후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긴축의 영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4/4분기중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이동 없이 원활하게 재예치되고 있다.

다만, 높아진 금리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하반기중 민간신용 증가세가 다소 더디게 둔화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sup>2)</sup>

### 부문별 상황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높아진 금리수준이 가계와 기업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을 높이

고 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경기 부진과 소비 회복지연 등이 지속될 경우, 해당 업종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아 채권 및 주식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주택가격은 3/4분기중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가계대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가격전망 등 시장참가자의 기대 변화와 매수심리 변동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자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보험회사 신 회계기준(IFRS17) 적용의 영향이 지속되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자산건전성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악화되었는데, 앞으로도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차를 두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자금유출 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및 업황 전망 등에 영향을 받아 하반기 일부 기간 중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출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등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1)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2023년 11월 19.3(주의단계)으로 지난 5월(17.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지(24.3)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2)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2023년 1/4분기 46.3에서 3/4분기 41.5로 하락하여 장기평균 수준(38.1)에 근접하였으나, 하락폭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다.

## 금융시스템 복원력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의미하는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모든 업권에서 고정 이하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단기외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및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가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 그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LTV, DSR 규제 등을 통해 담보 가치와 차주의 신용 및 소득구성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온 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의 채택으로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위기대응역량이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는 점 등이 금리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평가받은 바<sup>3)</sup>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부동산PF 시장 불안, 새마을금고 자금인출 사태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과거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한 점도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회복세 약화, 부동산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주요 이슈를 중점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기업부문의 부채 급증 배경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응 역량을 점검한 결과<sup>4)</sup>, 기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였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과거 위기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기업들의 이자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된 점은 향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신용의 단기조달 비중이 높아진 만큼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차환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으로 대출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등 금융시스템내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금리상승기 동안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운용 관련 주요 리스크를 살펴본 결과<sup>5)</sup>, 조달 측면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의 예금유입이

3) Economist誌는 5개 경제·금융 지표(근원물가상승률, 2%이상 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 비중 변화, 성장률, 실업률, 주가)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2022년 4/4분기~2023년 3/4분기중 경제 성과를 측정해 결과, 우리나라를 2위로 평가하면서 선제적인 금리인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Finance and economics Section, Economist誌, 2023년 12월 17일).

4)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확대되면서 예금시장에서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예금만기가 단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도한 예금조달 경쟁은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운용측면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 건설·부동산업 대출 등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대출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기대보다 장기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 정책 대응 방향

우선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계신용의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기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기업 부실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채무재조정과 추가적인 금융지원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출자산의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총당금 적립 등에 있어 은행에 비해 다소 느슨한 부분을 보완하여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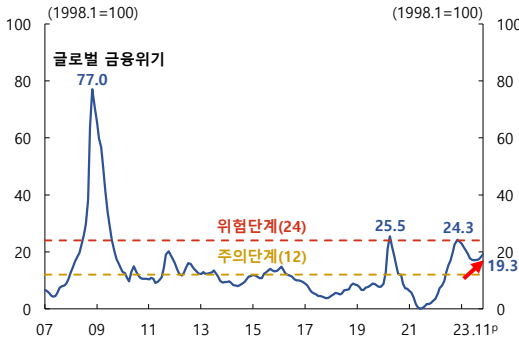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간 정책공조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 악화시 유동성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비은행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분석의 정도를 높이고 적기 조치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리스크에 대응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등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당국, 기업, 금융기관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 【 금융안정 주요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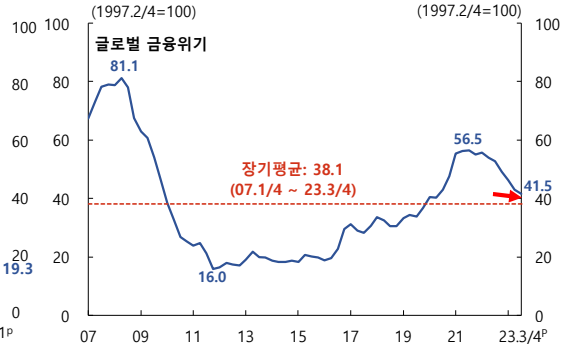
1 금융안정 상황 종합평가 단기적 금융불안(FSI) **소폭 상승**, 중장기적 취약성(FVI) **하락폭 축소**

금융불안지수(FSI)



자료: 한국은행

금융취약성지수(F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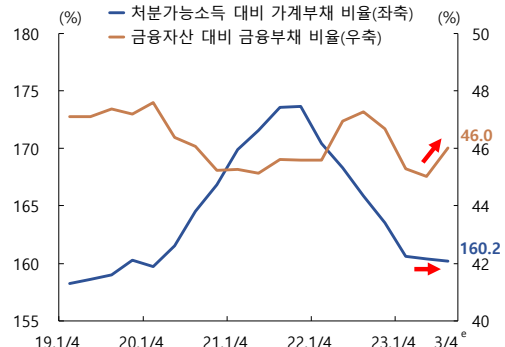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 가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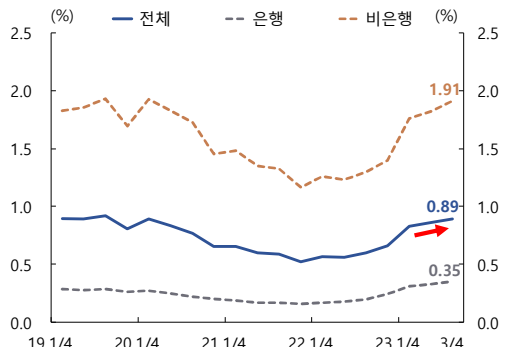
가계 채무상환부담 **소폭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채무상환부담 지표



자료: 한국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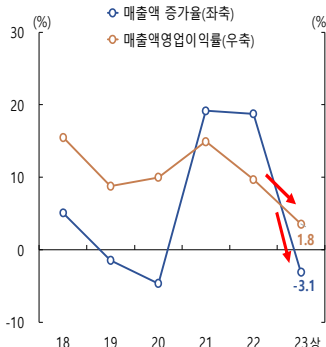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3 기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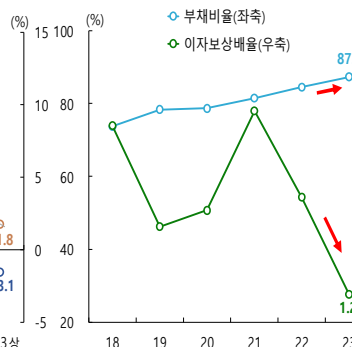
기업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 성장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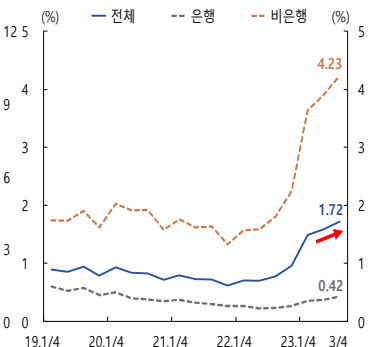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기업 안정성 및 이자지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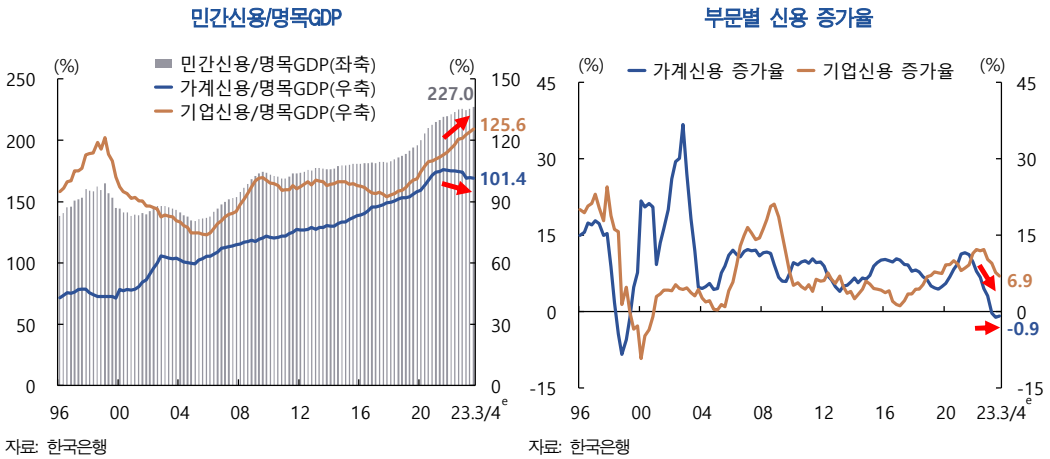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기업대출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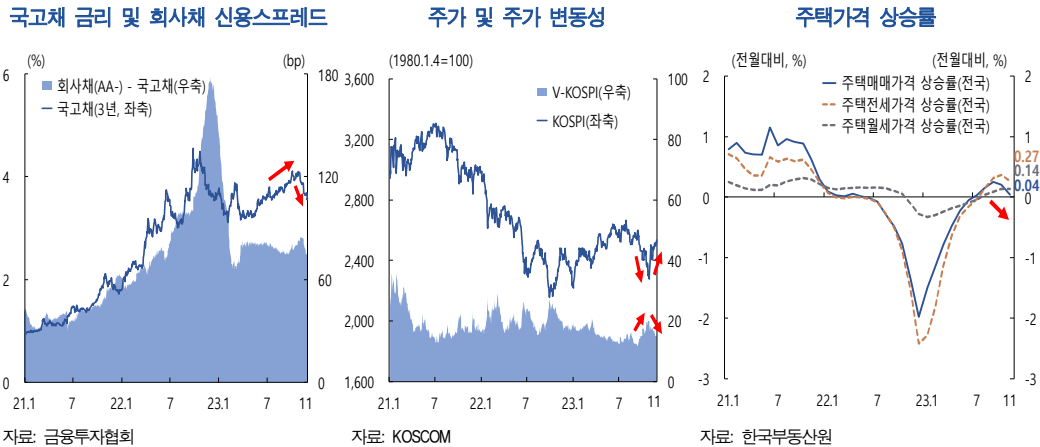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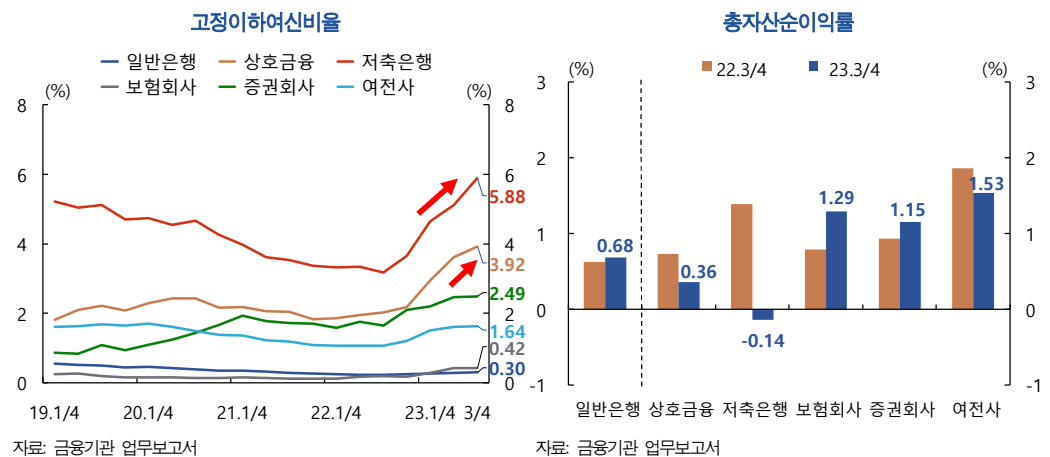
**④ 신용 레버리지**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 가계신용 감소폭 축소, 기업신용 증가폭 축소



**⑤ 자산시장** 국고채 금리 상승 후 하락, 주가 하락 후 반등,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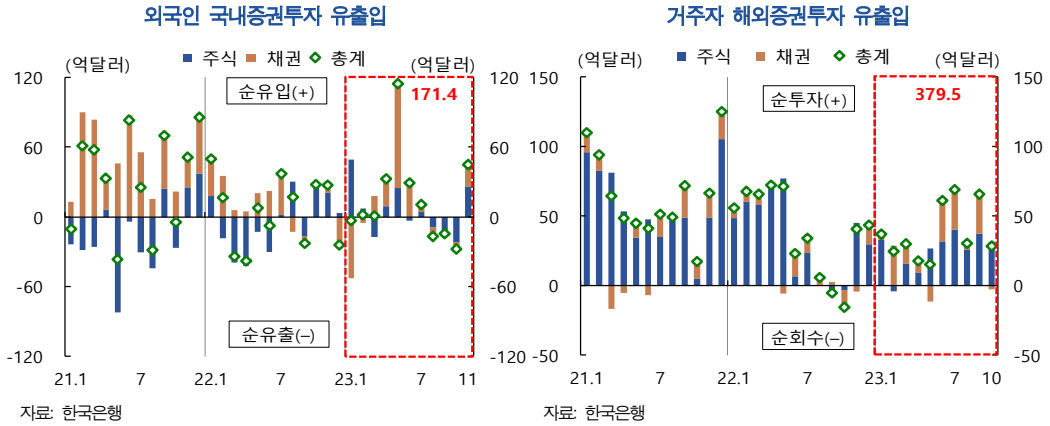


**⑥ 금융기관 건전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수익성 업권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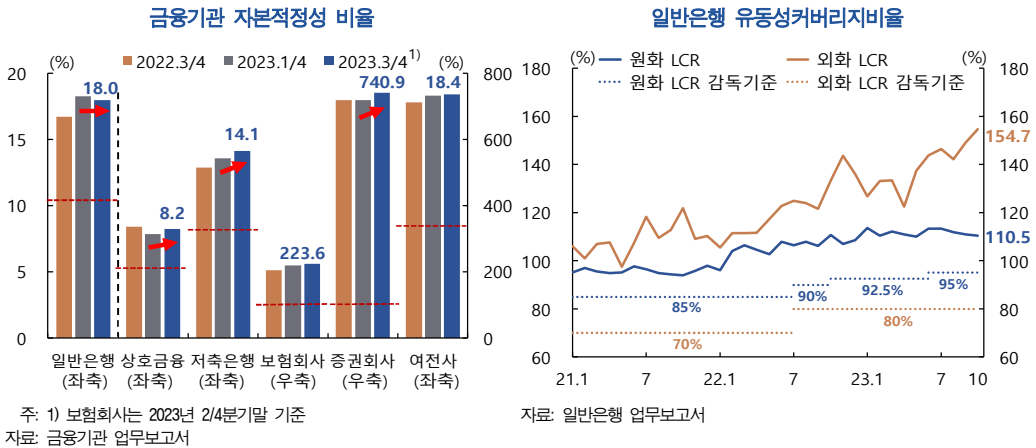
7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순유입**,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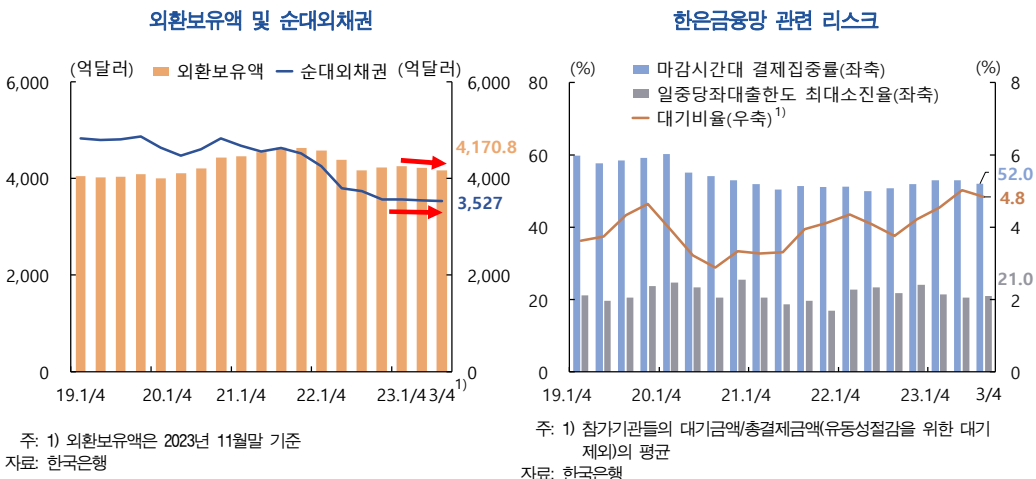
8 금융기관 복원력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양호**



9 대외지급능력 및 지급결재시스템

대외지급능력 대체로 **양호**, 결제리스크 **안정적** 관리





---

# 금융안정 상황

I. 신용시장	11
II. 자산시장	29
III. 금융기관	43
IV. 자본유출입	59



## I. 신용시장

가계신용<sup>1)</sup>은 주택관련 대출 위주로 늘어났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소폭 늘어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기업신용의 경우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수익성 및 이자지급능력이 약화되는 등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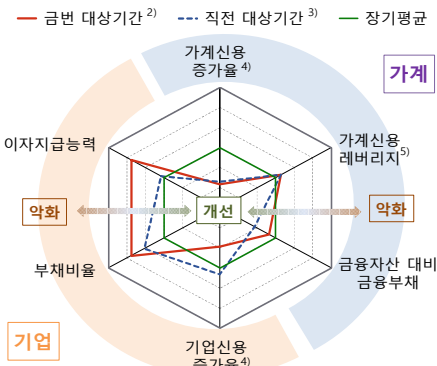
민간신용/명목GDP 비율<sup>2)</sup>은 기업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그림 I-1).

## 1. 가계신용

### 가계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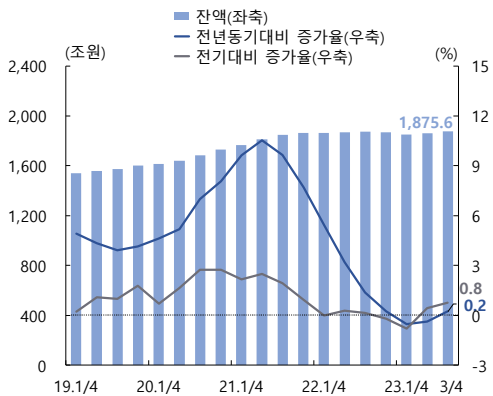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sup>3)</sup>)는 2023년 3/4분기말 1,875.6조원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759.1조원(가계부채 중 93.8%)이며, 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인 판매신용은 116.6조원(6.2%)이다. 증가율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0.2% 늘어나 증가 전환하였다. 전기대비비로도 0.8% 늘어 전분기(+0.4%)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sup>4)</sup>되었다<sup>5)</sup>(그림 I-2).

그림 I-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sup>1)</sup>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3/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3년 상반기말(중))  
 3) 2023년 1/4분기말(부채비율과 이자지급능력은 22년말(중))  
 4) 명목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의 증가율  
 5)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사

그림 I-2. 가계신용<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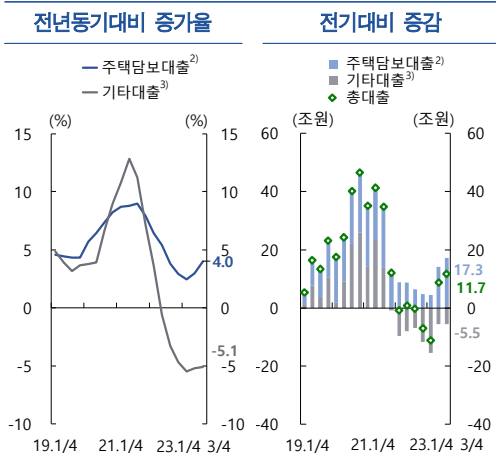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 1) 가계신용과 가계부채는 모두 가계가 보유한 채무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측면에서 볼 때는 가계신용으로 가계 측면에서는 가계부채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신용 하위 항목으로서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이라고 분류하였다.
- 2)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 평가 시 민간신용 부문별 증가율,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주택가격 수준, 은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금융·실물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 2010)가 권고한 글로벌 공통 참고지표(common reference guide)인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3) 가계신용통계는 자금순환통계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와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신용의 가계는 일반가계를 의미하나 자금순환통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 4) 다만 월별로 보면 가계대출(전금융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이 2023년 4월부터 증가로 전환한 이후 8월까지 증가세가 확대(23년 4월 +0.1조원 → 5월 +2.6조원 → 6월 +3.2조원 → 7월 +5.2조원 → 8월 +6.1조원)되었으나, 9월 이후로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제한, DSR 산정만기 40년 제한, 일반형 특례보증자리론 중단) 등으로 증가규모가 축소(23년 9-11월 월평균 +3.7조원)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5) 최근 가계대출의 양적 및 건전성 측면에서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3/4분기말 1,049.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구입<sup>6)</sup>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정책자금 공급<sup>7)</sup>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은 710.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였다. 한편 전기대비 대출증감액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2/4분기 이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3/4분기중 17.3조원 증가하였고, 기타대출은 5.5조원 감소하였다(그림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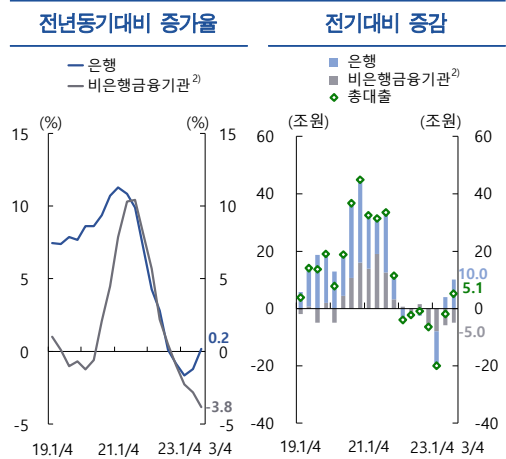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3/4분기말 은행 가계대출(904.5조원)은 전년동기대비 0.2%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627.3조원)은 전년동기대비 3.8%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sup>8)</sup> 전기대비 대출증감액 변화를 보더라도 은행은 2023년 2/4분기 이후 증가 전환하여 3/4분기중 10.0조원 늘어났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은 5.0조원 줄어들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그림 I-4).

그림 I-3. 대출유형별 가계대출<sup>1)</sup> 변동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그림 I-4. 금융업권별 가계대출<sup>1)</sup> 변동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등 제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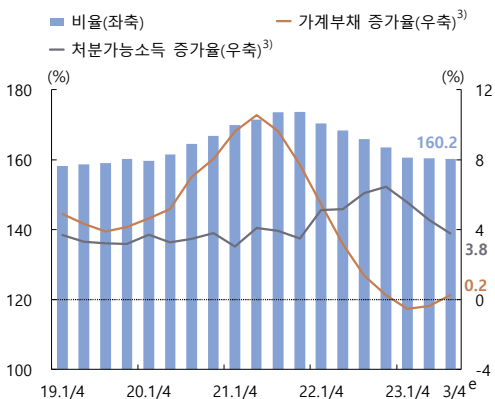
6)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 만호) : 2022년 7-9월 10.8 → 10-12월 9.1 → 2023년 1-3월 11.9 → 4-6월 15.5 → 7-9월 14.9  
 7) 가계신용통계 기준 주택금융공사(특례보증자리론 등) 및 주택도시금융(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3/4분기말 227.2조원으로 2022년말 대비 26.1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 및 2022년 연간 증가규모(각각 14.8조원, 6.6조원)를 큰 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8) 이는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은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론으로의 대환,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원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 가계 전반의 소득 대비 채무부담은 개선세가 주춤, 자산 대비로는 소폭 증가<sup>9)</sup>

소득 측면에서 본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금년중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은 2023년 3/4분기 160.2%(추정치)로 2023년 1/4분기(160.6%)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다. 구성내역을 보면, 분모인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분자인 가계부채가 금년 2/4~3/4분기중 확대되면서 소득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세가 다소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다(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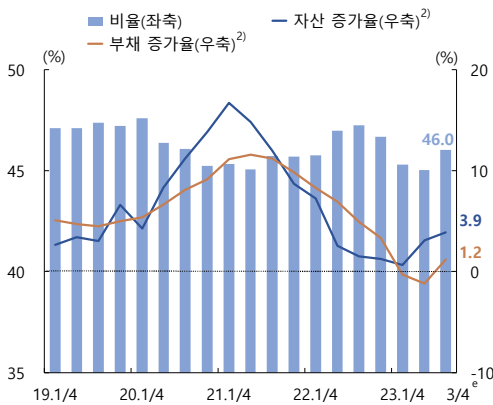
한편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부담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3년 3/4분기말 46.0%(추정치)로 2023년 1/4분기말(45.3%) 대비 0.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분모인 금융자산이 현금 및 예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sup>10)</sup> 분자인 금융부채가 금년 2/4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그림 I-6).

그림 I-5. 처분가능소득<sup>1)</sup> 대비 가계부채<sup>2)</sup> 비율



주: 1) 2023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6.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sup>1)</sup>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3/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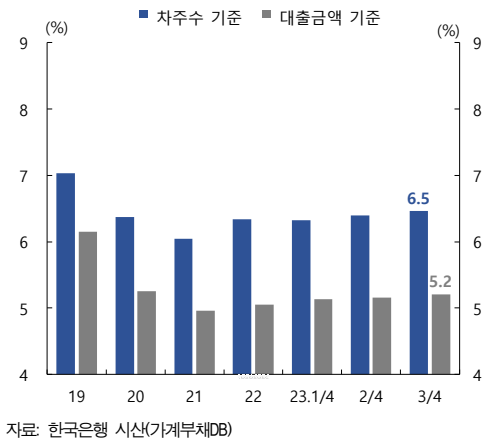
9)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부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가계의 부채 및 소득, 자산간 비율로, 일반적으로 부채 보유 가구 또는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의 움직임과는 다를 수 있다.

10) 다만 KOSPI 지수 하락(23년 1/4분기말 2,477 → 3/4분기말 2,465)으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의 평가액은 감소하였다.

### 취약차주 비중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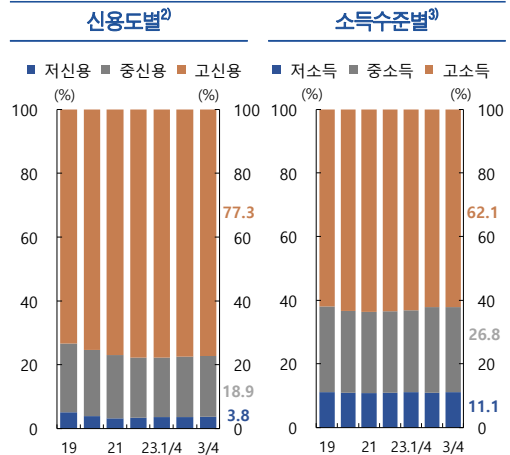
전체 가계부채 보유 차주 중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주의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sup>11)</sup>인 취약차주 수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6.5%로, 2023년 1/4분기말(6.3%)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다.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3/4분기말 5.2%로 2023년 1/4분기말(5.1%) 대비 0.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7).

그림 I-7. 취약차주 비중



한편 차주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 및 고소득 차주의 대출비중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77.3%로 2023년 1/4분기말(77.7%)보다 0.4%포인트 하락하였다.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62.1%로 2023년 1/4분기말(63.2%)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8).

그림 I-8.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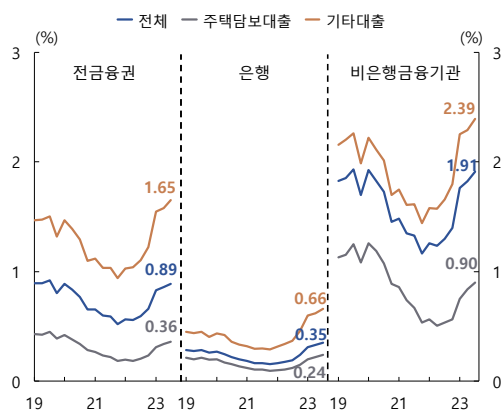


11) 2021년부터 개인의 신용평가제도가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신용을 신용점수 840점 이상(NI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 이하 동일), 중신용을 신용점수 665점 이상 839점 이하, 저신용을 신용점수 664점 이하로 각각 설정하였다. 취약차주 특성에 근접해 있는 잠재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의 비중은 2023년 1/4분기말 17.0%에서 3/4분기말 17.3%로 소폭 상승하였다.

##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상승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3년 3/4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로 1/4분기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하였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6%, 기타대출 연체율은 1.65%로 각각 0.05%포인트, 0.10%포인트 상승하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0.35%, 비은행금융기관이 1.91%로 각각 0.04%포인트, 0.15%포인트 상승하였다.<sup>12)</sup>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채무상환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sup>13)</sup>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9).

그림 I-9.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sup>12)</sup> 가계대출 연체율<sup>3)</sup>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제외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2) 참고로 직전 반기 기준 상승폭(22년 3/4분기말 대비 23년 1/4분기말)은 전체 0.23%포인트, 은행 0.12%포인트, 비은행금융기관 0.46%포인트였다.

13) 가계대출 연체율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9년 1/4분기-19년 4/4분기)은 은행 0.50%, 비은행금융기관 2.8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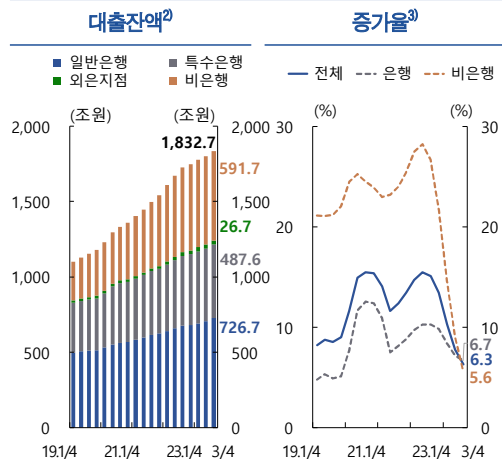
## 2. 기업신용

###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832.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다. 기업대출은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편, 자영업자 대출<sup>14)</sup>은 1,05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은행 기업대출은 2023년 3/4분기말 1,241.0조원(일반은행 726.7조원, 특수은행 487.6조원, 외은지점 26.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일반은행 7.5%, 특수은행 5.4%)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sup>15)</sup>의 기업대출은 591.7조원<sup>16)</sup>으로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였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대출태도가 강화<sup>17)</sup>되면서 모든 비은행 업권에서 기업대출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었으며, 특히 보험회사와 저축은행은 기업대출 잔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sup>18)</sup>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금융기관<sup>1)</sup> 기업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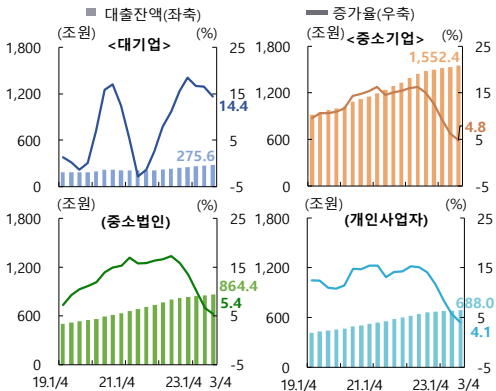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  
 2)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업규모별<sup>19)</sup>로 보면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기업대출(275.6조원, 전년동기대비 14.4%)은 회사채 발행금리가 높게 유지<sup>20)</sup>됨에 따라 은행 대출을 대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여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중소기업대출(1,552.4조원, 4.8%)은 채무상환부담 증대,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864.4조원, 5.4%)과 개인사업자(688.0조원, 4.1%) 모두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그림 I-11).

14)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현황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이다. 다만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부 업권은 기업대출에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6) 업권별 기업대출 규모는 상호금융 365.8조원(비은행 기업대출 중 61.8%), 보험회사 99.7조원(16.9%), 여신전문금융회사 73.0조원(12.3%) 저축은행 53.3조원(9.0%)이다.  
 17)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상호저축은행(22년 4/4분기 -57 → 23년 2/4분기 -31 → 4/4분기(전망) -22), 신용카드회사(-44 → -6 → -14), 상호금융(-48 → -24 → -30), 생명보험회사(-22 → -14 → -9) 등 조사대상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10월 30일)를 참고하기 바란다.  
 18) 비은행금융기관의 업권별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상호금융 2023년 1/4분기말 22.9% → 3/4분기말 11.2%, 보험회사 1.3% → -1.8%, 여신전문금융회사 6.7% → 2.9% 저축은행 4.1% → -10.0%이다.  
 19)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규모별 대출 분석 시 기업규모가 구분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일부는 제외하였다.  
 20) 회사채 금리(3년물, AA등급 이상, 민간채권평가사 4사 평균 기준)는 2022년 2/4분기말 4.36% → 4/4분기말 5.20% → 2023년 2/4분기말 4.46% → 3/4분기말 4.6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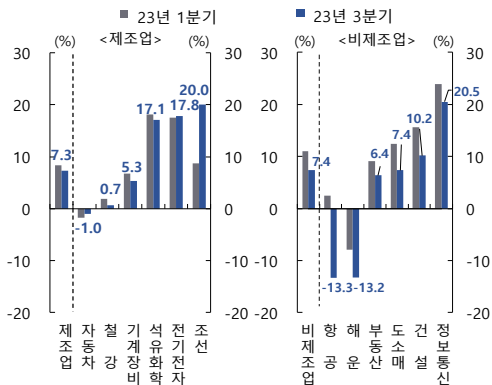
그림 I-11. 기업규모별 기업대출<sup>1)23)</sup>



주: 1)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2) 기말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3)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업종별<sup>2)</sup>로는 업종 전반에서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제조업 기업대출은 자동차, 철강,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7.3%)가 둔화되었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항공, 해운, 부동산, 도소매, 건설 등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세(7.4%)가 둔화되었다(그림 I-12).

그림 I-12.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sup>1)</sup> 증가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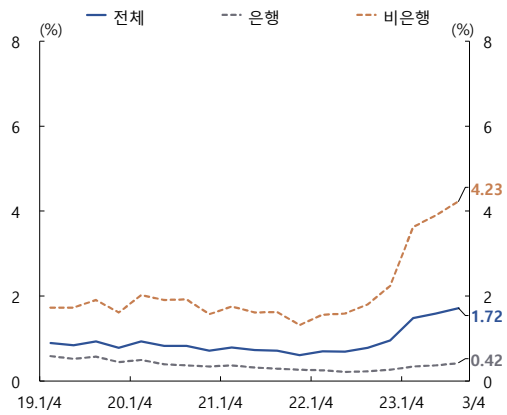


주: 1) 업종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72%로 1/4분기말(1.49%) 대비 0.23%포인트 상승하였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1/4분기말(0.35%) 대비 0.0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수준(0.45%)에 근접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4.23%로 1/4분기말(3.63%) 대비 0.60%포인트 상승하여 은행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은행과 비은행 기업대출 연체율 모두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sup>2)</sup>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들어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sup>3)</sup>을 보이고 있다(그림 I-13).

그림 I-13. 은행<sup>1)</sup> 및 비은행금융기관<sup>2)</sup> 기업대출 연체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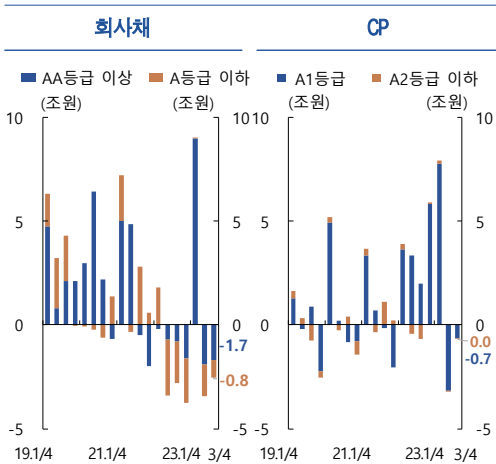
주: 1) 국내은행 기준  
 2)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 기준  
 3)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1)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업종별 분류가 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기업대출 연체율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9년 1/4분기~19년 4/4분기)은 은행 0.93%, 비은행금융기관 6.13%이다.  
 23) 직전 반기 기준 상승폭(22년 3/4분기말 대비 23년 1/4분기말)은 전체 0.71%포인트, 은행 0.12%포인트, 비은행금융기관 1.83%포인트였다.

### 회사채 및 CP 순상환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및 CP는 순상환되었다. 회사채는 금년 1/4분기중 차환자금 선조달과 더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은행대출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활용 등의 영향으로 발행물량이 감소하여 2023년 3/4분기중 순상환되었다. CP 역시 우량물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동기간 순상환되었다(그림 I-14).

그림 I-14.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sup>1)</sup>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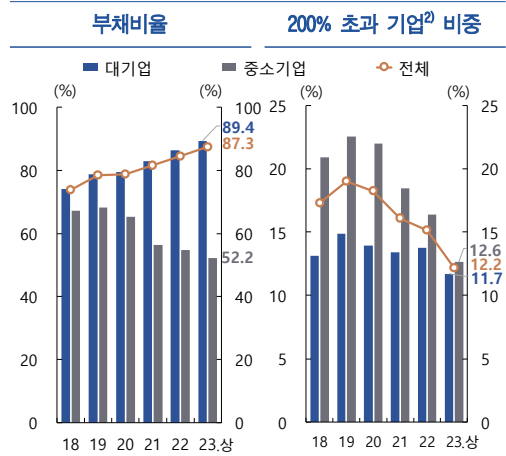
주: 1) 금융지주회사, 유동화회사(SPC) 발행분 제외, 순발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에탁결제원, 연합인포맥스

### 부채비율 상승·과다부채 기업 비중 하락

기업<sup>24)</sup>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23년 2/4분기말 87.3%로, 2022년말(84.5%)에 비해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22년말 86.3% → 23년 2/4분기말 89.4%)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54.8% → 52.2%)은 다소 하락하였다.<sup>25)</sup>

한편,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과다부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2/4분기말 12.2%로 전년말(15.1%)에 비해 큰 폭 하락하였다.<sup>26)</sup>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2년말 13.8% → 23년 2/4분기말 11.7%)보다 중소기업(16.4% → 12.6%)의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5).

그림 I-15. 기업규모별 부채비율<sup>1)</sup>



주: 1)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2) 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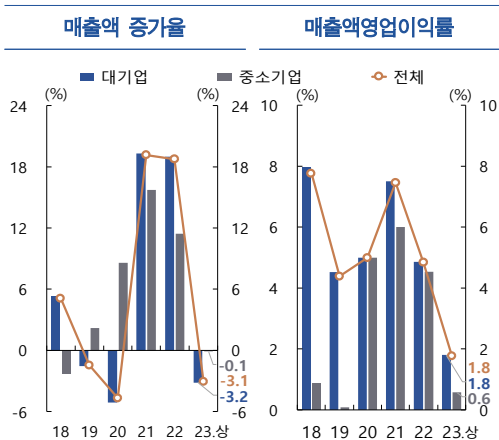
24) 이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2/4분기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558개 기업(대기업 1,291개, 중소기업 1,267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속보성 있는 분석을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외감기업 등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채비율이 전년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전기전자 및 전기가스업 등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이들 업종 내에서도 자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일부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전체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상승을 주도하였다.  
 26) 수익성 저하 및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부채를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 성장성 및 수익성 저하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23년 상반기중 -3.1%로, 2022년(18.7%)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종의 업황 부진에 기인하였다.<sup>27)</sup>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2년 19.0% → 23년 상반기 -3.2%)이 중소기업(11.4% → -0.1%)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2023년 상반기중 1.8%로, 전년(4.8%)에 비해 하락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2년 4.9% → 23년 상반기 1.8%)과 중소기업(4.5% → 0.6%) 모두 수익성이 저하되었다<sup>28)</sup>(그림 I-16).

그림 I-16.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sup>1)</sup> 및 매출액영업이익률<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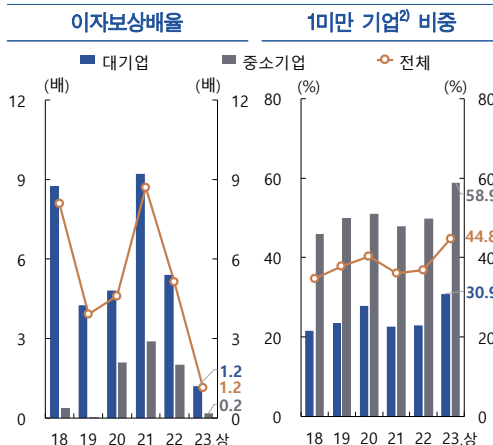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업이익/매출액  
자료: KIS-Value

### 이자지급능력 약화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sup>29)</sup>(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3년 상반기중 1.2배로, 주력 업종의 업황 부진<sup>30)</sup>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5.1배) 대비 하락하였다.<sup>31)</sup>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22년 5.4배 → 23년 상반기 1.2배)과 중소기업(2.0배 → 0.2배) 모두 하락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비중은 2022년말 37.0%에서 2023년 2/4분기말 44.8%로 큰 폭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22년말 22.9% → 23년 2/4분기말 30.9%)과 중소기업(49.7% → 58.9%) 모두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I-17).

그림 I-17.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sup>1)</sup>



주: 1) 영업이익/총이자비용  
2) 영업손실 기업 포함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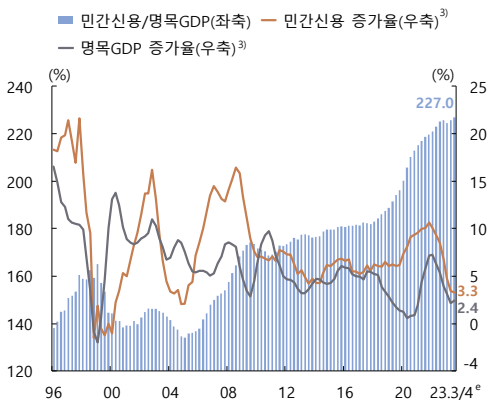
27) 전기전자(23년 상반기중 -18.4%), 금속제품(-15.4%), 석유화학(-13.4%) 등의 주요 제조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31.5%), 운송장비(30.6%), 건설(15.0%), 전기가스(14.7%) 등은 양호한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28) 업종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기전자(23년 상반기중 -6.8%), 전기가스(-6.7%), 조선(-0.5%) 등의 업종에서 낮고, 정보통신(10.1%), 운수(8.3%), 자동차(7.4%) 등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29)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자는 영업이익을, 분모는 회사채이자 등을 포함한 총이자비용을 활용하였다.  
30)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2년중 19.0배 → 23년 상반기중 -5.9배), 석유화학(9.1배 → 1.7배), 건설(4.7배 → 1.5배)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조선(-7.4배 → -0.3배), 전기가스(-7.0배 → -2.1배) 등의 업종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9.7배 → 17.8배)는 양호한 영업실적에 힘입어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31) 이자보상배율의 장기평균(09년-23년 상반기)은 전체 5.1배, 대기업 5.4배, 중소기업 1.1배이다.

### 3. 신용 레버리지

#### 민간신용 레버리지 상승

민간신용<sup>32)</sup>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 비율)는 2023년 3/4분기말 227.0%(추정치)<sup>33)</sup>로 1/4분기말(224.5%) 대비 2.5%포인트 상승하며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전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민간신용 증가율은 2021년 하반기 기준급리 인상 이후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sup>34)</sup>을 상회하고 있다. 민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3년 1/4분기말 4.8%에서 3/4분기말 3.3%로 하락하였으며, 명목GDP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같은 기간중 3.1%에서 2.4%로 낮아졌다(그림 I-18).

그림 I-18. 민간신용<sup>1)</sup>/명목GDP<sup>2)</sup>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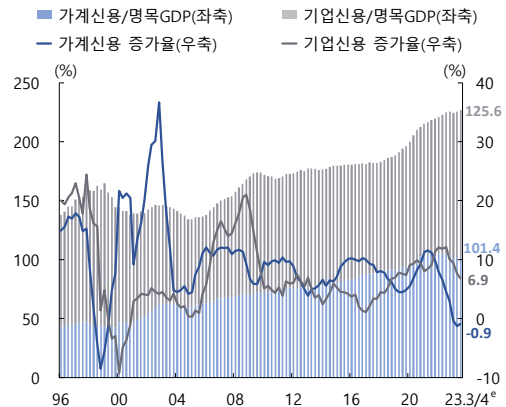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3/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상승 지속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높은 수준이나 확대되지 않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계속 오르는 모습이다. 2023년 3/4분기말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101.4%(추정치)로 2023년 1/4분기말(101.5%)과 비슷하였으나<sup>35)</sup>,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은 같은 기간중 123.0%에서 125.6%(추정치)로 2.6%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신용은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완화<sup>36)</sup>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9).

그림 I-19.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및 신용 증가율<sup>1)2)</sup>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2023년 3/4분기는 추정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32)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용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용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33) 2023년 3/4분기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 및 기업신용은 가계신용 증가율(가계신용통계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부문 신용 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한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각각 추정하였다.

34)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 합의 증가율로 해당 분기 명목GDP 성장률과 차이가 있다.

35)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2023년 2/4분기말 101.7%로 43개국중 스위스(126.0%), 호주(111.1%), 캐나다(103.2%)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6)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10월 30일)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중소기업(22년 4/4분기 6 → 23년 1/4분기 3 → 2/4분기 0 → 3/4분기 -6 → 4/4분기(전망) -6)에 대해서는 강화된 반면 대기업(-6 → 6 → 3 → 3 → 0)에 대해서는 완화 기준을 지속하였다.

## 가계신용 레버리지 장기추세 하회, 기업신용 레버리지 장기추세 상회 지속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상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기추세를 하회<sup>37)</sup>하고,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장기추세를 상당폭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신용/명목GDP 갭은 2022년 3/4분기 마이너스로 전환(-0.3%포인트)된 이후 2023년 1/4분기 -4.6%포인트, 3/4분기 -5.0%포인트로 그 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신용/명목GDP 갭은 2023년 3/4분기 +7.6%포인트로 2023년 1/4분기(+8.4%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20).

그림 I-20. 부문별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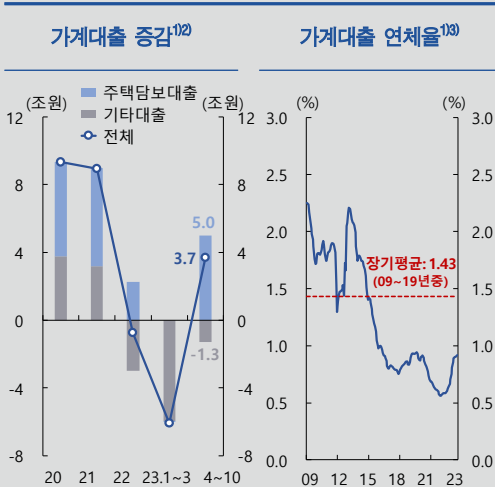
주: 1) 부문별 신용/명목GDP 비율과 HP필터에 기반한 장기추세치  
(추정기간: 75년 1/4분기~23년 3/4분기,  $\lambda=25,000$ ) 간 차이  
자료: 한국은행

37) 명목GDP 대비 가계 및 기업 신용 비율은 금융심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비율이 장기추세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갭이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위한 공통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BCBS(2010)는 HP필터 방식(one-sided)에 따른 장기추세치 산출시 평활모수를 400,000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이 OECD 주요국보다 짧은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 작은 평활모수(25,000)를 이용하였다.

## 참고 1.

###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sup>1)</sup>

금년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도 아직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세 및 건전성 저하가 계속될 경우 향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향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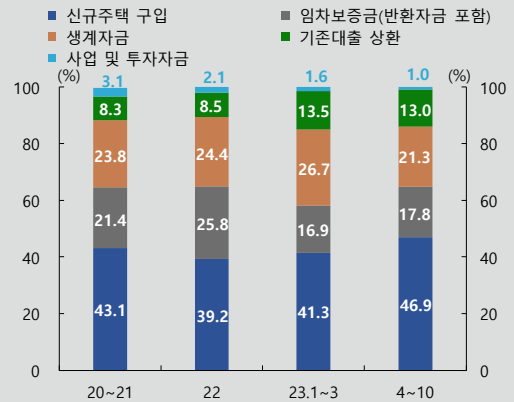
주: 1) 전금융권 기준  
2) 기간중 월평균 기준  
3)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특징

###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대출 비중 확대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2023년중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1~3월중 26.7% → 4~10월중 21.3%)은 축소되었다. 한편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은 동 기간중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23.1~3월중 13.5% → 4~10월중 13.0%)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기존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인터넷전문은행 대출<sup>4)</sup>이나 정책모기지론으로 대환한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금용도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비중<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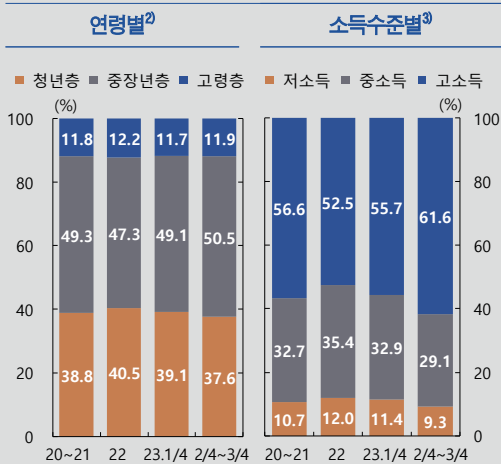
주: 1) 국내은행 기준  
2) 자금용도가 파악 가능한 신규취급액 대비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1) 본고는 김재영·김영주·이해인(안정총괄팀)이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임광규(안정총괄팀장)가 검토하였다.
- 2) 주택가격전망CSI(기준치=100)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0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모습이다(23년 1월 68 → 4월 87 → 8월 107 → 9월 110 → 10월 108).
- 3) 한편 특별보증지리론은 금년 1월 30일부터 서민·실수요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되었는데, 10월말 누계 41.7조원으로 이중 신규주택 구입이 64.8%, 기존대출 상환이 28.5%, 임차보증금 반환이 6.7%를 차지하였다(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3년 11월 3일).
- 4) 2022년중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분할상환방식·신규취급액·월평균 기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0.39%포인트)을 보였으며, 금년 들어 그 차이가 확대(23년 1~10월중 +0.55%포인트)되었다(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중장년층·고소득층 위주로 가계대출 증가

연령대별로는 여타 연령층보다 중장년층(40~50대),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상위 30%)의 대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4~3/4분기중 신규로 취급된 가계대출 가운데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장년층의 대출 비중은 50.5%로 1/4분기중(49.1%)에 비해 늘어난 반면, 청년층(23년 1/4분기중 39.1% → 2/4~3/4분기중 37.6%)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5)6)</sup> 또한 신규취급 가계대출 중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은 2023년 1/4분기중 55.7%에서 2/4~3/4분기중 61.6%로 확대된 반면, 저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의 경우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중 11.4%에서 9.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비중<sup>1)</sup>



주: 1) 전체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대비 항목별 비중

2) 청년층 30대 이하, 중장년층 40~50대, 고령층 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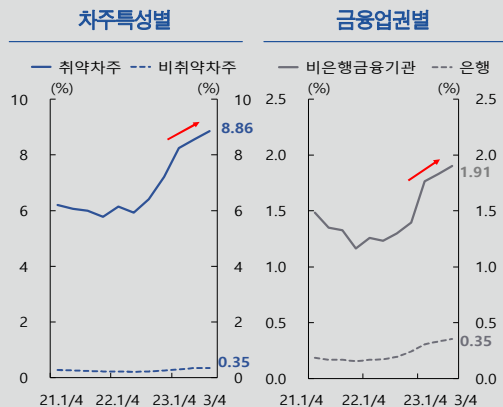
3)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상위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 취약부문 중심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저하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취약차주)나 비은행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하면서 2023년 3/4분기말 현재 8.86%로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 3/4분기말 1.91%로 은행(0.35%)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차주 특성별·업권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이러한 가계 취약부문의 부실위험 누증은 기본적으로 여타 부문에 비해 소득 대비 채무상환부담이 큰 데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소득여건 제약 등으로 부담 정도가 가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계의 이자부담비율(연간 이자지급액/연간 소득)과 가계대출 연체율 간의 관계를 보면, 이자부담 비율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연체율에 반영되는 가운데 이자부담비율이 상승할수록 연체율도 높은

5) 2023년 2/4분기중 전국 주택매입거래 가운데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건수 기준)은 52.4%이며, 특히 고가주택(15억 초과 주택) 중 중장년층 비중은 6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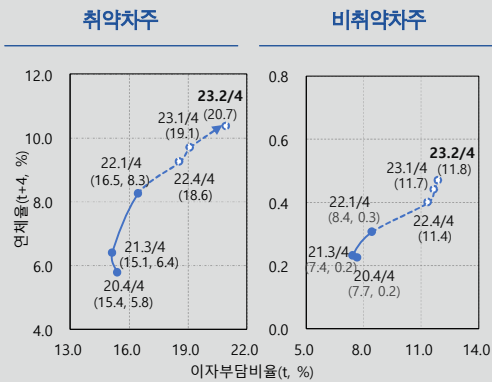
6) 이외에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요인 중 하나인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 공급규모(8.3조원, 81.6%가 7~8월) 가운데 중장년층 비중이 57.1%로 여타 연령층(청년층 29.9%, 고령층 12.9%)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 보도자료, 2023년 9월 14일).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주 특성별로 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 취약차주의 이자부담비율이 비취약차주에 비해 더 큰 폭 상승함에 따라 2023년 2/4분기 현재 가계 취약차주의 이자부담비율은 20.7%로 비취약차주(11.8%)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간 상승한 이자부담비율이 연체율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차주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3/4분기말 차주수 기준 6.5%, 대출잔액 기준 5.2%)이 크지 않고, 가계대출 전체의 연체율도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이 연체율 상승에 대해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비율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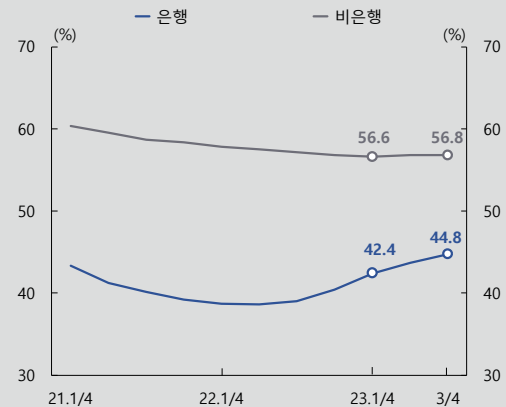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LTV 규제 상한이 인상 조정<sup>8)</sup>됨에 따라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비율이 은행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sup>9)</sup> 2023년 3/4분기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 기준)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비율은 각각 44.8%, 56.8%로 1/4분기말(42.4%, 56.6%)에 비해 상승하였다. 다만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차주 특성별 가계 이자부담비율<sup>1)</sup>과 연체율 변화 추이<sup>2)</sup>



주: 1) 연간 이자지급액/연간 소득 기준  
 2) 두 변수의 시차상관관계를 고려하여 t기의 이자부담비율과 t+4기의 연체율을 비교  
 3) 점선의 연체율은 각 시점의 이자부담비율을 감안한 1년 후 예상경로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업권별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비율<sup>1)</sup>



주: 1) 국내은행 및 상호금융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7) 2012년 1/4분기-2023년 2/4분기중 가계의 이자부담비율과 연체율 간 시차상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현재의 가계 이자부담비율은 1년(4분기) 후 가계대출 연체율과 높은 상관관계(+0.91)를 나타내고 있다.  
 8)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에 대해 LTV 규제 상한을 50%로 상향 단일화(20~50% → 50%)하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우대 적용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LTV 상한을 30%까지 적용하였다.  
 9) LTV 구간별로 보면 LTV가 70%를 초과하는 고LTV 대출비중 또한 은행(23년 1/4분기말 3.2% → 3/4분기말 5.6%)과 비은행금융기관(5.2% → 6.3%) 모두 확대되었다. 2023년 상반기중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낙찰가액/감정가액, 법원경매정보 기준)이 73.6%인 점을 감안하면 경매 및 채권추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LTV 70%를 기점으로 담보력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 평가 및 시사점

가계대출이 금년 4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1년이나 과거 장기평균과 비교해보면 증가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10)</sup> 또한 최근 신규로 취급된 가계대출이 중장년층·고소득층 등 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 위주로 늘어났고, 연체율이 장기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데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차주의 DSR이 상승하면서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sup>11)</sup>

이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DSR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오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취약차주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부실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체채권 관리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10) 금년중 4~10월 가계대출은 월평균 3.7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2020~21년중 4~10월 평균 증가규모(+9.7조원) 및 2014~22년중 4~10월 평균 증가규모(+7.4조원)를 상당폭 하회하는 수준이다(금융위 보도자료, 2023년 11월 8일).

11) 일반적으로 부채 증가는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소득흐름과 괴리된 채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증대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mbardi et al.(2017), 강종구(2017) 등).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DSR 수준이 소비제한 임계치(45.9%)를 초과하는 차주 비중의 변화를 추정해보면 2022년말 6.1%에서 2023년 2/4분기말 6.3%로 0.2%포인트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소비제한을 받는 차주 비중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소득 수준별로 나눠서 소비제한 임계치 초과 차주 비중을 별도 추정해보면 저소득 차주 비중은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반해 고소득 차주 비중의 경우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소득이 낮은 차주일수록 소비제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추정방법은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이슈 1>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수준 평가 및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계대출 소비제한 임계수준(DSR 기준)<sup>12)</sup> 초과 비중 현황

	전체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22년말 비중(A, %)	6.1	15.2	7.4	4.4
2023년 2/4분기말 비중(B, %)	6.3	15.7	7.8	4.5
<b>비중 변동폭(B-A, %p)</b>	<b>+0.2</b>	<b>+0.5</b>	<b>+0.4</b>	<b>+0.1</b>

주: 1) 차주별 평균소비성향(최근 4분기 평균)을 종속변수로, 차주별 DSR(직전 4분기 평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KOSPI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가계대출 이자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패널고정모형(Panel fixed-effect model)을 설정

2) 2012년 1/4분기~2021년 1/4분기중 차주 대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 참고 2.

###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sup>1)</sup>

지난해 이후 자영업자대출<sup>2)</sup>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들어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 업황이 부진한 모습<sup>3)</sup>을 보이고 대출금리도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을 차주특성별로 살펴보고 연체율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하였다.

#### 자영업자대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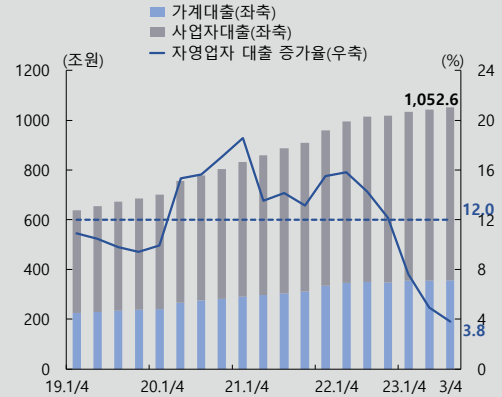
#####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큰 폭 둔화

2023년 3/4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52.6조원으로 지난 분기말(1,043.2조원) 대비 9.4조원 증가하였다. 다만 2023년 들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장기평균(2013~23년중 12.0%)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에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8%를 기록하였다.

자영업자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7조원 및 355.9조원으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2.0%)이 개인사업자대출(4.7%)에 비해 증가세 둔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sup>4)</sup> 금융업권별<sup>5)</sup>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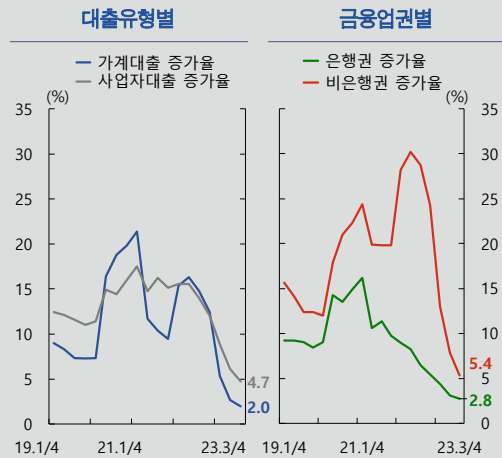
둔화되었다. 특히 비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2년말 24.3%에서 2023년 3/4분기 5.4%로 크게 하락하였다.

자영업자대출 동향<sup>1)2)</sup>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점선은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의 장기평균 (13년 1/4분기~ 23년 3/4분기)  
자료: 한국은행 사신(가계부채DB)

##### 대출유형 및 금융업권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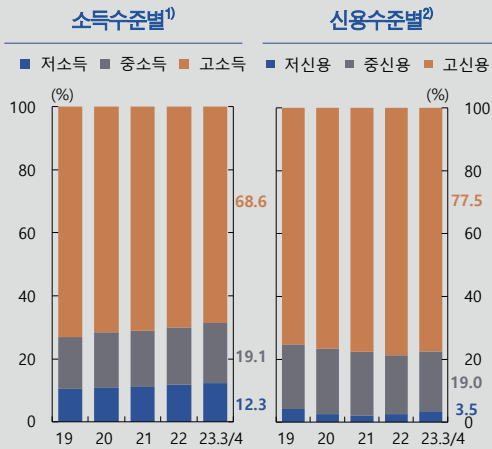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사신(가계부채DB)

1) 본고는 편도훈·신정후(안정분석팀)가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3)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통계청, 전년동기대비, 불변가격 기준) : 2023년 1/4분기 6.4% → 2/4분기 2.3% → 3/4분기 1.9%  
4) 자영업자대출 차주(314.5만명) 중 70.5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168.4조원)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244.0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528.3조원)과 가계대출(355.9조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5)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은행권 대출은 60.1%(632.8조원), 비은행권 대출은 39.9%(419.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소폭 증가

차주의 소득 및 신용도별로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하고 신용리스크가 낮은 고소득(146.2만명)·고신용(219.4만명) 차주가 각각 자영업자대출의 68.6%(722.2조원), 77.5%(815.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3/4분기말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12.3%, 3.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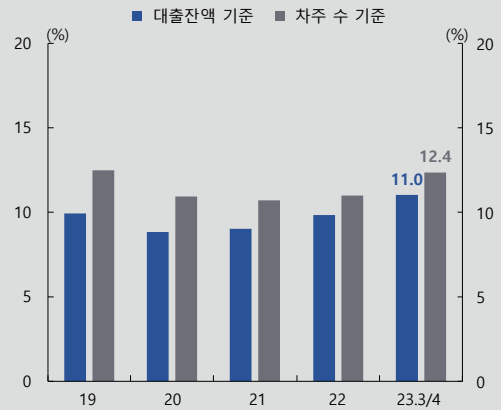
### 차주특성별 자영업자대출 비중



주: 1) 가계부채DB 상 전체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차주를 각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분류  
 2)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중신용(665 ~ 839점), 고신용(840점 이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한편, 2023년 3/4분기말 자영업자 취약차주⁶)는 38.9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116.2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은 차주 수 및 대출잔액 기준으로 각각 12.4% 및 11.0%로, 전년말(11.0%, 9.8%)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¹)



주: 1)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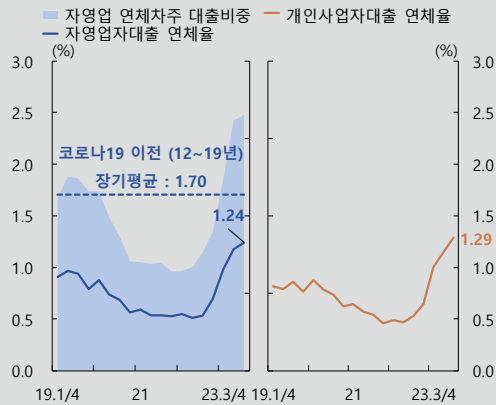
###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24%로, 2022년말(0.69%) 대비 0.55%포인트 상승하였다. 2022년 2/4분기말(0.51%) 이후 업황 부진 및 이자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연체율 수준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70%, 2012년 1/4분기~2019년 4/4분기)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고한 실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⁷)(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은 전 금융권 기준 1.29%를 기록하였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연체차주들이 보유한 대출(현재 연체중인 대출과 정상 상환중인 대출의 합)의 비중⁸)(이하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2.47%로, 전년말(1.35%) 대비 1.13%포인트 상승하였다.

6) 자영업자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자영업자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7) 자영업자대출 연체율과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표본 데이터인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산정한 실제 연체율 지표이나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8)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자영업자 중 연체차주가 보유한 총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일부 대출을 연체중인 자영업자 차주가 향후 보유 대출을 모두 연체할 경우의 최대 연체율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자영업자대출 연체<sup>9)</sup> 현황<sup>23)</sup>



-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및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기계부채DB상 자영업 차주 대출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상 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으로 산정  
 3) 점선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기계부채DB 기준)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2년 1/4분기~19년 4/4분기)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사신(기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자영업자대출의 중가세가 금년 들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영업자대출의 상당 부

분을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sup>9)</sup>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다만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sup>11)</sup>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부담경감<sup>12)</sup>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sup>13)</sup>, 새 출발자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상환 및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 장기 분할상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영업자대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9) 2023년 3/4분기말 기준 고신용 및 고소득 차주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09%, 0.99%로 전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1.24%)을 하회하고 있다.  
 10)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동 제도 이용잔액은 약 76.2조원(만기연장 71조원, 원금상환유예 4.1조원, 이자상환유예 1.1조원)이었다. 금융위원회의 연착륙 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용가능하며, 상환유예는 거치기간(1년) 및 최대 60개월(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되면서, 동 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8월 29일).  
 11) 자영업자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 비중과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비자영업자대출에 비해 높아 상업용 부동산경기 부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2>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을 참고하기 바란다.  
 12)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약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지원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연합회 보도자료, 2023년 12월 21일).  
 13)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7% 이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5%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고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8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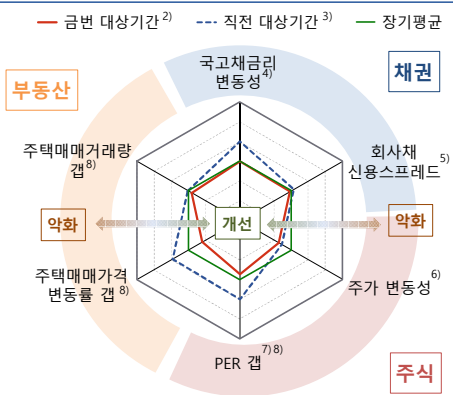
## II. 자산시장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 긴축기조 장기화 및 미 국채 수급여건 악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11월 이후 상승세가 되돌려지며 큰 폭 하락하였다.

주기는 7~8월중 상하방 요인이 교차하며 등락하다가 9월 이후 하락하였다. 다만 11월 들어 미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긴축 우려 완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였다.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금년 하반기 이후 상승 전환하였으나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4분기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상업용부동산 자본 수익률은 3분기 들어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그림 II-1).

그림 II-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sup>1)</sup>



-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7~11월중(주택매매거래량 갭은 2023년 7~10월중)  
 3) 2023년 1~6월중  
 4) 국고채(3년) 금리의 월별 변동성 평균 기준  
 5) 회사채(A-등급) 금리 - 국고채(3년) 금리 기준  
 6) 일별 V-KOSPI의 평균 기준 7)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8) 갭은 각 지표의 장기 평균 대비 격차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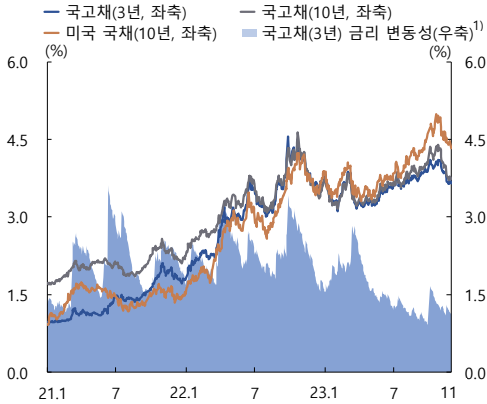
## 1. 채권시장

### 장기시장금리 상승 후 하락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영향받아 급등하였다가 큰 폭 하락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7월 하순 이후 미 국채금리가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 부각, 국채 수급여건의 악화 우려<sup>1)</sup>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이에 동조화되어 상승하였다.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에도 국고채 금리는 미 경기·고용지표 호조, 유가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9월 FOMC 결과에 대한 매파적 평가 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10월 하순 연중 최고치(10.26일 3년물 4.10%, 10년물 4.39%)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11월 이후 완화적인 미 FOMC 회의결과, 미 고용·물가지표 예상치 하회에 따른 연준 금리인상 종료 기대, 미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속도 조절<sup>2)</sup>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sup>3)</sup>와 함께 큰 폭 하락하였다(그림 II-2).

1) 일본은행의 YCC 유연화 조치(7.28일) 등으로 미 국채 최대 투자국인 일본 장기투자기관들의 투자축소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미 재무부가 3/4분기 국채 발행규모를 예상보다 크게 확대(8.2일)한 데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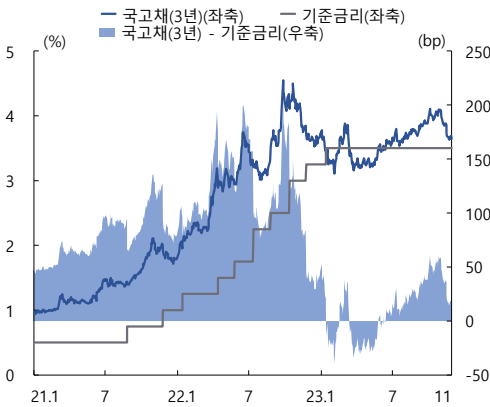
그림 II-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7월 이후 큰 폭 확대되었다가 11월 이후 빠르게 축소되었다(그림 II-3).

그림 II-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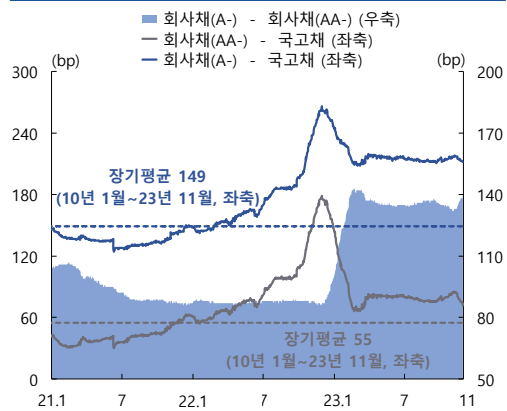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7월 이후 건설업 등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지속되었으나 금리메리트 등에 따른 양호한 투자수요,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방향 발표(7월 27일) 등에 힘입어 우량물 중심으로 소폭 축소된 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0월 중순 이후 장기금리 급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소폭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11월 들어서는 장기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6월말보다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신용등급간 스프레드(AA- 및 A- 기준)는 우량물(AA-) 스프레드가 더 크게 축소되면서 6월말 대비 소폭 확대되었다(그림 II-4).

그림 II-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1)</sup> 및 신용등급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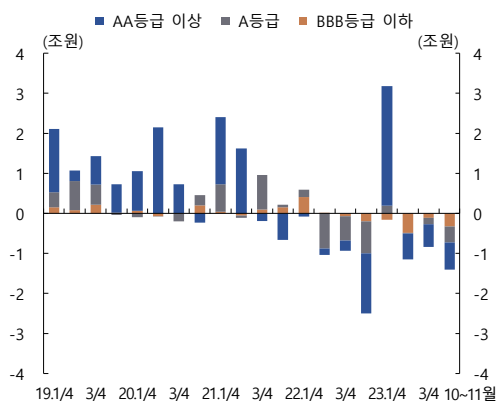


주: 1) 3년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2) 미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4/4분기 차환(refunding) 계획에서 10-30년 장기물 증가폭이 지난 분기보다 축소(3분기 +180억달러 → 4분기 +90억달러) 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하였다.  
 3) 11월중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폭(10년물, bp): 한국 -63, 미국 -60, 영국 -34, 독일 -36, 일본 -28, 캐나다 -51, 호주 -51, 뉴질랜드 -67  
 4) 회사채 신용등급간(AA- - AA-) 스프레드(bp): 2023년 7월 말 136 → 8월 말 133 → 9월말 136 → 10월말 133 → 11월말 140

한편 하반기중 회사채 발행은 기업들의 1/4분기중 대규모 선발행 및 은행대출 등 대체 조달수단 활용, 중장기 자금수요 둔화 등으로 발행물량이 감소하며 순상환 기조가 이어졌다. 특히 7~8월 중에는 계절적 요인(휴가철, 반기 보고서 제출 등)이, 9월 이후에는 높아진 발행금리 부담이 회사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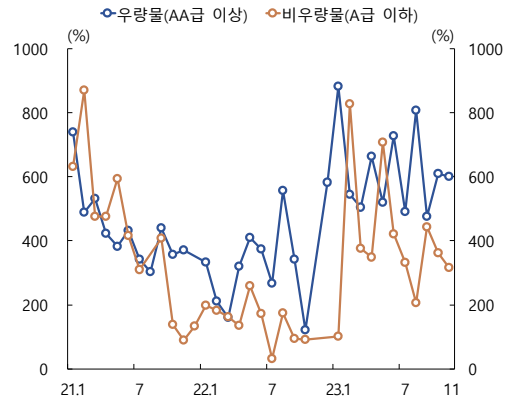
그림 II-5. 회사채<sup>1)</sup> 순발행<sup>2)</sup>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편 발행된 회사채 물량 자체는 일부 취약업종 및 실적부진 기업을 제외하면 수요예측 참여율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었다<sup>5)</sup>(그림 II-6).

그림 II-6. 회사채<sup>1)</sup> 등급별 수요예측참여율<sup>2)</sup>



주: 1) 공모기준,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2) 수요예측참여액/발행예정액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5) 7-11월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6개 기업(89건, 4.2조원) 중 미매각 발생 기업은 6개 기업(7건, 3,610억원)에 그쳤다.

## 2. 주식시장

### 주가 하락 후 반등

주가는 7~8월중 주요국 경기 연락처 전망 등 상승요인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우려 등 하락요인이 교차하며 등락하였다. 9월 이후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등으로 미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요국과 함께 큰 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11월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형성되고, 미 고용지표 둔화 등으로 긴축 우려가 완화되며 상당폭 반등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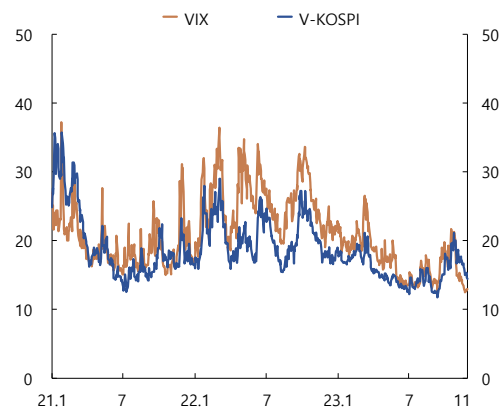
그림 II-7.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sup>1)</sup>



주: 1) 미국은 S&P500 지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은 MSCI 기준  
자료: KOSCOM, Bloomberg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0월 들어 중동지역 분쟁 격화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하였다가 11월 이후 확전 가능성이 악화되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도 높아지면서 하락하였다(그림 II-8).

그림 II-8. 주가 변동성 지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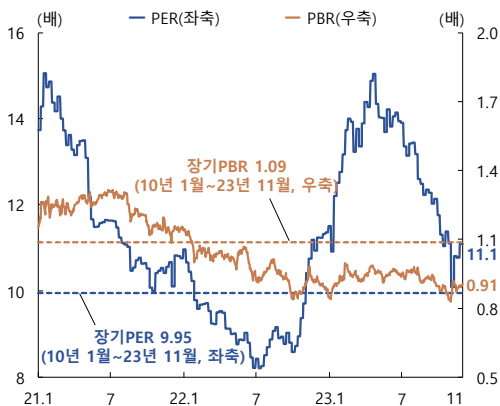
주: 1) S&P500 및 KOSPI200 지수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Bloomberg



PER 및 PBR 하락

주가수익비율(PER)은 기업 예상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기차 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함에 따라 11월 현재 11.1배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장기평균(9.95배, 2010년 이후)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6월말 기준 0.94배에서 11월 현재 0.91배로 하락하였다(그림 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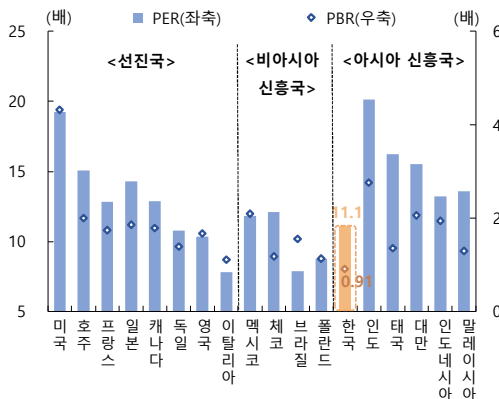
그림 II-9. PER<sup>1)</sup> 및 PBR<sup>2)</sup>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PER과 PBR은 11월 현재 선진국 및 주요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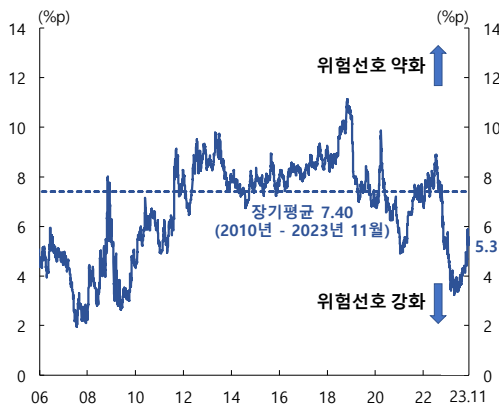
그림 II-10. 주요국의 PER<sup>1)2)</sup> 및 PBR<sup>1)</sup>



주: 1) 2023년 11월말 기준  
2)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자료: Bloomberg, Refinitiv

한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sup>7)</sup>은 하반기중 투자자들의 위험선호가 약화되면서 상승하였으나 11월 현재 5.3%포인트로 장기평균(2010년 이후 7.40%포인트)을 하회하고 있다(그림 II-11).

그림 II-11.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sup>1)</sup>



주: 1) 수익주가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 국고채(10년)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6) 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을 활용하였으며 동 지수는 MSCI지수 편입기업들의 현재 시가총액 합계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순이익(국내외 증권회사 전망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7) 수익-주가 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과 국고채(10년)수익률 간의 차이로 산출한다. 무위험자산(국고채) 대비 주식의 초과수익률이 과거평균에 비해 낮아도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선호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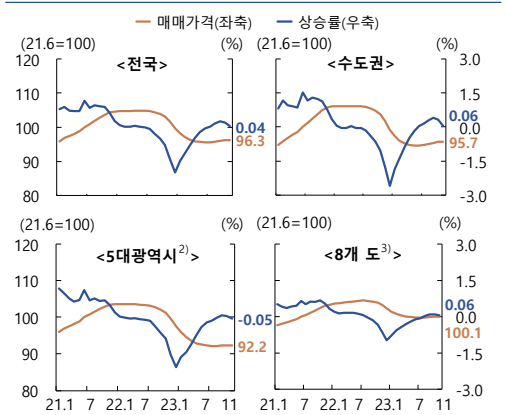
### 3.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주택매매가격은 연초 정부의 부동산 경착륙 대응정책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대출금리 상승<sup>8)</sup>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sup>9)</sup>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sup>10)</sup>

수도권은 2023년 6월 전월대비 상승전환(+0.03%)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10월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11월 기준 전월대비 0.06%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11월중 5대 광역시가 전기대비 -0.05%, 8개도 지역은 0.06%를 기록하였다<sup>11)</sup>(그림 II-12).

그림 II-12. 주택매매가격 추이 및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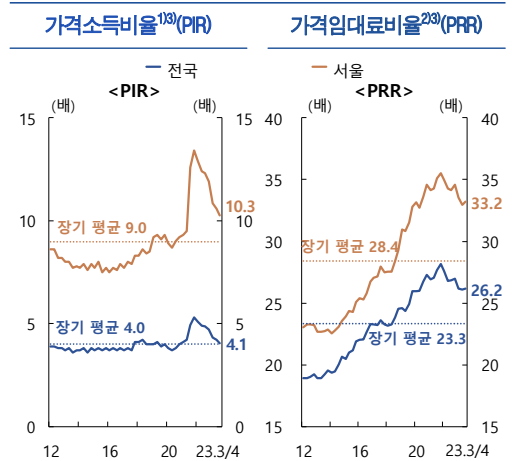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전월대비  
 2)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및 울산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  
 자료: 한국부동산원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가격임대료비율(PRR, Price to Rent Ratio)은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3/4분기중 가격소득비율(전국 기준)은 4.1배로 1/4분기(4.3배) 대비 하락하였다.<sup>12)</sup> 가격임대료비율(전국)도 2021년 4/4분기 고점(28.2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3/4분기는 26.2배로 1/4분기 수준을 기록하였다. PIR과 PRR 모두 장기평균(각각 4.0배, 23.3배)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I-13).

그림 II-13. 가격소득비율 및 가격임대료비율



주: 1) 주택가격(3분위)/연간 기구소득(3분위)  
 2) 주택가격/연간 임대료  
 3) 장기평균은 2012년 1/4분기~2023년 3/4분기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국부동산원

8) 예금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2023년 1월 4.41 → 3월 4.32 → 6월 4.20 → 10월 4.53  
 예금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2023년 1월 5.03 → 3월 4.69 → 6월 4.41 → 10월 4.64  
 9) 2023년 9월 13일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일반형 특례보증자리론 공급 중단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10) KB 주간 아파트가격 지수 기준으로는 11월 둘째주 들어 하락 전환하였다.  
 11)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전월대비, %, 한국부동산원) : 2023년 1월 -0.54 → 3월 0.71 → 6월 0.67 → 9월 0.59 → 10월 -0.28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KB부동산) : 2023년 1월 -1.31 → 3월 -0.83 → 6월 -0.25 → 9월 0.06 → 10월 0.06 → 11월 0.00  
 12) 가격소득비율 PIR (전국, 3분위, KB부동산) : 2022년 4/4분기 5.3배 → 2023년 1/4분기 4.9배 → 2/4분기 4.8배 → 3/4분기 4.6배  
 가격소득비율 PIR (서울, 3분위, KB부동산) : 11.9배 → 10.8배 → 10.5배 → 10.0배

2023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큰 폭 하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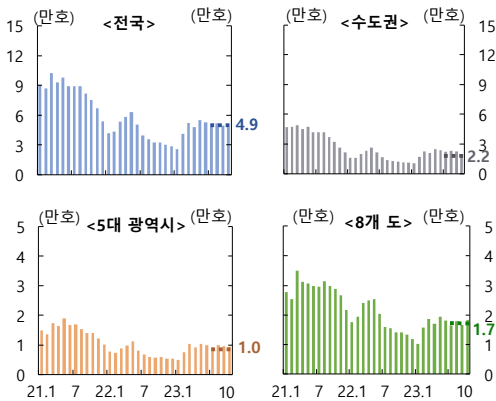
2023년 7~10월중 주택매매거래량은 월평균 4.9만 호로 전년동기(3.5만호) 대비 41.0%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장기평균(7.5만호)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평균 2.2만호로 전년동기(1.4만호) 대비 59.0% 증가하였으며, 5대 광역시는 7~10월중 평균 1.0만호로 57.4% 증가하였다. 8개 도는 7~10월중 1.7만호로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하였다. 다만, 9월 이후 주택매매거래량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매수심리도 10월 들어 상당폭 하락하였다<sup>13)</sup>(그림 II-14).

### 전월세가격 상승

주택매매 수요 위축으로 전월세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sup>14)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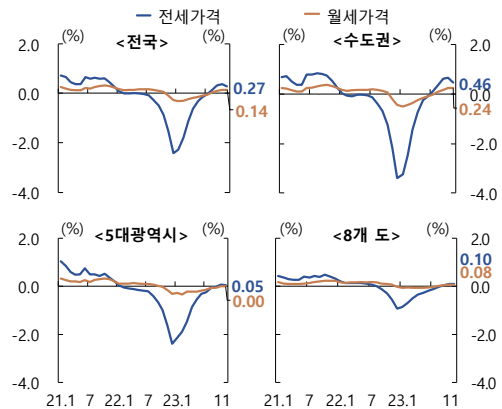
수도권의 경우 7~8월중 전월세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5대 광역시는 10월 이후 전월세가격이 상승전환하였다. 8개 도 지역은 8~9월 전월세가격이 상승전환한 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II-15).

그림 II-14. 월별 주택매매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15.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sup>1)</sup>



주: 1) 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13) 매수우위지수(KB국민은행): 2023년 1월 17.9 → 3월 21.9 → 6월 28.4 → 9월 32.9 → 10월 28.2 → 11월 23.1

14) 전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 한국부동산원): 2023년 1월 -2.29 → 7월 -0.04 → 8월 0.15 → 9월 0.32 → 10월 0.36 → 11월 0.27

월세가격상승률(전월대비, %, 한국부동산원): -0.33 → -0.05 → 0.04 → 0.09 → 0.14 → 11월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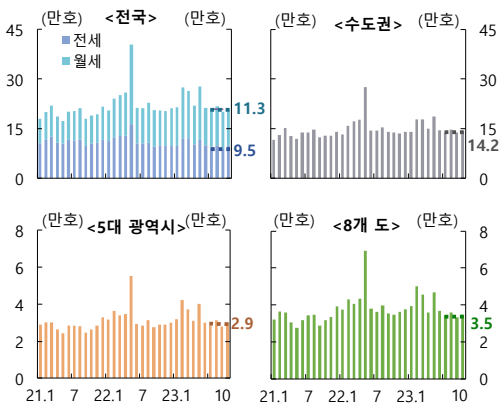
15)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KB부동산) : 2023년 1월 -1.98 → 3월 -0.93 → 6월 -0.22 → 9월 0.14 → 10월 0.20 → 11월 0.18

전·월세 거래량은 2023년 7~10월중 월평균 20.8만호로 전년동기(21.2만호) 대비 소폭(1.8%) 감소하였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거래량이 월평균 9.5만호로 전년동기(10.2만호) 대비 6.1%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량은 월평균 11.3만호로 전년동기(11.0만호) 대비 2.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전월세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10월중 54.2%로 전년동기(52.1%) 대비 2.1%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16).

2023년중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sup>16)</sup>은 36.2만호로 전년(33.0만호)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13~22년중 연평균 33.2만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입주물량은 19.6만호로 상반기 17.4만호에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18.7만호) 대비로도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중 아파트 분양물량은 23.6만호로 전년(36.8만호) 대비 큰 폭(-35.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II-17). 특히 2023년 상반기 분양물량(7.5만호)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55.9%) 하였으며, 하반기 분양물량도 16.2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19.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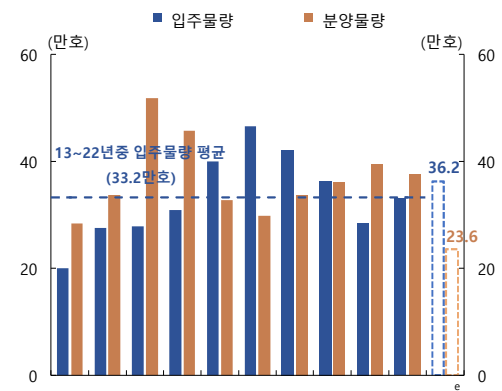
한편 미분양주택 물량은 2023년 2월말(7.5만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월말 기준 5.8만호(수도권 0.7만호, 비수도권 5.1만호)로 2월말 대비 22.7% 감소하였다.<sup>17)</sup> 준공후 미분양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sup>18)</sup>

그림 II - 16. 월별 주택전월세거래량<sup>123)</sup>



주: 1) 2021년 6월 이후 집계범위가 확정일자 신고자료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자료로 확대  
 2) 2022년 5월 중에는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만료로 일시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  
 3) 자료제약으로 지역별 전세 및 월세 거래량 구분은 전국만 명시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 - 17.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sup>1)</sup>



주: 1) 2023년 11월 16일 기준(단, 23년은 월별계획물량 합산 기준)  
 자료: 부동산R114

16) 지역별로 보면 2023년중 수도권(17.9만호 → 19.3만호)과 비수도권(15.1만호 → 17.7만호)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미분양주택 물량(월말 기준) : 2023년 1월 7.5만호 → 2월 7.5만호 → 7월 6.3만호 → 8월 6.2만호 → 9월 6.0만호 → 10월 5.8만호  
 18) 준공후 미분양주택 물량(월말 기준) : 2023년 1월 0.8만호 → 2월 0.9만호 → 7월 0.9만호 → 8월 0.9만호 → 9월 1.0만호 → 10월 1.0만호

### 오피스 임대가격 상승, 상가는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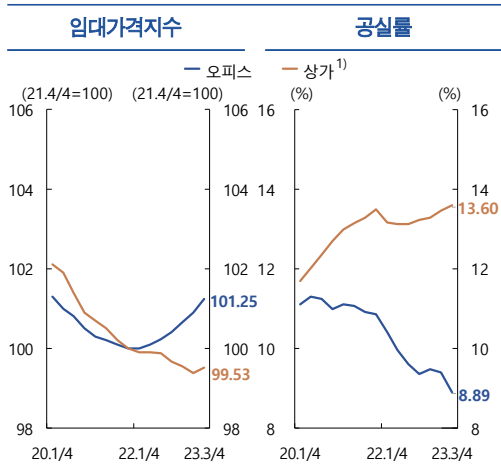
2023년 3/4분기말 오피스의 임대가격은 신규공급 제한, 재택근무 축소 등으로 1/4분기(100.66) 대비 0.59% 상승(101.25)하였으나, 상가 임대가격은 금리상승, 소비심리 위축<sup>19)</sup>,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1/4분기 수준(99.55)을 유지(99.53)하였다. 공실률의 경우 2023년 3/4분기말 기준 오피스는 8.89%로 1/4분기(9.47%) 대비 0.59%포인트 하락한 반면, 상가는 13.60%로 1/4분기(13.28%) 대비 0.32%포인트 상승하였다<sup>20)</sup>(그림 II-18).

### 자본수익률 오피스·상가 모두 부진 지속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4분기 들어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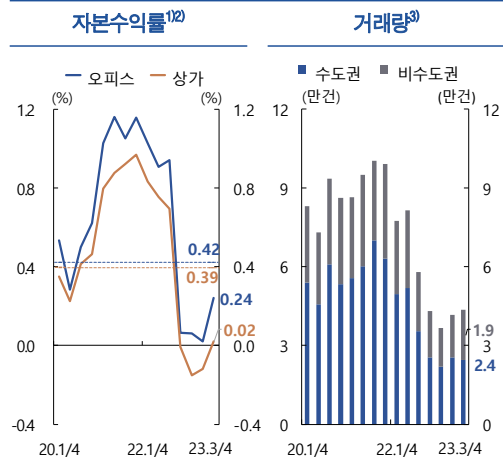
2023년 3/4분기중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24%로 1/4분기(0.06%) 대비 0.18%포인트,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0.02%로 1/4분기(-0.15%) 대비 0.17%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상업용부동산의 거래량은 2023년 3/4분기중 4.3만건으로 전년동기(5.8만건) 대비 24.9% 감소하였다(그림 II-19).

그림 II-18.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주: 1)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그림 II-19.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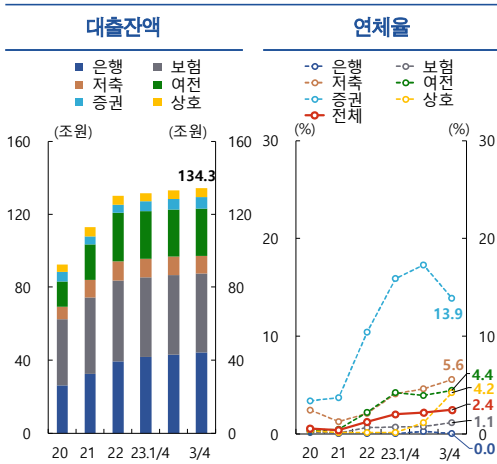
주: 1) 토지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금분기 자산가치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로, (금분기 자산가치 - 전분기 자산가치) / 현재 자산가치로 정의. 상가는 중대형 기준  
 2) 점선은 2009년 1/4분기~2023년 3/4분기중 평균  
 3) 상업업무용(오피스텔 포함) 기준. 매매 목적 이외 분양, 증여, 교환 등도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19) 소비자심리지수는 23.3월 92.0 → 6월 100.7 → 9월 99.7 → 10월 98.1 → 11월 97.2로 하반기 들어 하락하였다.  
 20)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 부동산PF 대출 증가세 둔화, 연체율 소폭 상승

2023년 3/4분기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채무보증 제외)은 134.3조원으로 2022년 말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과 증권회사가 전년말대비 4.8조원,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대비 각각 1.0조원, 0.7조원, 0.8조원, 0.1조원 감소하였다. 연체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2023년 3/4분기 기준 각각 0.0%, 1.1%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5.6%, 4.4%, 4.2%로 전년말대비 3.5%포인트, 2.2%포인트, 4.1%포인트 상승하였다. 증권회사는 연체율이 13.9%로 전분기(17.3%)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그림 II-20).

그림 II-20.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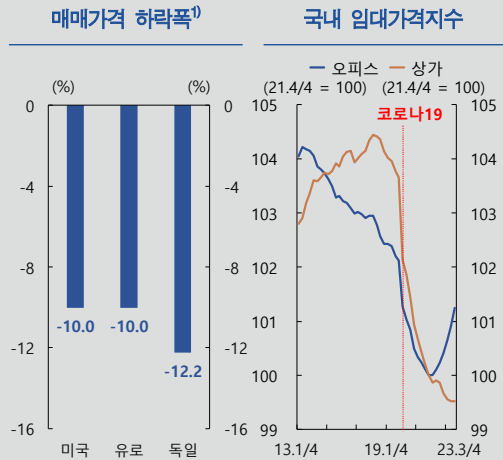
##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 동향 및 리스크 점검<sup>1)</sup>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물류 및 창고 시설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던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피스 및 임대용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점(2022년 2/4분기) 대비 10.0% 하락하였으며 유로지역과 독일 등도 각각 10.0%, 12.2% 하락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확대<sup>2)</sup>되어 온 가운데 2023~24년중 만기도래가 집중되면서<sup>3)</sup> 관련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은행<sup>4)</sup>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sup>5)</sup>

주요국 대비 하락폭은 작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상가를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오피스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금리부담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고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았다.

###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동향



주: 1) 2020년 이후 최고점 이후 미국, 독일은 23년 3/4분기까지, 유로는 23년 2/4분기까지의 하락폭  
자료: Bloomberg, BIS, 한국부동산원

### 상업용 부동산시장 동향

#### 상업용 부동산 거래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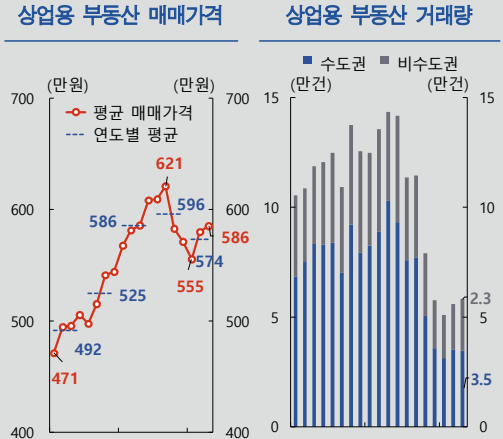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22년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m<sup>2</sup>)당 평균 매매가격<sup>6)</sup>은 2019년 1/4분기 기준 약 471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상반기중 621만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들어 금리상승,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조정된 후 최근 들어서는 일부 반등하였다. 거래량도 2023년 3/4분기중 5.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26.7%)

1) 본고는 박재현·정윤재(안정분석팀)이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미국의 경우 2023년 3월 기준 중소형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총 자산의 28.7%를 차지한 반면, 대형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총자산의 6.5%를 차지하였다(JP모건).  
3) 전체 상업용 모기지(4.4조달러)의 31%인 약 1.4조달러가 2023~24년중 만기도래할 예정이다(국제금융센터).  
4)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의 약 70%가 중소형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FRED).  
5) 미국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비소구(차주는 담보제공 외 상환책임을 지지않음)인 경우가 많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가치가 대출잔액보다 하락할 경우 차주는 전략적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개별거래의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실거래가)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1.0%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은 2.3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0% 감소하였다.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추이<sup>1)</sup>



주: 1) 단위면적(m<sup>2</sup>)당 매매가격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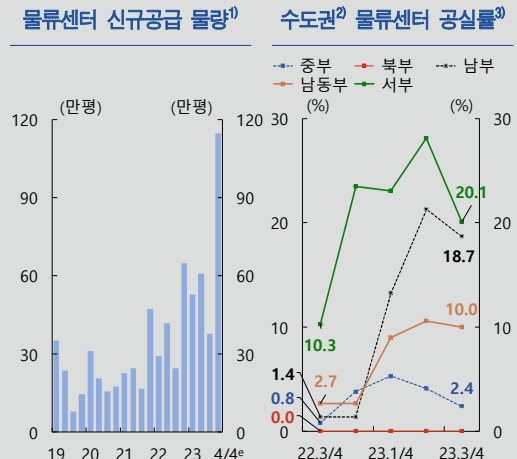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부진은 경기회복 지연과 상업용 부동산 공급확대, 소비패턴 변화, 금리상승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오피스보다는 물류센터 및 상가를 중심으로 위축되고 있다. 국내 오피스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재택근무 선호도가 낮고 도심내 신규 공급도 제한되면서 여타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sup>7)</sup>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sup>8)</sup> 공실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sup>9)</sup>

상업용 부동산 공급과잉 우려

물류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물류시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2022년 이후 신규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

발주된 사업장의 준공이 2023년에 집중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을 보면 2022년 3/4분기 4.0%에서 2023년 3/4분기 13.1%로 큰 폭 상승하였는데, 특히 신규 물량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남부, 남동부, 서부지역의 경우 공실률이 2022년 3/4분기 대비 각각 17.3%포인트, 7.3%포인트, 9.8%포인트 상승하였다. 다만, 공급이 제약되었던 중부 및 북부 지역은 공실률이 소폭 상승(+1.6%포인트)에 그치거나 매우 낮은 수준(0%)을 이어가고 있다.

물류센터 분양물량 및 공실률 추이



주: 1) 2023년 4/4분기의 경우 예정물량  
2) 중부: 군포·의왕·수원·오산·동탄 북부: 남양주·고양·피주·포천·양주 남부: 화성·광택·안성 남동부: 용인·이천·여주·광주·상남 서부: 인천·김포·부천·안산시흥  
3) 2023년 3/4분기 기준  
자료: 젠스타메이트, J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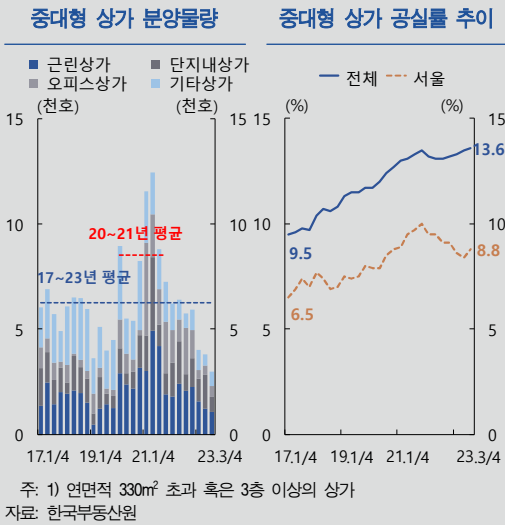
소매상가의 경우에도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터넷 쇼핑 등 무점포 소매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다 상가 공급물량도 확대되면서 부진한 모습이다. 2020-21년중 상가분양 물량을 보면, 분기 평균 약 8,500호로 2017년 이후 평균(약 6,300호) 대비 큰 폭

7) 전국 오피스 공실률(연평균, %): 2019년 11.9 → 2020년 11.2 → 2021년 11.0 → 2022년 9.9 → 2023년 3/4분기 9.3  
8) 서울지역의 경우 연면적 10,000m<sup>2</sup> 이상의 오피스 빌딩의 임대가격지수는 2023년 2/4분기 기준 2022년 1/4분기 대비 11.2~15.3% 상승하였다(KB부동산).  
9) 2023년 2/4분기 기준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2.4%로 주요 대도시(베이징 24%, 싱가포르 9%, 도쿄 5%) 대비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2023년 3/4분기 KB 상업용 부동산시장 리뷰).



증가하였다. 권역별로 공실률을 보면 전반적인 공실률이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다 여타지역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23년 3/4분기 중·대형(소형) 상가 기준 세종시가 공실률이 25.7%(15.0%)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8~14%(5~7%)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중대형 상가<sup>1)</sup> 분양물량 및 공실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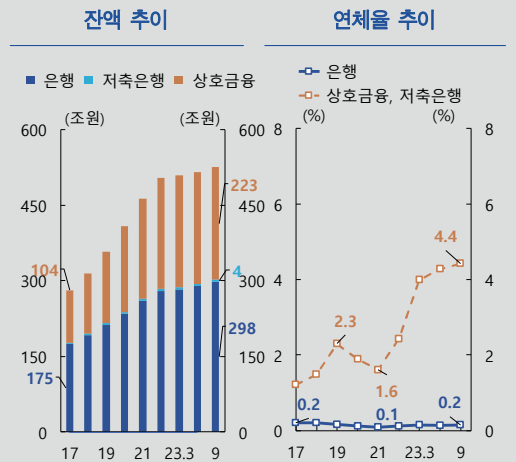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리스크 점검**

**비은행권 연체율 상승**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기준)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sup>10)</sup> 규모는 2023년 9월 525조원으로 2017~22년중 연평균 9.9%로 빠르게 증가한 이후 금년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증가하였는데,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2023년 9월 기준 298조원으로 2017년말(175조원) 대비 70.6% 증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 내에서는 관련대출의 대부분<sup>11)</sup>

을 차지하는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이 같은 기간 104조원에서 223조원으로 114.1% 증가하였다. 대출의 건전성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은행 부문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은 0.2%로 2017년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비은행은 농협·신협 등에서 관련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3년 9월말 4.4%를 기록하였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sup>1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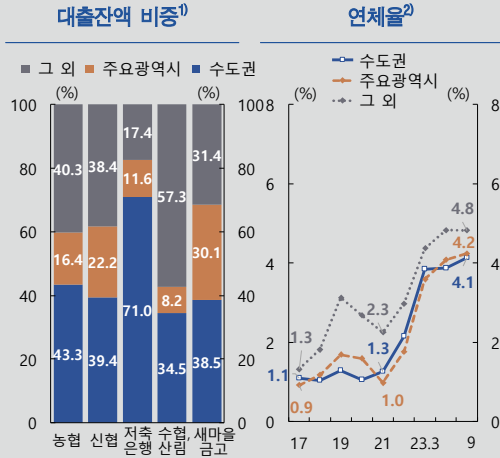


비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권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동부지역 비중이 2015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sup>12)</sup> 2023년 9월 기준 수도권 비중은 저축은행이 71.0%로 가장 높았고, 농협은 43.3%였다. 수협 및 산림조합은 34.5%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수도권·광역시에 비해 그 외 지역의 연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이후 모든

10) 토지, 공장 등을 제외한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하였다.  
11) 2023년 3/4분기 기준 상호금융이 비은행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98.1%를 취급하고 있다.  
12) 2015년 기준 비은행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수도권 비중은 34.3%였으나 2023년 9월 기준 45.0%로 증가하였다.

지역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2021년 1.3%에서 2023년 9월 4.1%로, 주요 광역시는 1.0%에서 4.2%로 그 외 지역은 2.3%에서 4.8%로 연체율이 상승하였다.

**비은행 지역별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분포 및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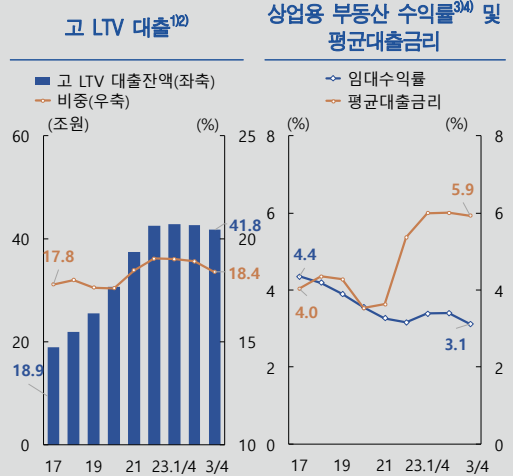


주: 1) 2023년 9월말 기준  
 2) 세종시는 주요광역시에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자체 서베이)

**고 LTV 대출 부실 위험 증가**

한편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비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내 잠재한 리스크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고 LTV(70% 초과) 대출잔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 비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고 LTV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18.4%)도 2022년(19.1%) 대비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 간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대출 규모가 2017년 18.9조원에서 2023년 3/4분기 41.8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이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고LTV 대출의 부실 위험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비은행 고 LTV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및 수익성**



주: 1) 대출잔액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합산 기준, 비중은 전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LTV 70% 초과 대출  
 3) 중대형 상가 소득수익률 기준  
 4) 2023년 3/4분기는 1/4분기-3/4분기 평균 기준(계절적 요인을 감안)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자체 서베이), 한국부동산원

**평가 및 시사점**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물류센터 및 상가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관련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연체율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고, 비은행권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의 연체율이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비은행권에서 대규모 부실 발생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상업용 부동산 초과 공급상태 지속, 경기회복 지연, 금리부담 등으로 관련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등 각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 내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연체율이 높은 일부 비은행권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II. 금융기관

일반은행<sup>1)</sup>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자산건전성은 금리상승 등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등으로 다소 저하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자산건전성도 저하된 가운데 수익성도 일부 업권을 제외하고 저하되었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세가 축소되었으나 금융부문 총자산에서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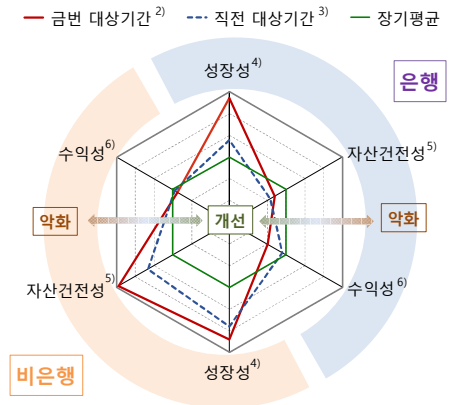
### 1. 은행

#### 자산증가율 감소 전환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23년 3/4분기말 2,384.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줄어 2010년 2/4분기말(-0.2%)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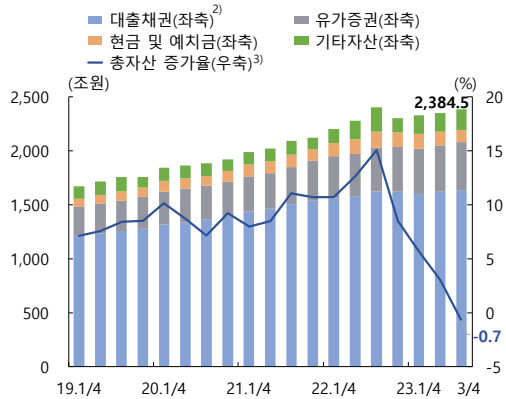
자산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대출 확대에도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 그쳐 2023년 1/4분기(2.6%)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서 현금성 자산 보유유인 축소 등으로 현금 및 예치금은 2002년 2/4분기(-23.3%) 이후 가장 큰 폭(-22.4%)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유가증권은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면서 금년 1/4분기(8.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그림 III-2).

그림 III-1. 금융기관 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sup>1)</sup>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3/4분기말  
 3) 2023년 1/4분기말(수익성은 2022년 3/4분기말)  
 4) 총자산증가율  
 5) 고정이하여신비율  
 6) 총자산순이익률(ROA)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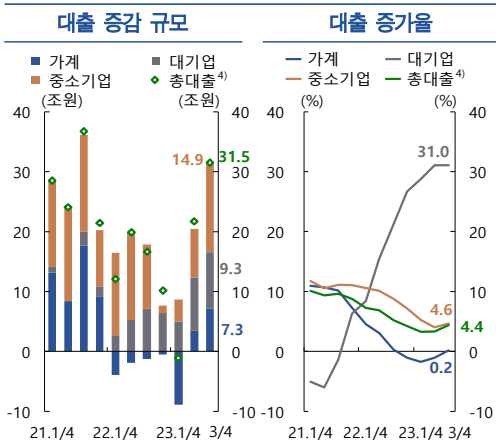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기말 잔액 기준  
 2) 원화대출, 외화대출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잔액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주별 대출채권(원화대출금 기준) 증감을 보면 2023년 3/4분기중 기업대출의 증가규모가 24.2조원(대기업 9.3조원, 중소기업 14.9조원)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7.3조원)도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기업대출은 은행의 대출취급 확대 등 공급요인과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에서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대기업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31.0% 증가하면서 2012년 2/4분기(3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가계대출은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정책대출 상품 공급<sup>2)</sup>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sup>3)</sup>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0.2%)이 플러스로 반전된 모습을 보였다(그림 III-3).

그림 III-3. 일반은행 대출<sup>1)</sup> 증감<sup>2)</sup> 규모 및 대출 증가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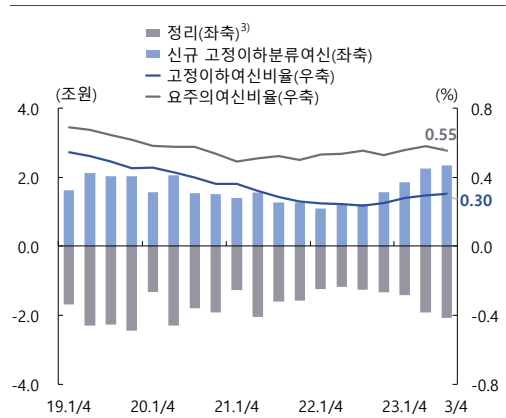


주: 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기준  
 2) 전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가계, 기업,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을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자산건전성 다소 저하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0.30%로 2022년 4/4분기 이후 신규발생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였다.<sup>4)</sup> 다만 금년 2/4분기 이후 은행들의 적극적인 상각·매각 등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노력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2023년 3/4분기중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신규발생액은 2.3조원으로 2022년 4/4분기 이후 매분기 증가하였다(22년 4/4분기 1.6조원 → 23년 1/4분기 1.8조원 → 2/4분기 2.2조원 → 3/4분기 2.3조원). 한편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금년 2/4분기 및 3/4분기중 확대된 모습이다(22년 4/4분기 1.3조원 → 23년 1/4분기 1.4조원 → 2/4분기 1.9조원 → 3/4분기 2.1조원)(그림 III-4).

그림 III-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sup>1)</sup> 및 고정이하여신비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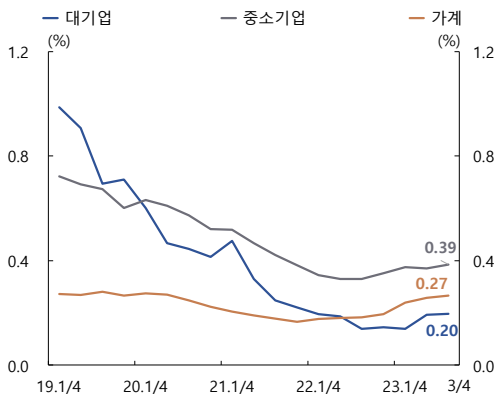
주: 1) 기간중 기준 2) 기말 기준  
 3) 회수, 대손상각, 매각, 건전성재분류, 채권재조정 등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2) 주택도시금융 지원 부족시 이차보전 형태로 은행자금을 활용하여 공급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금융), 공급한도 및 대상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증자리론(주택금융공사) 등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금융의 주택담보대출(가계신용통계 기준)이 2023년 2/4분기-3/4분기중 17.2조원 증가하였다.  
 3) 2023년 3/4분기말 주택담보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3.04%로 2023년 1/4분기말(1.03%) 대비 다소 확대되었다.  
 4) 2023년 3/4분기말 요주의여신비율은 2023년 1/4분기 대비 0.01%포인트(0.56% → 0.55%) 하락하였다. 차주별 요주의여신비율을 보면, 가계와 중소기업은 2023년 1/4분기 대비 각각 0.05%포인트(0.36% → 0.41%), 0.22%포인트(0.57% → 0.79%)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0.75%포인트(1.14% → 0.39%) 하락하였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와 중소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2023년 3/4분기말 가계 및 중소기업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0.27%, 0.39%로 금년 1/4분기말 대비 각각 0.03%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2022년 3/4분기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년중 대기업 대출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2/4분기중 상승한 후 3/4분기말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22년 4/4분기말 0.15% → 23년 1/4분기말 0.14% → 2/4분기말 0.19% → 3/4분기말 0.20%)(그림 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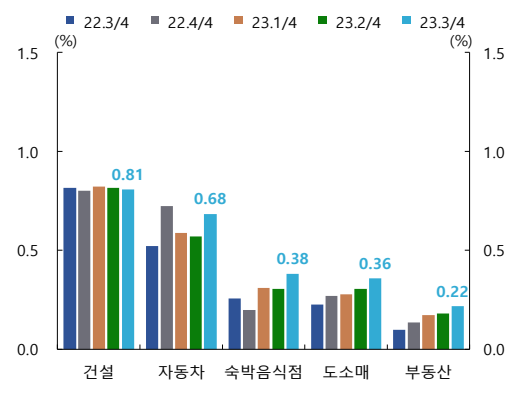
기업여신의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면, 자동차(23년 1/4분기 0.59% → 3/4분기 0.68%), 숙박음식점(0.31% → 0.38%), 도소매(0.28% → 0.36%), 부동산(0.17% → 0.22%) 등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하였으며, 건설(0.82% → 0.81%)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업종의 경우 대출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도 등의 영향으로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III-6).

그림 III-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III-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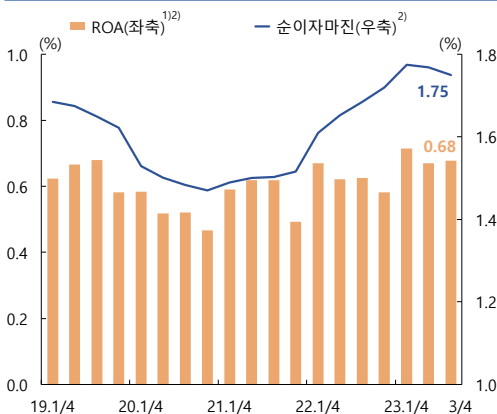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5) 2023년 상반기중 자동차 업종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1.5% 증가하였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17.8배로 양호한 영업실적에 힘입어 2022년말(9.7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 수익성 양호

일반은행의 수익성은 개선세가 유지된 모습을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 연율환산기준)은 2023년 3/4분기 0.68%로 전년동기(0.62%)대비 0.06%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순이자마진(NIM)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자수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3년 1/4분기 1.77%로 2022년 4/4분기(1.7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금년 3/4분기 1.75%로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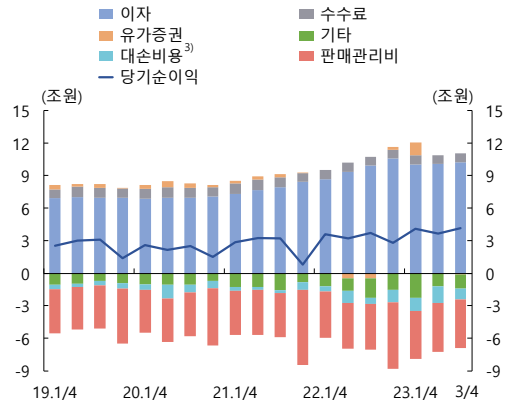
그림 III-7. 일반은행 수익성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금액 기준  
2)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4분기~3/4분기중 11.9조원으로 전년동기(10.5조원)대비 1.4조원 증가하였다. 순이익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이차이익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확대됨에 따라 30.3조원 늘어 전년동기(28.0조원)대비 2.3조원 증가하였다. 유가증권관련이익은 평가이익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원 증가하였다. 반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손충당금<sup>9)</sup> 추가 적립 등으로 대손비용이 3.7조원으로 전년동기(2.1조원)대비 1.6조원 증가하여 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III-8).

그림 III-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의 구성요소<sup>1)2)</sup>



주: 1) 대손준비금 전입전 금액 기준 2) 기간중 기준  
3) 대손상각비, 총당금 순전입액 및 대출채권 매매손의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6) 국내 일반은행의 경우 대출자산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예금의 경우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기에 이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자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순이자마진이 확대된다.
- 7) 이는 지난해 4/4분기중 은행들이 규제비용 정상화 및 은행채 발행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로 수신을 유치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 8) 예금은행의 분기평균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023년 3/4분기 2.50%포인트로 전년동기(2.42%포인트)대비 0.08%포인트 확대되었다. 한편, 2023년 10월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47%포인트로 직전월(2.49%포인트)대비 축소되었다.
- 9) 2023년 3/4분기말 대손충당금적립잔액은 10.9조원으로 2022년 3/4분기말(8.6조원) 대비 26.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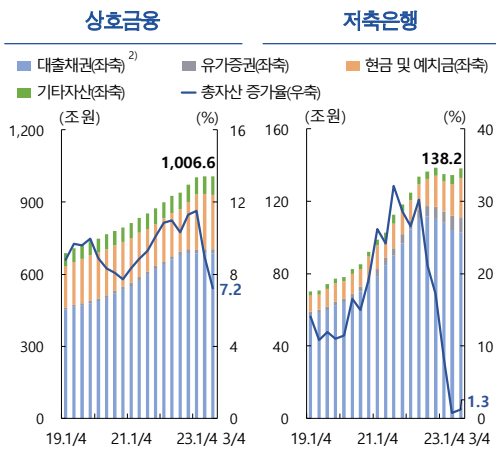
## 2. 비은행금융기관

### 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자산증가세 둔화 지속

비은행예금취급기관<sup>10)</sup>의 자산 성장세는 2022년 이후 가파르게 둔화되었다. 2023년 3/4분기말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전년동기대비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7.2%, 1.3%로 금년 1/4분기말(각각 11.5%, 8.3%) 대비 크게 낮아졌다. 2023년 3/4분기말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증가율은 각각 1.0%, -8.1%로 금년 1/4분기말(각각 7.2%, 3.6%) 대비 크게 낮아졌다. 이는 부실채권 증가, 높은 저축성 수신 금리에 따른 예수금 조달여건 악화 등으로 자산 확대가 제약되었기 때문이다(그림 I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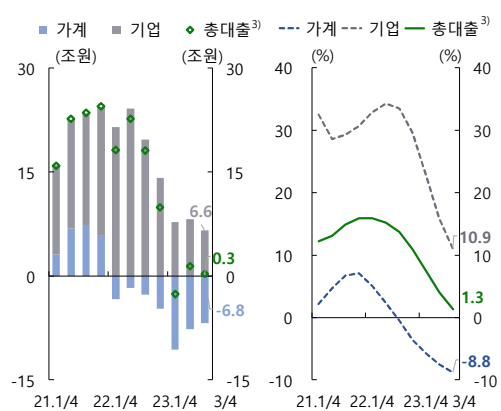
그림 III-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2)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잔액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의 차주별 대출채권을 보면 가계대출은 2023년 3/4분기중 6.8조원 감소, 기업대출은 6.6조원이 증가한 가운데 총대출<sup>11)</sup>로는 0.3조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3년 3/4분기 -8.8%로 1/4분기(-5.8%)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증가폭이 축소(22.6% → 10.9%)되었다(그림 III-10).

그림 III-10. 상호금융의 대출 증감 규모<sup>1)</sup> 및 대출 증가율<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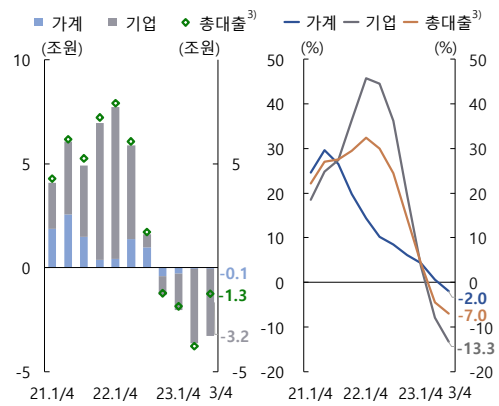
주: 1) 전기 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정책자금대출 등 기타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0) 비은행금융기관 중 은행과 유사하게 예금·대출 중심의 자금조달·운용 행태를 보이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을 의미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시장성 자금조달을 주로 하는 증권·여전사, 보험료 수수에 기반하는 보험회사와 자금조달 행태가 상이하고, 자금운용도 채권, 주식 등의 금융상품 비중이 높은 여타 비은행금융기관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며, 이에 따라 직면한 리스크 요인도 대규모 예금 인출, 대출자산 부실화 우려 등으로 여타 비은행금융기관과 크게 다르다. 이에 금번 금융안정보고서부터는 비은행금융기관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회사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비은행금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잠재리스크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증권·여전사는 FSB 기준에 따른 비은행금융중개(NBF)에 해당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의 현황 및 특징」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총대출은 가계 및 기업대출 외에 정책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하며, 2023년 3/4분기말 기타대출 잔액은 18.8조원으로 3/4분기중 0.5조원 증가하였다.

저축은행의 차주별 대출채권을 보면 2023년 3/4 분기중 가계 및 기업대출이 각각 0.1조원, 3.2조 원 감소하였다. 특히 자금조달비용 증가 및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대출이 축소되면서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13.3%로 2013년 4/4분기(-14.7%)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였다. 총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로도 2014년 1/4분기(-8.5%) 이후 최저치인 -7.0%를 기록하였다(그림 III-11).

그림 III-11. 저축은행의 대출 증감 규모<sup>1)</sup> 및 대출 증가율<sup>2)</sup>



주: 1) 전기 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정책자금대출금 등 기타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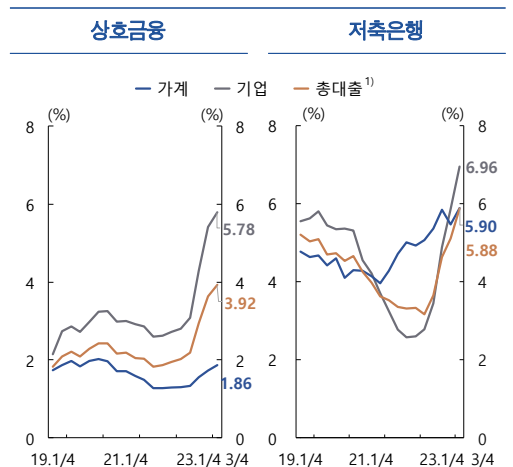
자산건전성 저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산건전성은 높은 수준의 금리 지속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기업의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하되었다.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3.92%로 금년 1/4분기 대비 0.98%포인트 상승하였다. 차주별로는 가계여신이 2023년 3/4분기말 1.86%로 금년 1/4분기 대비 0.29%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기업여신은 같은 기간 1.50%포인트 상승(4.28%→5.78%)하였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5.88%로 금년 1/4분기 대비 1.24%포인트 상승하였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여신은 2023년 3/4분기말 5.90%로 금년 1/4분기말(5.85%)에 이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기업여신은 2.08%포인트 상승(4.88%→6.96%)하였다(그림 III-12).

그림 III-1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주: 1) 정책자금대출금 등 기타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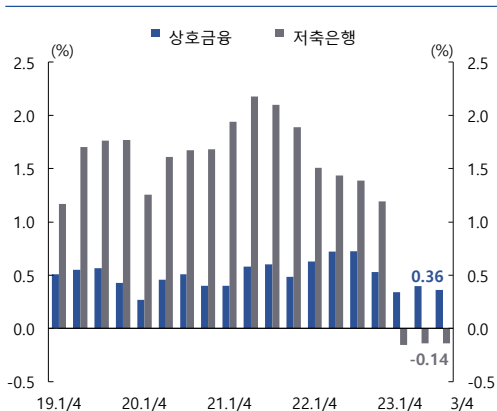
## 수익성 악화 지속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모습을 지속하였다.

2023년 3/4분기중 상호금융 총자산순이익률(ROA, 연율환산기준)은 0.36%로 전년동기대비 0.36%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순이익률이 -0.14%로 금년 1/4분기 이후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III-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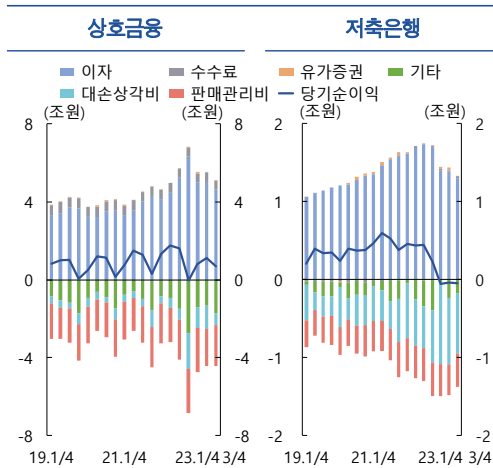
상호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4분기~3/4분기중 2.6조원으로 전년동기(4.7조원)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이는 부실채권 증가<sup>12)</sup> 등으로 대손상각비가 전년동기(1.4조원)대비 1.5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2023년 1/4분기~3/4분기중 당기순손실은 0.1조원으로 전년동기(당기순이익 1.3조원)대비 1.4조원 감소하였다.<sup>13)</sup> 순이익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대출자산의 감소세 전환이 반영되면서 2023년 1/4분기~3/4분기중 이자이익이 전년동기(5.0조원)대비 0.9조원 감소하였고, 부실채권 증가<sup>14)</sup>에 따른 대손상각비가 2.7조원으로 전년동기(1.8조원) 대비 0.9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II-14).

그림 III-1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sup>1)</sup>



주: 1) 누적 분기 실적치를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1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당기순이익 구성요소<sup>1)</sup>



주: 1) 기간중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2) 2023년 3/4분기말 고정이하여신(잔액)은 27.4조원으로 2022년 3/4분기말(14.0조원)대비 96.2% 증가하였다.  
 13) 저축은행 일반신용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1월 14.7%에서 2023년 10월 16.6%로 꾸준히 상승하며 법정최고금리(2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출금리 인상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대출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늘어난 조달비용에 따른 저축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4) 2023년 3/4분기말 고정이하여신(잔액)은 6.9조원으로 2022년 3/4분기말(4.1조원)대비 67.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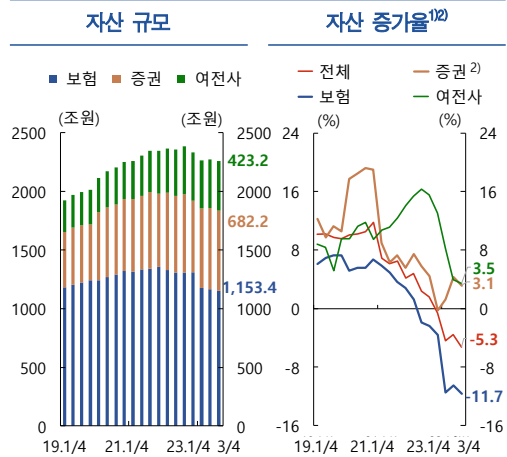
## 2-2. 보험,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산 감소세 지속

보험,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23년 3/4분기말 2,258.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였다. 총자산 증가율은 2021년 이후 둔화되기 시작하여 2022년 4/4분기부터 감소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III-15).

업권별로 보면 보험회사 총자산은 2023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영향<sup>15)</sup> 등으로 인해 2023년 3/4분기말에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11.7%)를 지속하였다. 증권회사 총자산은 유가증권 증가<sup>16)</sup>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투자자예치금 감소세 지속<sup>17)</sup>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3.1%의 둔화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2023년 이후 신용카드사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캐피탈사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확대<sup>18)</sup>되면서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림 III-15.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



주: 1) 전년동기대비  
2) 증권회사는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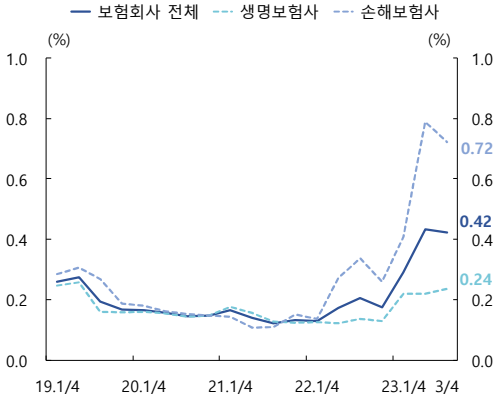
### 자산건전성 저하

자산건전성은 모든 업권에서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를 중심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2%로 금년 들어 2분기 연속 상승하였다가 3/4분기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세부 업권별로는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sup>19)</sup>의 동 비율이 생명보험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험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여타 업권인 증권회사(2.49%) 및 여신전문금융회사(1.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그림 III-16).

15) 2023년부터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기준이 기존 IAS39에서 IFRS9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에 원가평가가 대상이었던 금융자산의 일부가 시가평가 대상으로 변경되어 그간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이 기존 IFRS4에서 IFRS17로 대체되면서 기존 자산항목인 미상각신계약비(2022년말 기준 총자산의 1.0% 차지)가 자산항목에서 제외되고, 보험계약대출(총자산의 4.7% 차지)이 보험부채 차감항목으로 변경되어 장부상 부채가 감소하였다.  
16) 2023년 3/4분기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보유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8.9%로 2/4분기말(9.0%)과 유사한 성장세를 보였다.  
17) 2023년 3/4분기말 투자자 예치금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은 -15.2%로 2/4분기말(-14.4%)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8) 신용카드사의 2023년 3/4분기말 카드자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3.9%로서 2022년 3/4분기말(14.3%) 이후 지속 둔화되었다.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2022년 3/4분기말부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감소(-2.8%)로 전환된 이후 2023년 3/4분기말(-13.4%)까지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 2023년 3/4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사의 대출채권에서 부동산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생명보험사(17.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림 III-16. 보험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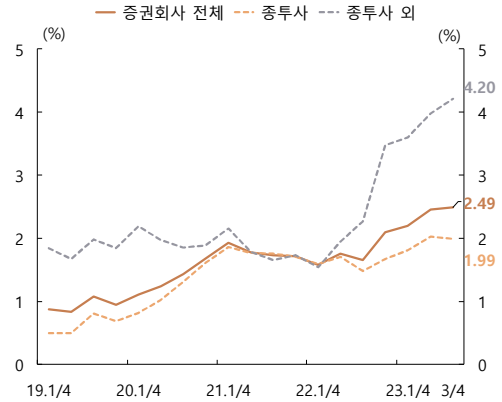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sup>20)</sup>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2.49%로 2022년 3/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사모사채<sup>21)</sup> 등의 건전성 저하에 주로 기인하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세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sup>22)</sup>(이하 ‘종투자’) 제외 여타 증권회사에서 더욱 가파른 모습이다<sup>23)</sup>(그림 III-17).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3/4분기 1.64%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신용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1/4분기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sup>24)</sup>된 반면 캐피탈사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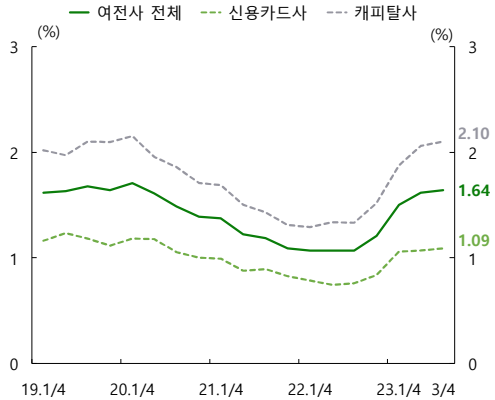
하<sup>25)</sup>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2년 4/4분기 이후 상승을 지속하였다(그림 III-18).

**그림 III-17. 증권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sup>1)</sup>**



주: 1) 미수금 제외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18. 여신전문금융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20) 증권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은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이며, 이중 대출채권은 신용공여금(신용거래용자금, 주식청약자금 대출금, 증권매입자금 대출금 등), 대출금, 사모사채 등으로 구성된다.

21) 2023년 3/4분기말 증권회사 사모사채의 고정이하여신규모는 0.7조원으로 부동산PF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사모사채 인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말(0.2조원) 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22) 증권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투자은행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5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마련되었다. 3조원의 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회사는 기업대출과 프라이م 브로커리지 등의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9개 증권회사(KB, NH,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키움, 하나, 한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

23) 2023년 3/4분기말 기준 증권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중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대출 및 채무보증)의 비중은 종투사의 증권회사가 26.0%로 종투자(18.5%)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다.

24) 신용카드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2022년 3/4분기 이후 강화된 대출태도가 유지(대출태도 지수: 2022년 2/4분기 0 → 3/4분기 -31 → 4/4분기 -44 → 2023년 3/4분기 -7)되었으며, 가계부채DB에 따르면 직전 1년간(2021년 3/4분기~2022년 2/4분기) 신규대출 차주의 신용도는 775.3점이었으나 이후 1년간(2022년 3/4분기~2023년 2/4분기)에는 778.8점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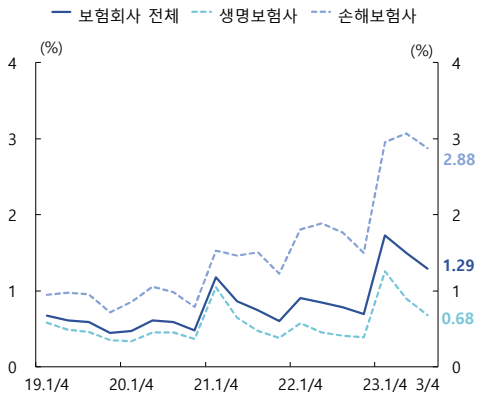
25) 2023년 3/4분기말 캐피탈사의 부동산PF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14%로 2022년 4/4분기말 1.71%에서 큰 폭 상승하였다.

## 수익성 업권별로 상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저하되었다.

2023년 3/4분기 보험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 연율환산기준)은 1.29%로 전년동기대비 0.51%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sup>26)</sup>과 함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판매 증가<sup>27)</sup> 등에 따른 실적 개선에 기인한다(그림 III-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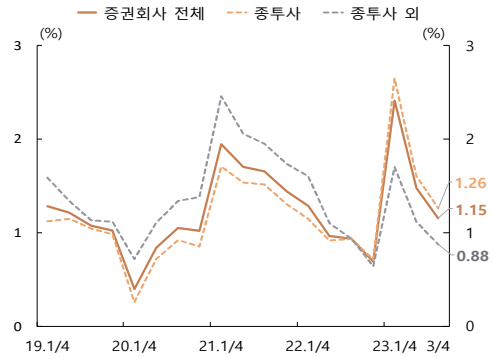
그림 III-19. 보험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sup>1)</sup>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23년 3/4분기 1.15%로 전년동기대비 0.22%포인트 상승하였다. 채무보증 수수료 수익<sup>28)</sup> 등은 감소하였으나 채권 거래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이익이 큰 폭 확대<sup>29)</sup>되었다(그림 II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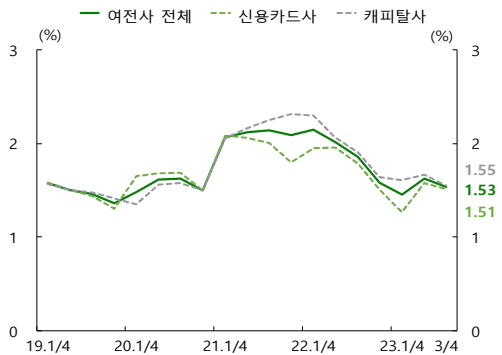
그림 III-20. 증권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sup>1)</sup>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순이익률<sup>30)</sup>은 2023년 3/4분기 1.53%로 전년동기대비 0.32%포인트 하락하였다. 카드회사와 캐피탈사 모두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sup>31)</sup> 등이 주요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III-21).

그림 III-21.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sup>1)</sup>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26) IFRS17 도입으로 신계약비의 이연 기간이 확대(7년 → 보험기간)됨에 따라 당기 비용이 감소하고, IFRS9 도입으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귀속되는 유가증권이 늘어나면서 금융상품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
- 27)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기준)는 2023년중 3/4분기까지(누적 기준) 85.9조원으로 전년 동기(78.6조원) 대비 9.1% 증가하였다.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동 기간중 76.4조원으로 전년 동기(77.7조원) 대비 1.6% 감소하였다.
- 28) 2023년중 3/4분기까지(누적 기준) 수수료 수익은 9.0조원으로 채무보증 및 인수·주선 관련 실적이 저하되면서 전년 동기(10.6조원) 대비 1.6조원 감소하였다.
- 29) 2023년중 3/4분기까지(누적 기준) 자기매매이익은 7.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채권관련 자기매매(7.6조원 이익)에서 전년 동기(2.4조원 손실)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 30) 감독규정 기준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사용할 경우 총자산순이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다.
- 31) 2023년중 3/4분기까지(누적 기준)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이자비용(차입금, 회사채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2%, 52.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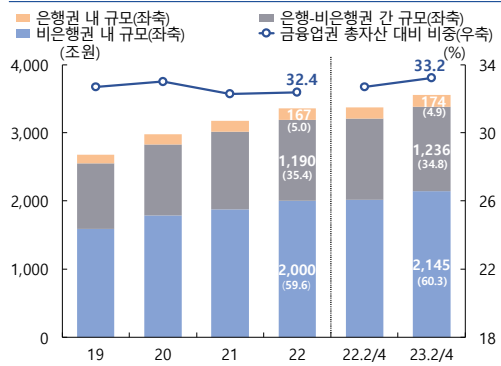
### 3. 상호연계성

#### 상호거래 증가세 축소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sup>32)</sup>는 2023년 6월말 3,55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소폭 하락<sup>33)</sup>하였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비금융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증가율이 더 크게 축소<sup>34)</sup>되면서 금융부문의 총자산(1경 692조원, 자금순환통계 기준)에서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월말 33.2%로 2022년 6월말(32.7%)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은행<sup>35)</sup> 간 거래(174조원)는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하였다. 비은행권 내 거래(2,145조원)는 보험회사의 투자펀드 운용액과 신탁의 증권회사 RP 운용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전체 상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3%로 0.9%포인트 증가하였다. 은행·비은행 간 상호거래(1,236조원)는 기타금융기관의 은행 운용액<sup>36)</sup>과 은행의 증권회사 운용액 증가 등으로 3.8% 증가하였다(그림 III-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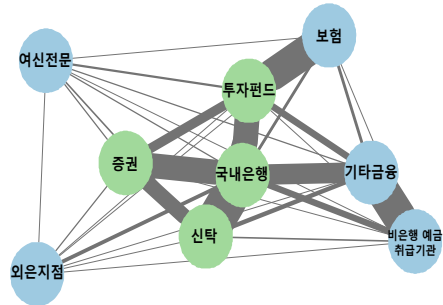
그림 III-22.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sup>1)2)</sup>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별로 보면 국내은행, 증권, 신탁 및 투자펀드가 업권간 상호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6월말 금융업권별 상호거래 규모는 은행·신탁 간 거래(273.7조원), 투자펀드·보험(248.9조원), 은행·투자펀드(220.3조원) 등의 순으로 많다(그림 III-23, 표 III-1).

그림 III-23.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sup>1)2)3)</sup>



주: 1) ●은 상호거래(업권간) 규모 기준 상위 4개 업권  
 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선 굵기가 크게 나타남  
 3) 2023년 6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32) 자금순환통계의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현금 및 예금 명세서, 차입금 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예금, 대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 48개 금융상품, 34개 금융업권 및 9개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안정 현안 분석> 「Ⅲ. 은행시스템 상호연계성 분석 및 횡단면 시스템 리스크 측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33)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21년 6월말 6.5% → 2022년 6월말 9.3% → 2023년 6월말 5.3%이다.  
 34) 금융권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자금운용은 2022년 6월말 1경 384억원 → 2023년 6월말 1경 679억원으로 2.8% 증가에 그쳤다.  
 35)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포함하는 국내은행 기준이며 외은지점은 비은행권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36) 기타금융기관에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에 대한 운용액이 2022년 6월말 93.8조원 → 2023년 6월말 119.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1. 금융업권 간 업권별 상호거래 규모<sup>1)2)</sup>

(조원)

업권	국내 은행	외은 지점	신탁	투자 펀드	보험	증권	기타 <sup>3)</sup>
국내은행	173.9	52.4	252.9	135.3	62.5	164.7	210.6
외은지점	37.9	38.2	13.4	10.4	2.9	16.8	12.9
신탁	20.8	13.2	60.8	14.4	16.8	23.6	69.5
투자펀드	85.0	4.8	73.3	48.6	243.4	74.7	79.4
보험	11.3	7.0	6.8	5.6	14.3	7.7	15.1
증권	54.9	20.8	150.2	64.1	21.5	124.2	45.3
기타 <sup>3)</sup>	147.3	16.7	132.0	120.2	80.1	105.4	390.9

주: 1) 행 업권은 열 업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열 업권은 행 업권을 통한 자금운용을 의미  
 2) 2023년 6월말 기준  
 3) 여신전문회사, 서민금융기관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업권 간의 상품별 상호거래 현황을 보면, 주로 주식, 예금 등의 거래가 증가하였다. 특히 보험 및 증권회사의 펀드 등 주식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sup>37)</sup> 주식 거래 규모(664.0조원 → 778.7조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민금융기관의 중앙회 예치규모가 증가하면서 예금 거래 규모도 증가하였다(표 Ⅲ-2).

표 Ⅲ-2.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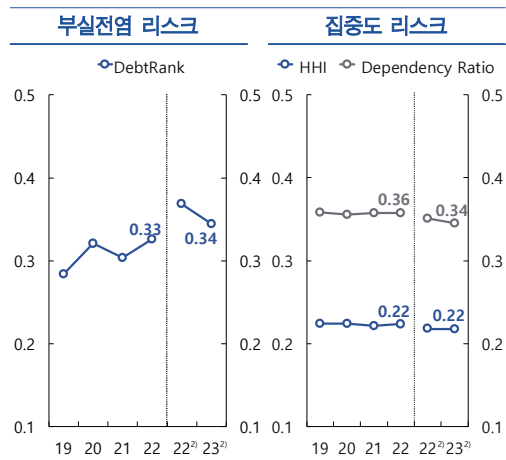
상품	2022년 6월말		2023년 6월말		B-A
	규모(A)	비중	규모(B)	비중	
예금	767.8	22.7	806.8	22.7	39.0
주식 <sup>1)</sup>	664.0	19.7	778.7	21.0	114.7
채권	736.1	21.8	717.0	20.2	-19.1
FP	154.4	4.6	186.0	5.2	31.6
대출	170.9	5.1	184.6	5.2	13.7
파생	133.8	4.0	115.6	3.3	-18.2

주: 1) 주식에는 투자펀드지분, 추가연계증권(ELS) 등이 포함  
 자료: 한국은행

### 부실전염 리스크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

부실전염 리스크 지표인 DebtRank<sup>38)</sup>의 금융업권간 지표는 외은지점의 외환스왑거래 축소<sup>39)</sup>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에서 집중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HHI지수<sup>40)</sup> 및 단일 거래상대방 의존율(Dependency Ratio)<sup>41)</sup>은 전년동기와 대체로 비슷하였다(그림 Ⅲ-24).

그림 Ⅲ-24.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관련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sup>1)</sup>



주: 1) 기말 기준  
 2) 2023년 2/4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37)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의 주식운용 규모는 각각 2022년 6월말 233.7조원 → 2023년 6월말 256.1원, 63.2조원 → 77.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38)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충격이 거래상대방에게 상호거래 익스포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되어 나타나는 손실 합계가 전체 금융권 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업권별로 계산하고 이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예컨대, DebtRank 0.05는 특정 업권의 도산에 따른 상호거래 관련 손실이 평균적으로 업권 전체 운용자산 대비 5%의 손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Battiston et al., "DebtRank: Too Central to Fail? Financial Networks, the Fed and Systemic Risk", 2012).  
 39) 외은지점의 파생상품 운용규모는 2022년 6월말 72.9조원에서 2023년 6월말 58.8조원으로 14.1조원 감소하였다.  
 40) 각 업권단위로 여타 업권과의 거래비중 제곱 합을 산출한 후 기중평균한 값으로,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기준으로 산출하였다.  
 41) 각 업권단위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업권과의 거래비중을 산출한 후 기중평균한 값으로,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비중과 가중치는 자금운용 거래기준으로 산출하였다.

## 참고 4.

### 국내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현황 및 특징<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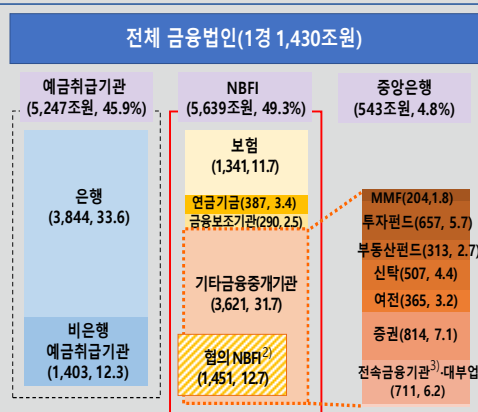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에 대한 규제 강화, 저금리 시기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비은행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은행 부문은 은행의 신용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여 실물경제 활동에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시장 참가자와 신용중개 방식이 다양화되고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이 심화되면서 비은행 부문이 시스템 리스크의 주된 경로가 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sup>2)</sup>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FSB의 기준<sup>3)</sup>에 따라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이하 'NBFI')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sup>4)</sup> NBFI는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나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 외의 금융기관 및 금융 활동을 총칭한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은 제외되며, 보험·증권·여전사 등의 금융기관과 채무보증, 자산유동화 등의 금융활동이 포함된다. 이중 신용중개 과정에서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신용위험의 불완전한 전가 등으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협의(narrow measure)의 비은행금융중개(이하 '협의 NBFI')로 분류한다.

### 국내 NBFI 현황

2023년 6월말 현재 국내 NBFI 규모는 5,639조원<sup>5)</sup>으로, 예금취급기관 금융자산의 107.5%, 명목GDP의 252%(2022년 기준) 수준이다. 성장률을 보면 국내 NBFI는 2009년말(1,688조원) 대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연금기금(증권·보험회사의 퇴직연금 관련 계정)과 부동산펀드(REITs 포함)가 각각 10배 및 14배 증가<sup>6)</sup>하고, 증권기관(증권금융 포함)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국내 금융부문 및 NBFI의 금융자산 현황<sup>1)</sup>



주: 1) 2023년 6월말 기준  
 2) 기타금융중개기관에 대체로 포함되나 별도 기준에 의해 정의  
 3) 금융지주회사 및 유동화회사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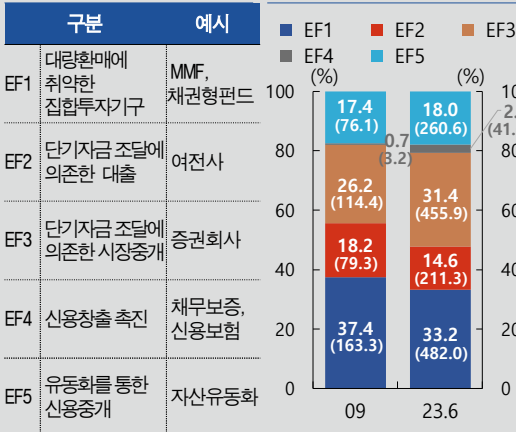
한편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협의의 NBFI<sup>7)</sup>는 1,451조원으로 NBFI의 25.7%(전체 금융부문의 12.7%)를 차지한다. 협의의 NBFI는 금융시스템 내에서 각 부문이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economic function)

1) 본고는 권운정·송수혁(비은행리스크팀), 김현만·배주원(자금순환팀)이 작성, 이종헌(금융리스크분석부장), 신준영(비은행리스크팀장), 송재창(자금순환팀장)이 검토하였다.  
 2) 2020년 3월 해외 주가 하락에 따른 증권회사 E.S 마진콜 사태, 2022년 4/4분기 PF-ABCP 시장의 불안 등은 금융시장 위험이 증권회사 등 비은행 부문을 통해 확산되어 금융안정을 저해했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 자금순환표를 기초로 FSB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분류·편제하여, 금융부문 세부 분류, 자산 포괄범위 등이 자금순환표 기준과 다소 상이하다.  
 4) G20 정상들이 2008년 11월 회의에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비은행금융중개(舊 그림자금융)를 지목한 데 이어 2010년 11월 회의에서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FSB는 2011년부터 글로벌 비은행금융중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5) 2022년말 기준 29개국으로 구성된 글로벌 NBFI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이다.  
 6) 퇴직연금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2015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2017년) 등 정부의 활성화 대책 등으로, 부동산펀드(REITs 포함)는 저금리 하 금융기관 등의 대체투자 수요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세제지원, 상장요건 완화 등)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7) 협의의 NBFI에는 공적금융기관 및 은행지주 계열 금융기관 등은 제외되며, 부외계정인 증권회사 채무보증 등이 포함된다.

에 따라 5개 범주(EF1-EF5)로 구분한다. EF1(집합투자기구 중 일부<sup>8)</sup>)이 협의의 NBF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F3(증권회사 중 일부), EF5(유동화기구), EF2(여전사 중 일부), EF4(채무보증) 순이다.

협의 NBF의 세부 구분

협의 NBF의 부문별 비중<sup>1)</sup>



자료: 한국은행

주: 1) 괄호 안은 잔액(조원)  
자료: 한국은행

국내 EF1(482조원)은 주로 개방형으로 운용되는 채권형 펀드<sup>9)</sup>와 MMF가 대부분을 차지(80.5%)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만기 및 유동성 변환이 일어나거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 마진콜 요구 또는 투자자의 대량 환매 요구 등으로 유동성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

EF2(211조원) 및 EF3(456조원)은 주로 회사채, CP 등 시장성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단기차입 비중도 상당하다. 여전사 및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시 만기 및 유동성 변환이 발생하는데, 금융시장 여건

이 악화될 경우 단기조달 자금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져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sup>10)</sup> 특히 여전사의 경우 여전채를 주로 매입하는 여타 금융기관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여타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여전사로 전이될 소지도 있다.<sup>11)</sup>

EF4(41조원)<sup>12)</sup>는 대출 또는 채무증권 관련 신용위험을 이전시킴으로써 신용창출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신용·유동성·거래 상대방 리스크 등이 적절히 평가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유발하여 신용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채무보증 이행 현실화로 보증기관에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F5(261조원)는 정기예금,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기관 등 기초자산 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및 조달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 과정에 만기 및 유동성 변환이 일어나며, 과도한 신용창출이 유발될 수 있다.

### 국내 NBF의 특징

#### 낮은 집합투자기구 비중

우리나라의 경우 집합투자기구<sup>13)</sup>가 NBF에서 차지하는 비중(2022년말 20.0%)과 명목GDP 대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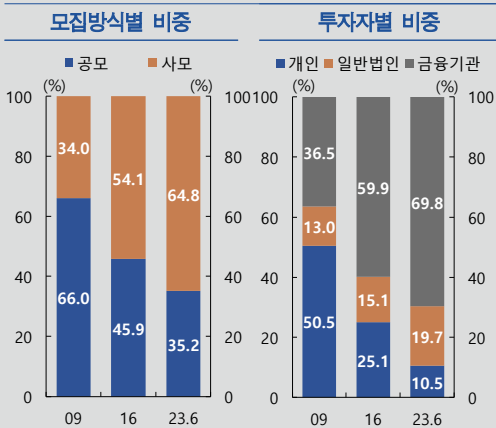
8) 신용중개 기능이 약한 주식형 펀드 및 자본형 부동산펀드(REITs 포함)는 제외된다.  
9) 2023년 10월말 기준 채권형 펀드는 94.6%, MMF는 전부가 개방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10) 증권회사 및 여전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2020년 3월 글로벌 주가 하락으로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ELS)의 헤지 관련 외화증거금에 대한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하자, 증권회사는 외화조달에 필요한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여전채를 대량 매도하였다. 그 결과 여전채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증권회사의 유동성리스크가 여전사의 여전채 차환리스크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였다.  
12) 2023년 6월말 국내 협의의 NBF의 2009년 대비 성장률(배)은 3.3이며, 이 중 EF4(12.8)가 가장 높다(EF1 3.0, EF2 2.7, EF3 4.0, EF5 3.4).  
13) 집합투자기구는 유형별로는 MMF, 투자펀드(주식형, 채권형 등) 및 부동산 펀드로, 모집방식별로는 공모 및 사모로 구분되며, 유형 및 모집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NBF에 포함된다. 한편 이 중 주식형 펀드 및 자본형 부동산 펀드를 제외한 부분을 협의의 NBF로 분류한다.



(50.6%)가 글로벌 수준(각각 34.2% 및 92.4%)에 비해 낮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부진하면서 공모펀드의 성장세가 크지 않았던 데 주로 기인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낮은 비중은 펀드의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공모펀드와 달리 레버리지나 투자상품 관련 규제 강도가 약한 사모펀드가 급속히 성장한 점, 군집행동 가능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증권회사의 프라임 브로커 역할 수행(증권대차, 레버리지 제공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증권회사와의 연계성이 강화된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회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증권기관(증권금융 포함)의 자산은 2009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NBF에서 증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sup>14)</sup>되었다.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금융시장간 연계성 또한 심화되었다. 증권회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주된 차입주체로, 자본시장에서는 국채, 회사채 등의 대규모 매입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증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중개(brokerage), 자기매매를 통한 시장조성자 역할, 증권 인수주선 등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의 유동성 또는 신용 위험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반대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이 증권회사의 유동성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되었다.

국내 펀드시장 변화 추이<sup>1)</sup>



주: 1) 기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시스템 내 증권회사의 중요도 확대

금융감독당국의 투자은행(IB) 육성책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증권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및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증권회사의 자산 및 부채가 대형 증권

국내 증권회사 관련 제도 변경 추이

시기	제도	주요 내용
2009	자본시장법 시행	증권회사 채무보증 업무 허용
2012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변경	신용위험액 산정시 채무보증 반영 방식 완화(자감항목 → 위험값 적용)
201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자) 제도 도입	종투자(자본 3조원 이상)에 기업 신용공여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PBS) 허용
2014	新순자본비율 도입	총 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 → 필요 유지 자기자본 대비 잉여자본(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여력 증가
2016	초대형IB 육성방안	종투자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이상) 등 단기금융업무 허용 등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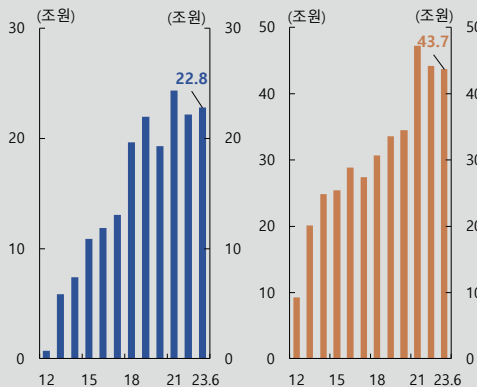
부동산PF 관련 협의 NBF의 가파른 성장

우리나라 NBF의 부동산PF 관련 금융 활동도 빠르게 성장했다. 협의 NBF 중 EF4(채무보증)와 EF5(유동화기구)는 증권사 지급보증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sup>15)</sup> 이는 2010년대

14) 전체 NBF에서 증권기관(증권금융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0.9%에서 2023년 6월말 14.4%로, 협의 NBF에서 EF3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중 26.2%에서 31.4%로 확대되었다.

중반 이후 증권회사가 PF 채무보증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한 데다, 제도 변경 등의 영향으로 대형 증권회사의 위험투자 여력이 증대된 데 기인한다. 증권회사가 부동산PF 자금조달의 주요 채무보증 주체가 되면서 자금조달 효율성이 증대된 측면도 있으나,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은 만기가 3개월 이하인 단기 형태가 많아 단기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차환 발행에 애로를 겪으면서 증권회사의 유동성리스크,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 침체시 기초자산인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채무보증을 수행한 증권회사의 손실로 이어져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회사 PF채무보증 규모      PF유동화증권 잔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예탁결제원

## 시사점

우리나라의 비은행 부문은 그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자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신용중개방식, 취급 금융상품, 거래상대방 등도 다양해졌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 양상이 복잡화되고,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도 심화되었으며, 자본시장과의 연계성도 강화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의 노력으로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마련·시행<sup>15)</sup>되고 있으나, 향후 금융혁신의 진행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기법이 출현하고, 비은행 부문의 업무영역이 보다 확대될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은행 부문의 영업행태와 잠재리스크에 대한 점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간, 금융기관 및 시장 간 상호연계성 확대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및 거래 내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건전성 악화시 타 부문으로 리스크 전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FSB 등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 유발 경로 식별 및 규제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sup>17)</sup>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 불안시에도 경영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5) 2023년 9월말 기준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에서 PF채무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54%, 전체 유동화증권 잔액에서 PF유동화증권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한국예탁결제원 집계 자산유동화증권 잔액 기준으로 자산유동화담보대출(ABL)은 제외)이다.

16) 금융감독당국은 2019년 1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12월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 2020년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5월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7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2021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차례로 마련하였다.

17) FSB는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CPM(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와 함께 MMF, 개방형펀드, 증거금 산정 제도 등 NBFI 부문별 취약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FSB 산하 워킹그룹 활동 등을 통해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IV. 자본유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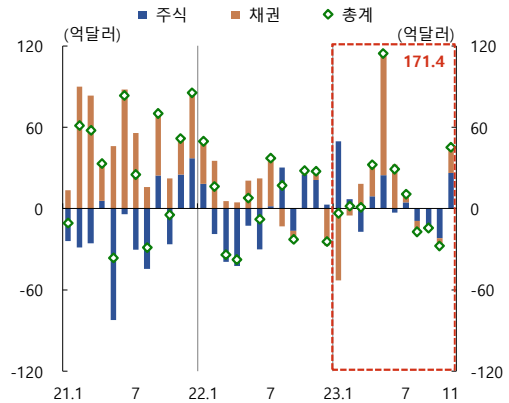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하반기 일부 기간 중 주식 및 채권 모두 순유출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연중으로 순유입되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환손실 가능성 등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유인이 하락하여 주식 순투자는 감소하였으나, 미 채권금리 하락 기대에 따라 채권순투자가 증가하면서 소폭 확대되었다.

###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하반기 일부 기간 중 순유출되었으나 연중으로는 순유입

2023년 1~11월중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금<sup>1)</sup>은 171.4억달러(주식 56.4억달러, 채권 115.0억달러) 순유입되었다(그림 IV-1). 상반기에는 주식과 채권 자금이 모두 순유입(주식 70.0억달러, 채권 105.2억달러)되며 175.2억달러 순유입된 반면 하반기에는 8월 이후 3개월 연속 주식과 채권자금이 모두 순유출을 기록<sup>2)</sup>하면서 3.7억달러 순유출(주식 13.6억달러 순유출, 채권 9.9억달러 순유입)되었다. 다만, 11월 들어서는 주식과 채권 자금이 모두 순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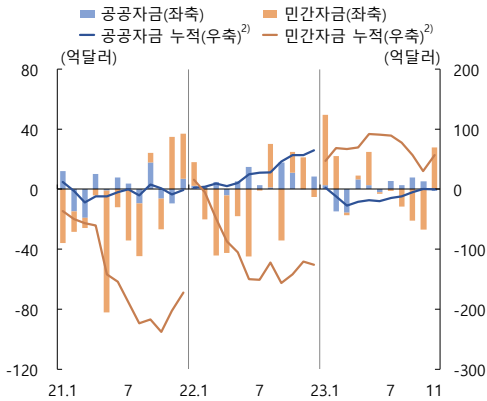
그림 IV-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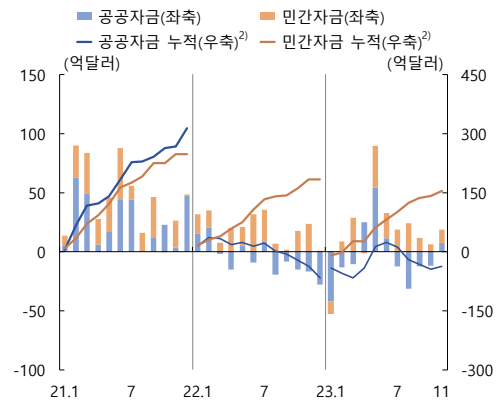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주식자금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sup>3)</sup>하는 민간자금이 순유입을 주도하였으며 공공자금의 유출입은 제한적이었다(그림 IV-2). 한편 금년중 주식자금 유출입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상반기중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하 'SVB') 및 크레딧 스위스(이하 'CS') 사태 등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 일부 완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순유입되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미 연준의 통화긴축기조 장기화 우려가 증대되고,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며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된 데다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도가 이어지면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지속,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 일부 완화 등으로 주식자금이 순유입 전환되었다.

1) 주식은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IPO)를 포함하며(단, ETF·ELW·ETN 등 제외), 채권은 상장채권의 장내·외거래 기준(PP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이다.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특징 및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3) 2023년 11월말 현재 외국인 주식자금 중 민간자금의 비중은 86.3%이다.

그림 IV-2.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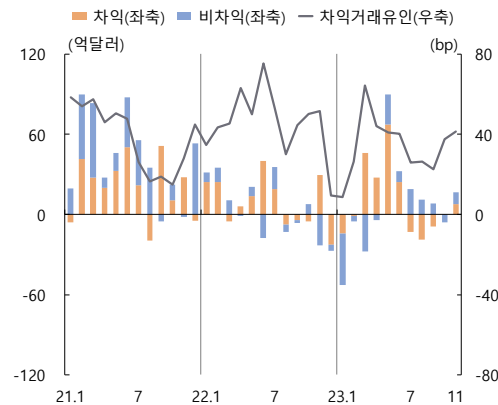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3.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sup>1)</sup>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연도별 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투자여력이 약화되면서 유입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되었다(그림 IV-3). 월별로는 차익거래유인의 변동에 주로 영향받아 유출입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채권자금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금년초에는 차익거래유인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채권자금이 순유출되었다. 3월 이후에는 SVB·CS 사태 등으로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고 차익거래유인도 확대되면서 채권자금이 순유입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고, 국내 외화자금사정도 개선되면서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되고 채권자금 순유입도 약화되었다(그림 IV-4).

그림 IV-4. 차익거래자금 유출입



주: 1) 내외금리차(3개월 통안증권금리 - 3M Term SOFR금리) - 3개월 스왑레이트, 월중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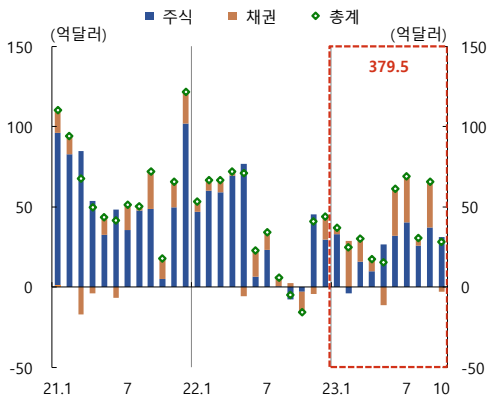
2023년 11월말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은 652조원으로 시가총액의 28.4%<sup>4)</sup>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말(28.0%)보다 0.4%포인트 상승하였다. 한편 외국인 채권투자 잔액은 244조원으로 전체 상장채권 잔액의 9.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말(9.7%)보다 0.1%포인트 상승하였다.

4) 외국인 주식투자 잔액 중 ETF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잔액 기준이다.

###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폭 소폭 확대

거주자 해외증권 순투자자는 2023년 1~10월 중 379.5억달러(주식 247.3억달러, 채권 132.2억달러)로 전년동기(총 371.9억달러; 주식 331.3억달러, 채권 40.5억달러)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IV-5). 이는 주식 순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업(개인 등) 및 기타금융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채권 순투자자가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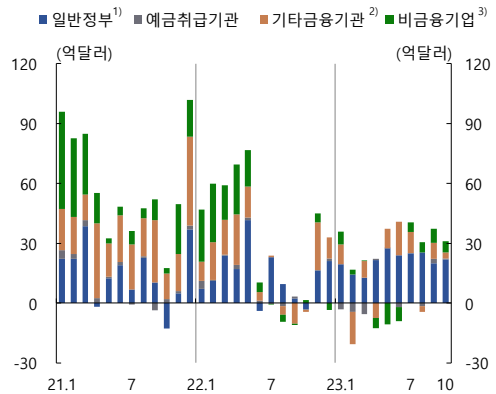
그림 IV-5.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sup>1)</sup>



주: 1) '+' 는 순투자, '-' 는 순회수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주식의 경우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환손실 가능성 등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유인이 하락하면서 비금융기업(개인 등) 및 기타금융기관(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둔화되었다(그림 IV-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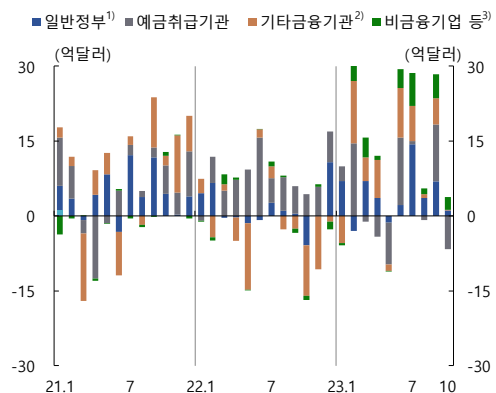
그림 IV-6.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3) 개인투자자 포함  
 자료: 한국은행

채권의 경우 비금융기업(개인 등)이 미 채권금리 하락 기대에 따른 자본이득(비차익거래)을 목적으로 순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타금융기관(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수익증권(주식) 투자는 축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졸채권 투자를 확대하였다(그림 IV-7).

그림 IV-7.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주: 1)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2)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3) 개인투자자 포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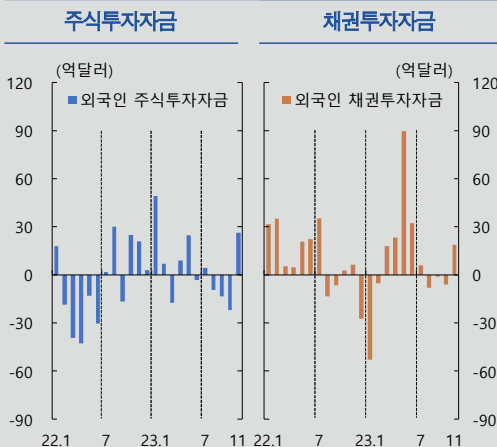
향후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주요국 금리 하락 기대 지속, 연기금의 해외 투자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순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글로벌 경기 및 물가 전망 변화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참고 5.

###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특징 및 평가<sup>1)</sup>

금년 들어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년 2/4분기중 큰 폭 순유입되었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8월 이후 10월까지 3개월 연속 순유출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sup>2)</sup> 특히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된 기간에는 주식과 채권 투자자금이 모두 순유출된 점도 이러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출의 특징을 과거 주식과 채권 투자자금이 모두 3개월 이상 연속 순유출된 시기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sup>3)</sup>



주: 1) 양(+)의 값은 순유입, 음(-)의 값은 순유출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출 배경

2023년 8-10월중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은 대내외 투자여건이 모두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순유출되었다. 대외요인의 경우 금년 하반기 들어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등으로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증대되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10월 들어서는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분쟁 등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었다.

아울러 대내요인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고평가 시각이 부각되면서 차익실현 매도세가 크게 증대되었다. 2차전지 업종은 금년 들어 전기차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로 주가가 큰 폭 상승<sup>3)</sup>하였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 들어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익실현 매도를 보였다.

채권시장에서는 미 달러화 강세<sup>4)</sup>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채권 투자자금에서 비중이 큰 공공부문은 외환보유액 등을 운용하고 있어 미 달러화 강세는 외환보유액 축소를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제한한다. 금년 하반기중 국내 외화자금 수요가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거주자 해외자산의 평가액이 감소하면서 축소된 반면, 외화자금 공급은 역외 투자자의 NDF 매입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외화자금시정이 개선되었다. 외화자금시정 개선으로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됨에 따라 차익거래 주체의 자금 유입도 둔화되었다.

1) 본고는 윤승완·정성우(자본이동분석팀)가 작성, 신재혁(외환분석부장)·유재현(자본이동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다만 11월 들어서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우려 완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지속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되었다.  
3) 일부 2차전지 업종 관련 ETF는 2023년 1-7월중 주가가 약 100% 내외 상승하였다.

## 과거 순유출 지속기와 비교

과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3개월 이상 순유출을 지속한 경우는 다수 있었다.<sup>5)</sup> 하지만 주식과 채권투자자금이 모두 3개월 이상 연속 순유출된 사례는 최근 순유출기를 포함하여 4차례(① 08년 9~11월, ② 15년 6~9월, ③ 15년 12월~16년 2월, ④ 23년 8~10월)에 불과하다. 특히 과거 순유출기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신흥국 금융불안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기간이다.

그러나 최근 순유출기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sup>6)</sup> 증권투자자금 순유출 규모와 강도, 구성 등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

### 순유출 규모와 강도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

최근 순유출기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총 59.1억달러로 과거 3차례 순유출기 평균 126.1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순유출 규모도 최근 순유출기는 19.7억달러로, 과거 순유출기에 비해 작았다. 각 투자자금별 순유출 규모도 채권은 14.7억달러로 과거 평균(55.5억달러)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주식도 44.5억달러로 과거 평균(70.6억달러)보다 작았다. 순유출 강도(외국인 보유 국내증권 잔액 대비 순유출 규모)도 주식과 채권자금 모두 0.8%로 과거 순유출기에 비해 매우 약했다.

### 증권투자자금 순유출 지속기<sup>1)2)</sup>중 증권자금 순유출 규모

(단위 : 억달러, %)

	기간중 합계	월평균 순유출	강도 <sup>3)</sup>
① 08년 9~11월(3)	172.4	57.5	6.8
② 15년 6~9월(4)	104.7	26.2	2.1
③ 15년 12월~16년 2월(3)	101.1	33.7	2.2
④ 23년 8~10월(3)	59.1	19.7	0.8

주: 1) 주식과 채권 모두 3개월 이상 연속 순유출 기준

2) 괄호 안은 연속 순유출 개월수

3) 순유출 직전월 외국인 증권보유 잔액 대비 순유출 규모

자료: 한국은행

### 증권투자자금 순유출 지속기<sup>1)2)</sup>중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순유출 규모

(단위 : 억달러, %)

	주식		채권	
	규모	잔액대비 <sup>3)</sup>	규모	잔액대비 <sup>3)</sup>
① 08년 9~11월(3)	86.3	4.2	86.2	18.1
② 15년 6~9월(4)	68.8	1.7	35.9	3.8
③ 15년 12월~16년 2월(3)	56.7	1.6	44.4	5.0
④ 23년 8~10월(3)	44.5	0.8	14.7	0.8

주: 1) 주식과 채권 모두 3개월 이상 연속 순유출 기준

2) 괄호 안은 연속 순유출 개월수

3) 전월말 잔액 대비 기간중 순유출 규모

자료: 한국은행

4) 2023년 8~10월중 미 달러화 지수는 4.7% 상승하였다.

5) 2007년 이후 외국인 증권자금이 3개월 이상 연속 순유출된 경우는 총 9회이며, 2008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7개월 연속 순유출되었다.

6)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순유출 지속기중 VIX 평균 : ① 51.3, ② 18.0, ③ 21.3, ④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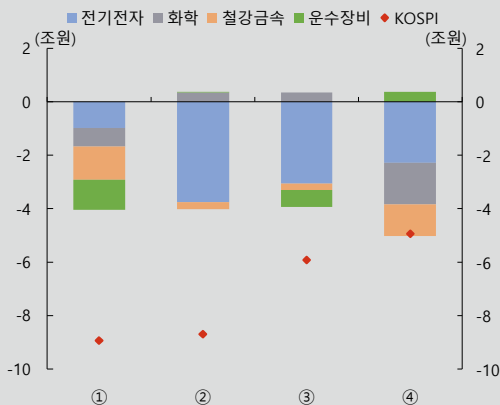
### 과거와 달리 일부 부문에서만 자금이 순유출

순유출 자금의 구성을 보면 이번 경우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가 채권투자자금의 순유출을 상회하였다.

각 투자자금별 상세구성은 과거와는 상이하였다. 특히, 주식투자자금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철강 등 주요 업종에서의 순유출 비중이 컸으며, 채권투자자금 중 단기자금은 순유출된 반면 장기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주식투자자금의 경우 최근 순유출기중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철강 등 주요 업종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 비중이 약 94%(코스피 기준) 수준이다. 즉, 주요 업종을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의 순매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과거 순유출기에는 동 비중이 40~60%에 그쳐 여타 업종에서도 상당 규모의 순매도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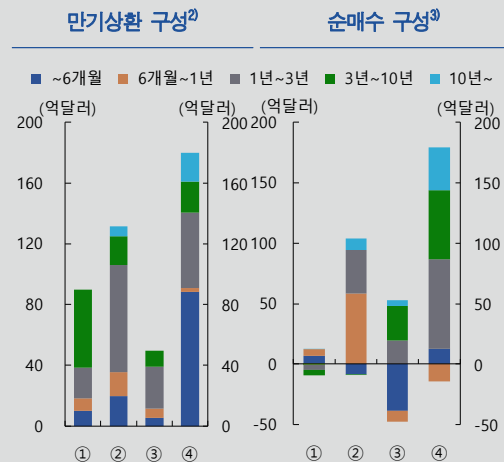
#### 업종별 외국인 주식<sup>1)</sup> 순매수<sup>2)</sup>



주: 1) KOSPI 기준  
 2) 양(+)의 값은 순매수, 음(-)의 값은 순매도를 의미  
 3) ① 2008년 9-11월중, ② 2015년 6-9월중, ③ 2015년 12월-2016년 3월중, ④ 2023년 8월-10월중  
 자료: 연합인포맥스

채권투자자금의 경우 최근과 과거 순유출기 모두 순매수보다 만기상환 규모가 컸다. 이는 만기도래자금의 재투자가 부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기상환자금을 발행만기별로 구분해보면, 과거 순유출기에는 대체로 중장기 채권의 만기상환이 많았지만, 금년에는 금년 상반기중 발행된 단기채권의 만기상환이 컸다. 즉, SVB·CS 사태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었던 2023년 상반기중 유입된 단기채권 투자자금의 만기상환이 컸다.<sup>7)</sup> 한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출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채권을 만기별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초장기채권<sup>8)</sup>(잔존만기 10년 이상)뿐만 아니라 장기채권(잔존만기 3~10년) 투자자금의 순유입이 컸다.

#### 외국인 투자채권 만기상환 구성 및 채권 순매수<sup>1)</sup>



주: 1) ① 2008년 9-11월중, ② 2015년 6-9월중, ③ 2015년 12월-2016년 3월중, ④ 2023년 8월-10월중  
 2) 발행만기 기준  
 3) 매매시점 잔존만기 기준, 양(+)의 값은 순매수, 음(-)의 값은 순매도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7) 이는 양호한 외화자금시장 등으로 만기도래자금의 재투자가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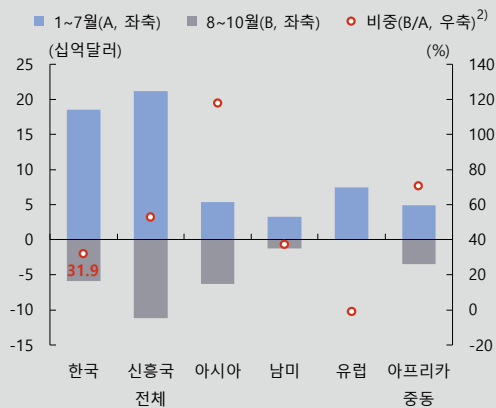
8) 일반적으로 국내 보험회사에 본드포워드를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동 포지션 헤지를 위해 장기국채를 매입하고, CRS Pay 거래를 통해 환율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헤지한다.

## 여타 아시아 신흥국과의 비교

### 여타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순유출 강도가 제한적

8월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순유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금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여타 신흥국에서도 대체로 상반기중 순유입되다가 하반기 들어 순유출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상반기중 순유입 규모가 제한적이고 하반기중 순유출 규모도 컸다.<sup>9)</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순유출 비중(2023년 1~7월중 순유입 대비 8~10월중 순유출 기준)이 31.9%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 낮아 여타 신흥국보다 순유출 강도가 제한적이었다.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sup>1)</sup>



주: 1) 양(+)의 값은 순유입, 음(-)의 값은 순유출을 의미  
 2) 2023년 1~7월중 순유입 규모 대비 8~10월중 순유출 규모  
 자료: 한국은행, IMF

## 평가 및 시사점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sup>10)</sup>된 가운데 주식은 상반기중 2차전지 업종 주가 급등으로 외국인 주식자금의 차익 실현이 증가하고, 채권은 국내 외화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상반기중 유입된 차익거래자금의 만기상환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 규모 및 강도가 과거 순유출기 및 여타 신흥국에 비해 제한적이고 순유출 자금도 일부 부문에 한정되었다. 특히,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경우 과거와 달리 장기채권 투자자금은 순유입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들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상당폭 유입되면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당분간 순유입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1월 들어 그동안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약화된 데다 중동분쟁의 확산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투자심리가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다.<sup>11)</sup> 아울러 경상수지 및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점도 향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 아시아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세가 약했던 것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부진한 모습을 지속(2023년 1~7월중 -310.3억달러 → 8~10월중 -422.7억달러)한 데 주로 기인한다.  
 10) 금번 순유출기중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과거 순유출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11) 주식투자자금의 경우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11.5일) 이후 큰 폭 순유입되는 등 동 조치도 11월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 복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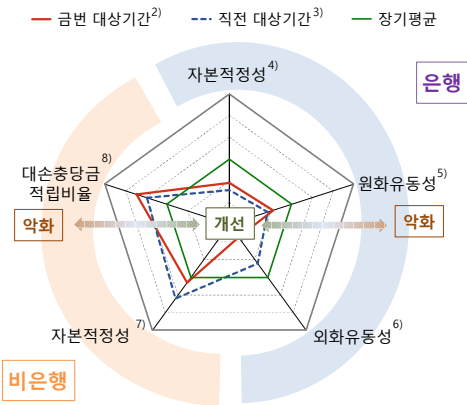
I. 금융기관	68
II. 대외지급능력	80
III. 금융시장인프라	83

## I. 금융기관

일반은행<sup>1)</sup>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과 손실흡수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손준비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도 모든 은행에서 감독기준을 상회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업권에서 고정이하여신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자본적정성은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I-1).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sup>1)</sup>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3/4분기말(원화 및 외화유동성은 23년 10월말, 비은행 중 보험회사의 자본비율은 23년 2/4분기말)  
3) 2023년 1/4분기말 4)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6) 외화 LCR  
7)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8) 비은행 업권별(증권회사 제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총자산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자료: 한국은행 시산

##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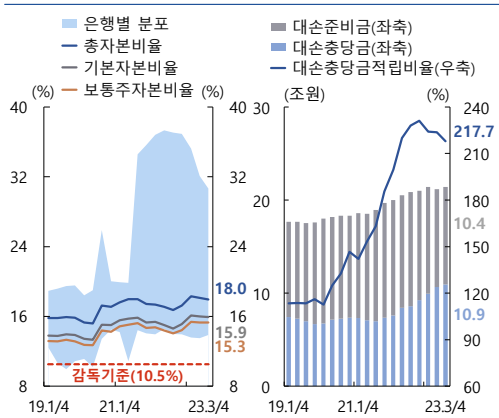
### 손실흡수능력 양호한 수준 유지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각각 18.0%, 15.3%로 금년 1/4분기말(18.3%, 15.4%)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당기순이익이 늘어 자본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로 위험기중자산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10.5%, D-SIB<sup>2)</sup> 11.5%)을 크게 상회하였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23년 3/4분기말 217.7%로 금년 1/4분기말(224.3%) 대비 6.6%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규모(+1.0조원)가 늘어났으나 일부 은행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도 증가(+0.6조원)했기 때문이다. 손실흡수력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규정상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은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sup>3)</sup> 등으로 2023년 3/4분기 10.4조원으로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 그림 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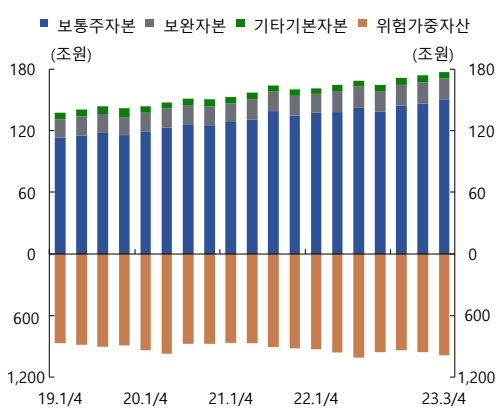
1) 금융안정보고서의 은행부문은 일반은행(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영업모델이 상이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및 수협 은행)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 2023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는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며, 2024년에도 동일하다.

그림 I-2. 일반은행<sup>1)</sup>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sup>2)</sup>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sup>2)</sup>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바젤 I 적용)  
 2) 기말 기준  
 3) 2023년 규제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4)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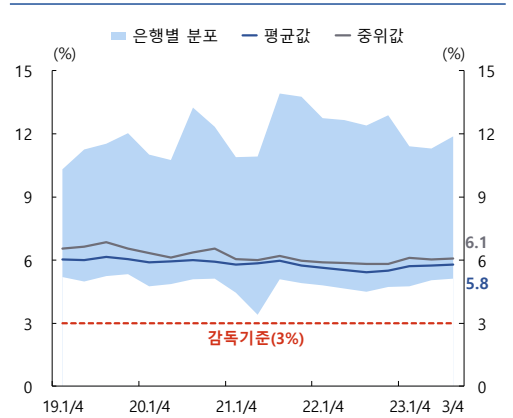
그림 I-3. 일반은행<sup>1)</sup>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sup>2)</sup>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바젤 I 적용)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sup>4)</sup>은 2023년 3/4분기말 5.8%로 금년 1/4분기말(5.7%)과 유사한 가운데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3%)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자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소폭 낮아졌다(그림 I-4).

그림 I-4. 일반은행<sup>1)</sup> 레버리지비율<sup>2)</sup>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레버리지비율 규제 미적용)  
 2)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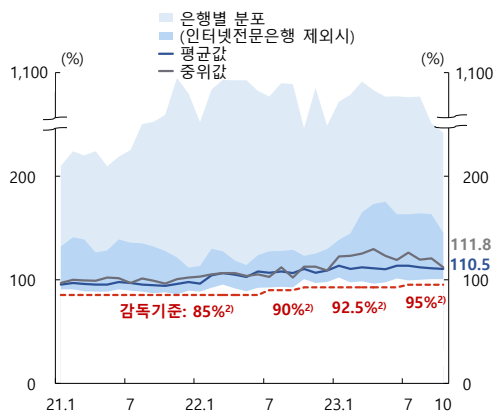
3) 대손준비금은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준비금에 더해 감독규정상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로, 금융감독 당국은 2023년 1월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11월 동 제도를 감독규정화 하였다. 현행 기업여신의 경우 최저적립률은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 의문 50%, 추정손실 100%를 적용하고 있다.

4)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일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sup>5)</sup>(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3년 10월중 110.5%로 금년 3월(112.2%) 대비 1.7%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하반기중 만기도래 예수금이 증가<sup>6)</sup>함에 따라 순현금유출액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에서 규제 완화 전 감독기준(100%)을 상회하고 있다<sup>7)</sup>(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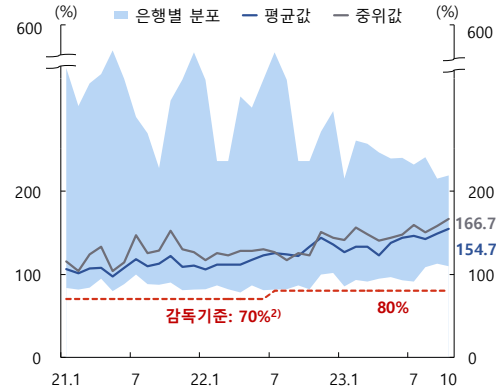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sup>1)</sup>



주: 1) 고유동성자산(월 평균)/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85%, 7-9월 90%, 10월-2023년 6월 92.5%, 2023년 7월-2024년 6월중 95%를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유동성 충격에 대한 은행의 대응여력을 나타내는 외화 LCR<sup>8)</sup>은 2023년 10월중 154.7%로 2023년 3월(133.3%) 대비 21.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80%)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sup>1)</sup>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월 평균)/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2)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sup>9)</sup>(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3년 3/4분기말 114.5%로 개별 은행 모두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표 I-1. 일반은행<sup>1)</sup> NSFR<sup>2)</sup>

	2021년			2022년			2023년		
	4/4	1/4	2/4	3/4	4/4	1/4	2/4	3/4	
평균	111.2	108.9	108.2	108.2	111.9	112.2	114.6	114.5	
중위값	109.2	107.7	107.7	106.6	109.7	108.6	111.6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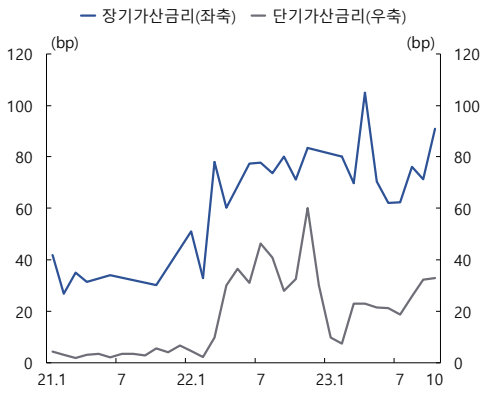
주: 1) 토스뱅크 제외(2023년말까지 NSFR규제 미적용)  
 2)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3)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5)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으로 계산되며 분자인 고유동성자산은 월중 평균 기준이다.
- 6) 일반은행 원화예수금 만기도래액은 2023년 2/4분기 165.7조원에서 4/4분기 265.9조원으로 약 100조원 증가하였다.
- 7)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감독기준은 95%로 적용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등 규제비율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최종적인 정상화 여부는 내년 2/4분기중 결정하기로 하였다.
- 8) 외화 LCR은 바젤III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도 도입되었다(규제기준 월 평균 80%).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 9)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 대외 외화조달 여건 대체로 양호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은행의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SVB·CS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2023년 4월중 상승하였으나 미 연준 등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한편 금년 하반기 들어 은행의 장기 및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모두 상승하였으나 이는 외화조달 여건의 악화보다는 주로 은행의 차입만기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과거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I-7).

그림 I-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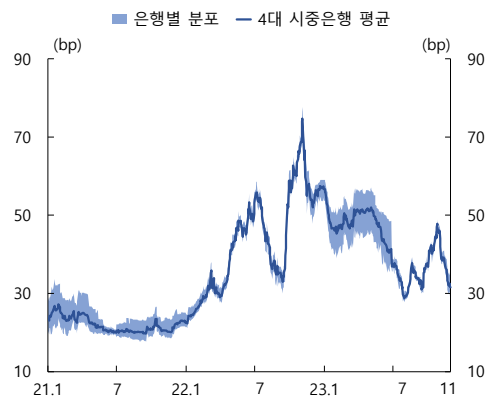
주: 1) 2022년 3월 이전은 LIBOR 기준 가산금리, 2022년 4월 이후는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 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도 2023년 1/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10월중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일반은행<sup>1)</sup> CDS 프리미엄<sup>2)</sup>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 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 2. 비은행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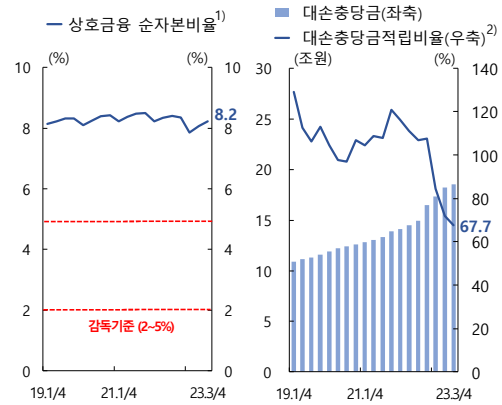
### 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일부 손실흡수력 지표의 하락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sup>9)</sup>은 2023년 3/4분기말 8.2%로 금년 1/4분기말(7.8%) 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고정이하여신이 큰 폭 증가하면서 2023년 3/4분기 67.7%로 금년 1/4분기말(84.6%) 대비 16.9%포인트 하락하였다<sup>10)</sup>(그림 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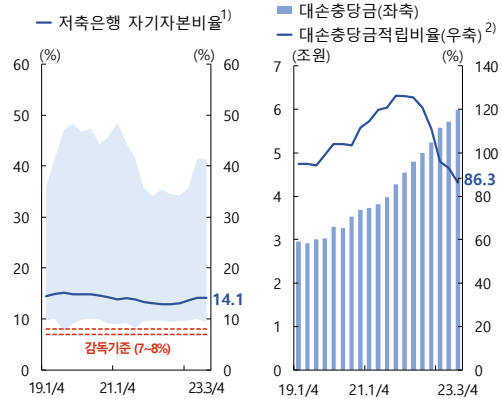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14.1%로 금년 1/4분기말(13.6%) 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자본이 약화되었으나 대출 감소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다.<sup>11)</sup> 저축은행별로 보면 모든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7~8%)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규제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23년 3/4분기말 86.3%로 금년 1/4분기말(95.9%) 대비 9.6%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증가규모(+1.1조원)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0.4조원)을 크게 상회하였기 때문이다<sup>12)</sup>(그림 I-10).

그림 I-9. 상호금융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농협 5%, 수협·신협·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10. 저축은행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음영은 개별 저축은행 분포  
2)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9) 순자본비율 =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 / (총자산 + 대손충당금) × 100, 단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에 한한다.

10)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규제비율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대출채권 등)에 대한 적립기준(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며, 2023년 3/4분기 123.3%(새마을금고 제외)로 감독기준(100%)을 상회하고 있다.

11) 저축은행은 2023년 1/4분기-3/4분기중 누적 순손실(-0.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 규모는 2023년 3/4분기 114.1조원으로 금년 1/4분기(117.5조원) 대비 3.0% 줄어들었다.

12)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비율인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2023년 3/4분기 110.2%로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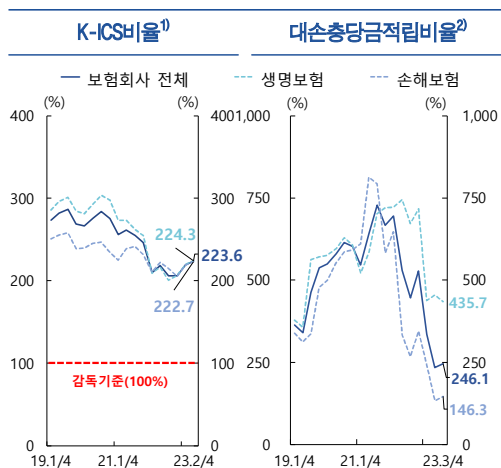
## 2-2. 보험,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 손실흡수력 업권별로 상이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급여력비율인 K-ICS비율<sup>13)</sup>(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은 2023년 2/4분기말 223.6%<sup>14)</sup>로 2022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고정이하여 신규모가 증가<sup>15)</sup>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다 2023년 3/4분기말 246.1%(생명보험사 435.7%, 손해보험사 146.3%)로 전분기말(234.9%)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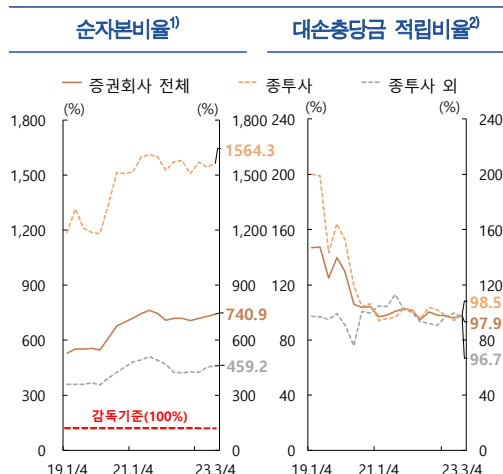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740.9%로 종투사(1,564.3%)와 종투사 외 증권회사(459.2%) 모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97.9%로서 2020년 하반기 이후 종투사와 여타 증권회사 모두 대체로 100% 내외를 유지하였다(그림 I-12).

그림 I-11. 보험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2022년말까지는 ABC비율, 2023년부터는 K-ICS비율 기준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12. 증권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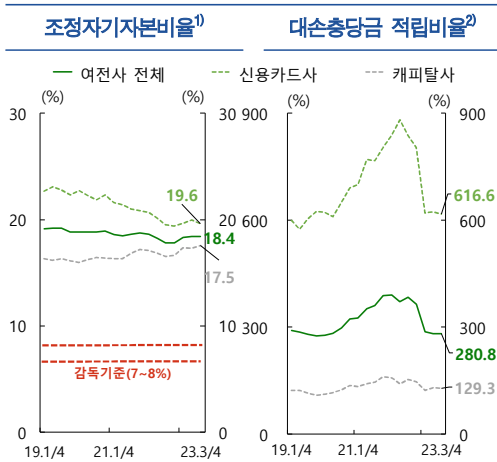


주: 1)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자산(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3)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신뢰계제도(IFRS17 및 IFRS9)가 도입되면서 기존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Based Capital) 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었다. K-ICS 하에서는 자산·부채 시가평가를 통한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 산정시 신규 리스크(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추가, 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조정(99% → 99.5%),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위험계수 방식 → 충격시나리오 방식) 등 자본비율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최대 10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현재 19개 보험회사(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다.  
 14)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자본적정성 관련 공식 기한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종료후 3개월(연결산의 경우 4개월)로 1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수치는 2023년 6월말 기준이다.  
 15) 손해보험사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1년 2/4분기말 911억원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3년 2/4분기말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3/4분기말 5,599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18.4%로 전분기말 수준을 지속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 3/4분기말 280.8%를 기록하였다. 이는 금년초 발생한 제도변경<sup>16)</sup>의 영향이 소멸된 데다, 2022년 3/4분기 이후 지속된 신용카드사 고정이하여신의 빠른 증가세가 둔화<sup>17)</sup>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그림 I-13).

그림 I-13. 여신전문금융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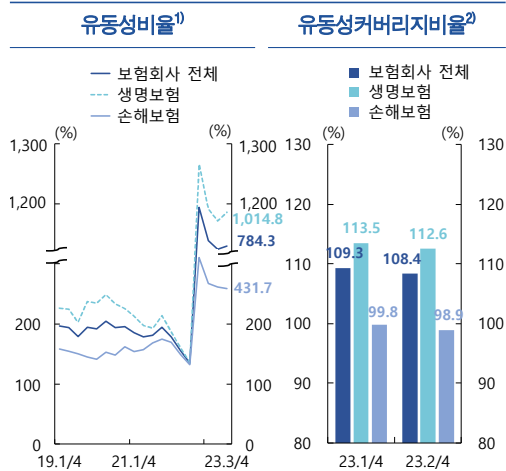


주: 1)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2)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보험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지급보험금 증가<sup>18)</sup>로 인해 2022년 3/4분기말 134.2%까지 하락하였다가, 감독당국의 유동성 자산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sup>19)</sup> 등으로 4/4분기 이후 큰 폭 상승하였다.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유동성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규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sup>20)</sup>은 2/4분기말 기준 108.4%로 전분기말(109.3%)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14).

그림 I-14. 보험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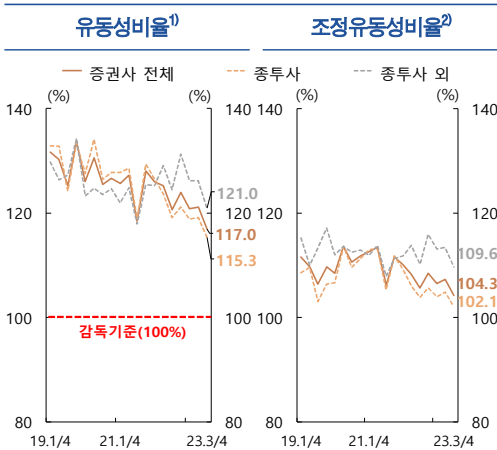


주: 1) 유동성자산/평균 3개월 지급 보험금  
 2) 스트레스 상황시 가용유동성/조달필요금액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16)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 산정시 적용되는 신용판매, 카드대출의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50% → 40%)됨에 따라, 2023년 1/4분기중 감독규정 기준 총당금 필요 적립 규모가 감소하였다.
- 17) 신용카드회사의 고정이하여신의 규모는 2022년 3/4분기말 1조 2,501억원(전분기 대비 7.9%), 4/4분기말 1조 3,764억원(10.1%), 2023년 1/4분기말 1조 6,926억원(23.0%)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가 2/4분기말 1조 7,200억원(1.6%), 3/4분기말 1조 7,899억원(4.1%)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18) 2022년 들어 예금취급기관의 예금금리 상승 등으로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2022년 3/4분기 이후 2013년 중 대규모로 판매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10년납 비과세) 해지가 급증하면서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 19) 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2022년 12월)으로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만기 3개월 이하 자산 → 만기 3개월 이하 자산 및 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하여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하였다.
- 20) 감독당국은 기존 유동성비율의 단점(지급보험금만으로 필요 유동성을 산출하고 유동성자산의 현금화 가능 정도를 고려하지 않음)을 보완하기 위해 자산별 유동화(현금화) 가능 정도 및 지급보험금 이외 부채에 대해서도 필요 유동성 정도를 반영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신규 도입하였다.

증권회사의 유동성비율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한 조달 규모 증가<sup>21)</sup>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sup>22)</sup> 되면서 2023년 3/4분기말 117.0%까지 하락하였다. 우발부채인 채무보증<sup>23)</sup>까지 고려한 조정유동성비율의 경우 이보다 12.7%포인트 낮은 104.3%를 기록하였다(그림 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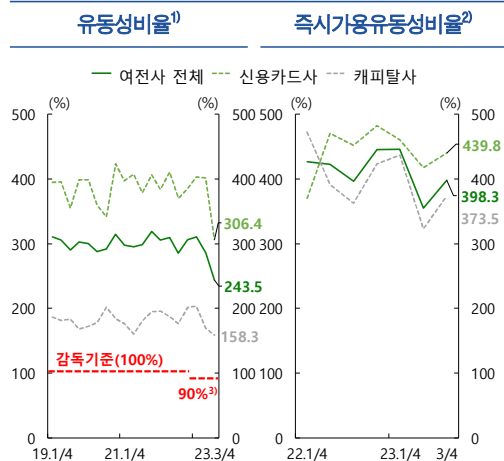
그림 I-15. 증권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  
2) 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자산/(잔존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부채+채무보증)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기준 243.5%로 금년 들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기업어음(CP) 규모 증가<sup>24)</sup>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모습이다. 그러나 1개월내 유동성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sup>25)</sup>의 경우 398.3%로 유동성비율을 상당폭 상회하면서 전분기말(354.7%) 대비 증가하였다(그림 I-16).

그림 I-16.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주: 1)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2) 즉시가용유동성자산/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  
3) 2022년 12월~2024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본비율은 모든 업권이 규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경우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진 보험회사와 여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인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보다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력 제고가 요구된다. 유동성 대응능력의 경우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sup>26)</sup>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는 한편 자금조달 만기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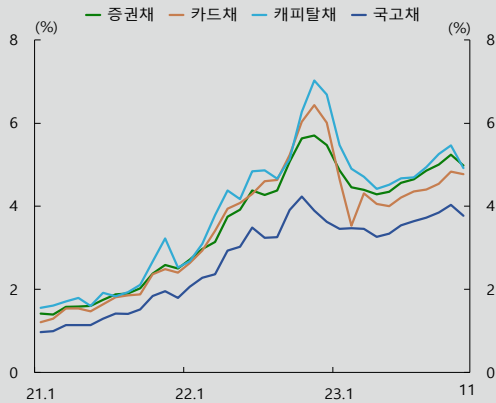
21) 증권회사의 RP(CMA 제외) 등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23년 3/4분기말 61.3조원으로 2021년말 55.7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22) 2021년 3/4분기말 유동성비율이 큰 폭 하락한 것은 2020년말 대규모 발행된 1년 만기 ELS가 해당 분기중 만기 도래가 가까워지면서 유동성부채로 분류된데 주로 기인한다.  
23) 2023년 3/4분기말 증권회사의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40.0조원이다.  
24) 여전사가 2021~22년중 발행을 확대한 만기 1년 이상 CP의 만기 도래가 가까워지면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CP 규모는 2023년 1/4분기말 2.9조원에서 3/4분기말 7.7조원까지 증가하였다.  
25) 감독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를 확대·개편(20년 2월)하면서 2022년부터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도입하였다.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은 즉시가용유동성자산(현금 및 예치금,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합도 합계)을 1개월 이내 만기도래 부채로 나누어 계산한다.  
26)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 6.

###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sup>1)</sup>

하반기 들어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가 상승하는 가운데 은행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시장성차입이 주요 자금조달 경로<sup>2)</sup>인 증권회사와 여전사(여전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sup>3)</sup> 이하에서는 최근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과 함께 부동산PF 관련 리스크가 자금조달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증권회사·여전사 채권 금리 상승 추이<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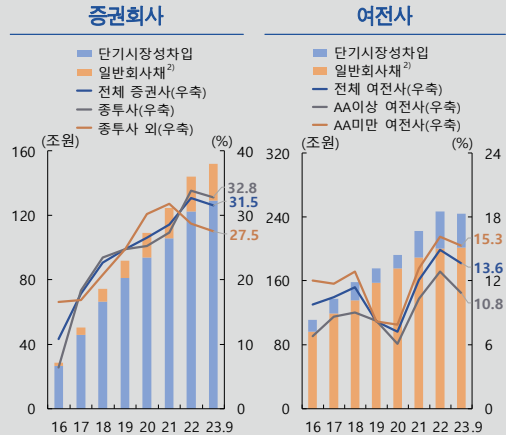
주: 1) 3년물 기준  
 2) 여전사는 발행액 가중평균 금리, 증권채는 회사별 유통금리의 산술평균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국은행 시사

### 단기시장성차입 의존도 증가

2023년 3/4분기말 증권회사 및 여전사의 차입부채 대비 단기시장성차입(CP, 단기사채, RP 등) 비중은 각각 31.5%, 13.6%로 2020년말 대비 증권회사와 여전사<sup>4)</sup>가 각각 5.0%포인트, 6.4%포인트 상승하였다.

증권회사 규모별로는 대형사인 종합금융투자회사(이하 '중투사')가 발행어음 등을 확대<sup>5)</sup>함에 따라 단기시장성차입 비중이 2022년부터 중소형사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여전사의 경우 대체로 자산 규모가 작은 신용등급 중·하위(AA 미만) 그룹의 단기시장성차입 의존도가 상위 그룹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자금조달 만기구조의 취약성에 더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다.<sup>6)</sup>

#### 시장성차입 규모 및 단기시장성차입 비중<sup>1)</sup>



주: 1) 막대는 시장성차입 규모, 선은 단기시장성차입 비중을 의미  
 2) 무보증후순위채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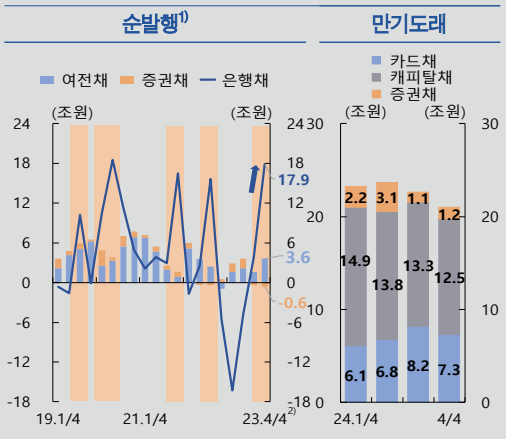
1) 본고는 송수혁·남승희·나성오(비은행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신준영(비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2) 2023년 9월말 기준 차입부채 대비 시장성자금 비중은 증권회사가 37.1%(CMA형 제외한 RP 13.3%, 발행어음 8.4%, CP 6.6%, 회사채 5.6%, 단기사채 1.6%, 콜머니 1.7%)이며, 여전사는 78.2%(회사채 64.6%, CP 12.6%, 단기사채 0.8%, RP 0.3%)이다(회사채는 후순위채 제외).  
 3) 국고채(3년물) 대비 증권·여전채 금리 스프레드는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2023년 4/4분기중(10-11월) 평균 스프레드의 2023년 2/4분기 대비 상승폭은 카드채(0.19%포인트), 증권채(0.19%포인트), 캐피탈채(0.14%포인트) 순이다.  
 4) 여전사의 경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한 2018-2020년중에는 단기시장성차입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이후 장기금리 상승 기대에 따른 시장의 회사채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여 2021-2022년중 만기 1년 이상을 중심으로 CP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5) 중투사의 발행어음 규모는 2023년 3/4분기말 기준 34.4조원으로 2020년말(15.6조원) 대비 121.0% 증가하였다.  
 6) 여전사의 만기 1년 이상 CP 발행 규모는 금년 들어 크게 감소한 반면 만기도래 규모는 4/4분기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CP의 만기 구조도 점차 단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은행채 발행 확대의 영향

금년 4/4분기중(10~11월) 은행채 순발행 규모는 17.9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 대비 큰 폭 증가(+14.0조원)하였다. 반면 증권채는 순상환(0.6조원)되었으며, 여전채 순발행 규모는 3.6조원(2)으로 전분기 대비 2.0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간 대체로 은행채 순발행 증가시 증권·여전채의 순발행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8)을 나타내었다.

2024년 상반기중 증권·여전채의 만기 도래 규모는 총 46.9조원(9)으로 금년 하반기 대비 증가(+3.6조원)하였으나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가 큰 폭 감소(10)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회사 및 여전사의 채권 차환에 따른 애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이 예·적금 대신 은행채 발행(11)을 통해 신규자금 조달을 확대할 경우 증권·여전채에 대한 수요가 일부 구축되고 발행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 은행채·여전채·증권채 순발행 및 만기도래 규모



주: 1) 음영은 은행채 발행 확대 시기 2) 2023년 10~11월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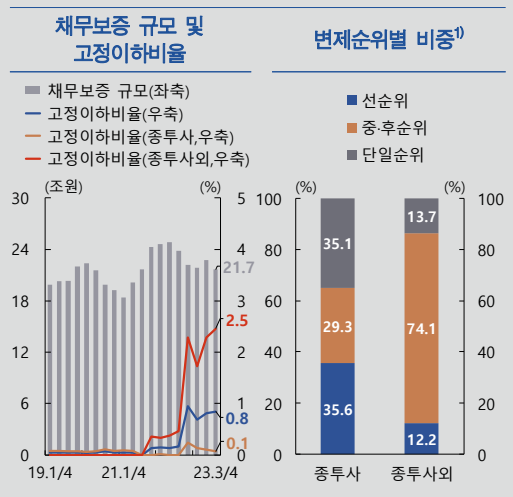
###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의 영향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12)하여 건전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부동산PF 익스포저의 건전성 저하는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현실화 및 여전사의 신용스프레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증권회사 : 부동산PF 채무보증 현실화 가능성

증권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13) 규모는 2023년 3/4분기말 21.7조원으로 2022년말(22.2조원)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정이하 비율이 상승한 모습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채무보증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중·후순위 비중(74.1%)이 높아 보증이행을 위한 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 증권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 및 변제순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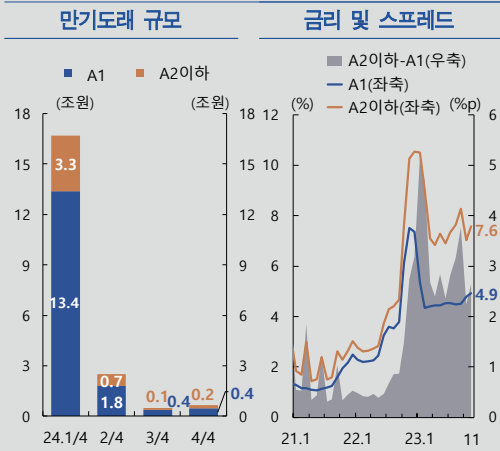


주: 1) 2023년 9월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7) 10월중에는 순상환(-4,870억원)되었으나 11월 들어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여전사 중심으로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순발행(+4.1조원)으로 전환되었다.  
 8) 2018년 1/4분기-2023년 3/4분기중 은행채와 증권·여전채의 순발행 증감 규모(전분기 대비)간 상관계수는 -0.35이다.  
 9) 업권별로는 캐피탈사 28.7조원(2023년 9월말 채권잔액 대비 22.4%), 신용카드사 12.9조원(16.3%), 증권회사 5.3조원(23.3%) 순이다.  
 10) 은행채 만기 도래 규모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111.9조원을 정점으로 하반기부터 감소 전환(108.2조원)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81.1조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금융위원회는 기존 은행채 발행한도 제한(월별 만기도래 물량의 100%)을 2023년 3월부터 점차 완화하여 2023년 10월부터는 한도를 폐지하였다.  
 12) 2023년 3/4분기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증권회사 13.9%, 여전사 4.4%로 2022년말(증권회사 10.4%, 여전사 2.2%) 대비 높은 수준이다.  
 13)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신용공여(19.7조원)가 증권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의 대부분(91.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부동산PF 관련 주요 채무보증 대상인 PF-ABCP는 2024년중 만기 도래 금액(20.3조원, 2023년 11월말 기준)의 82.0%인 16.7조원이 1/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중 신용등급이 낮은 A2이하(3.3조원) PF-ABCP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sup>14)</sup>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등급별 PF-ABCP 만기도래 규모<sup>12)</sup> 및 PF-ABCP금리<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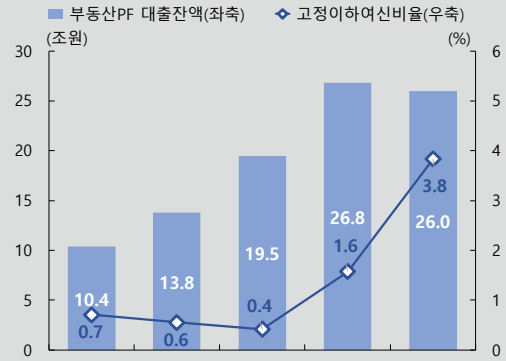


주: 1)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기준 2) 2023년 11월말 기준  
3) 3개월물 기준 가중평균  
자료: 연합인포맥스

여전사 : 신용스프레드 상승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2023년 3/4분기말 기준 26.0조원)은 2023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캐피탈사<sup>15)</sup> 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여전사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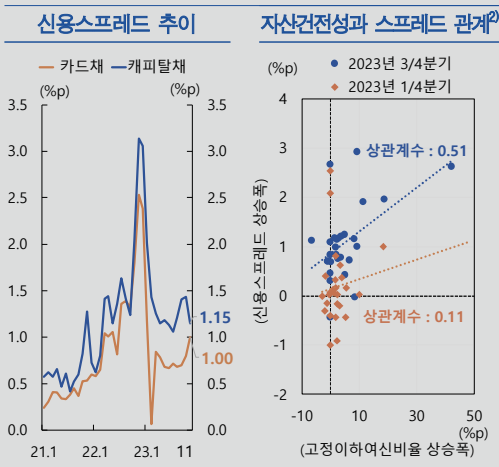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캐피탈채와 카드채간 국고채 대비 신용스프레드의 격차는 2023년 11월 들어 축소되었으나 금년중 상당폭 확대<sup>16)</sup>된 상태가 유지되었다. 증권회사와 달리 캐피탈사는 채무보증 현실화 리스크보다는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 저하 우려가 캐피탈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캐피탈채의 신용스프레드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 캐피탈사 부동산PF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와 캐피탈채 신용스프레드 변화(전년동기대비)간 상관관계가 2023년 1/4분기말 0.11에서 3/4분기말 0.51로 큰 폭 상승하면서 부동산PF 대출의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여전채 신용스프레드 상승폭의 민감도가 확대되었다.<sup>17)</sup> 이는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 제고가 지연될수록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기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4) 2023년 11월말 기준 신용등급 A1과 A2이하 PF-ABCP간 신용스프레드는 2.65%포인트로서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 이전(2022년 9월말 기준 0.87%포인트)에 비해 상당폭 확대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15) 2023년 3/4분기말 기준 캐피탈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4.0조원(신용카드사 1.9조원)으로 여전사 대출잔액의 92.5%를 차지한다.  
16) 2023년 11월말 기준 캐피탈채와 카드채의 국고채 대비 신용스프레드의 격차는 전월대비 축소(0.64%포인트 → 0.14%포인트)되었으나 금년중(1~11월) 평균 0.57%포인트 격차를 나타내면서 이전(2018 ~ 2022년, 0.16%포인트)에 비해 큰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17) 신용카드사는 캐피탈사와 달리 자산건전성 저하 정도와 신용스프레드 상승간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2022년 3/4분기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의 신용스프레드<sup>1)</sup>와 부동산PF 대출 자산건전성



주: 1) 회사채 조달금리 - 국고채 3년물 기준  
 2) 전년동기대비 변화폭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

낮은<sup>19)</sup> 일부 증권회사와 여전사들은 자금조달 여건 변화에 유의하면서 유동성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sup>20)</sup>해야 할 것이다.

이올러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부동산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PF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PF대주단협약<sup>21)</sup>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신용경계감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자금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평가 및 시사점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sup>18)</sup>으로 평가된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 확대되거나 높은 시장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도가 높지 않은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경우 단기시장성차입 차환리스크에 한층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의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증권회사는 부동산PF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유동성 수요 확대, 여전사는 신용스프레드 증가에 따른 여전채 발행 비용 증가 경로를 통해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유동성비율이

18) 자세한 내용은 <복원력> 「1. 금융기관 - 2. 비은행금융기관 - 2.2 보험,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19) 2023년 9월말 기준 증권회사와 여전사 대부분은 유동성비율이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 증권회사(10개사)와 여전사(8개사)는 유동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110% 미만)이다.  
 20) 증권회사는 채무보증 규모를 감소한 조정유동성비율, 여전사의 경우 1개월내 유동성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등 강화된 유동성 지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21) 부실 우려 PF사업장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채무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23년 4월 전금융권을 포괄하는 PF대주단협약이 개정·시행되었다.

## II. 대외지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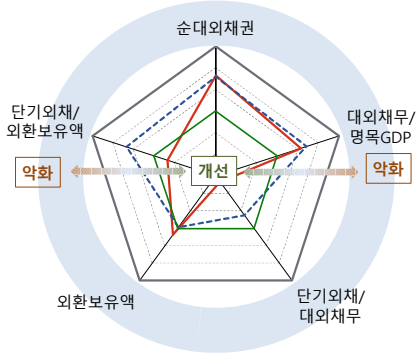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순대외채권은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단기외채가 크게 줄어들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및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그림 II-1).

80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 금번 대상기간<sup>2)</sup>    - - - 직전 대상기간<sup>3)</sup>    — 장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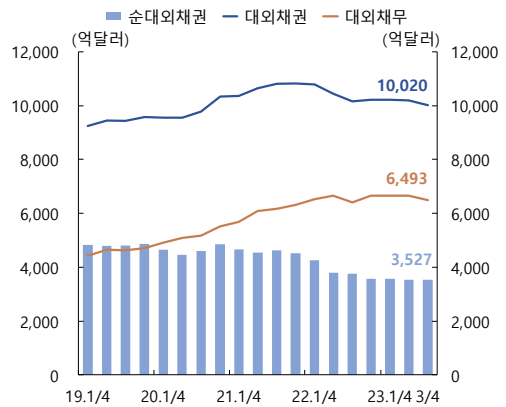


주: 1) 각 지표별 장기 평균(5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금번 대상기간과 직전 대상기간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지도에 도시  
2) 2023년 3/4분기말(외환보유액은 2023년 11월말)  
3) 2023년 1/4분기말  
자료: 한국은행

## 순대외채권 감소세 둔화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3년 3/4분기말 3,527억달러로 1/4분기말 대비 35억달러 감소하였다. 다만 직전 대상기간(2022년 3/4분기말 대비 2023년 1/4분기말, -180억달러)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그림 II-2).

그림 II-2. 순대외채권<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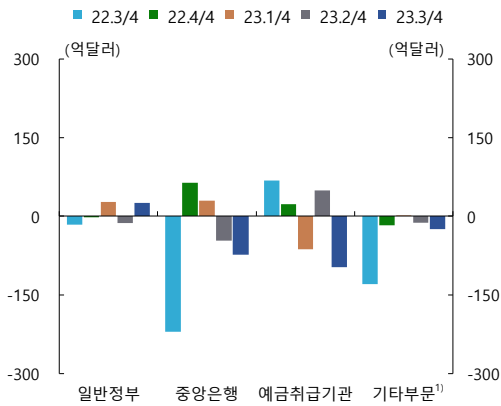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조 20억달러로 1/4분기말 대비 192억달러 감소하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는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12억달러 증가하였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의한 외환보유액 감소 영향으로 120억달러 줄었다. 예금취급기관은 48억달러 감소하였는데 주로 국내은행의 대외자산 운용이 축소된 데 기인한다. 기타부문은 기타금융기관의 해외증권투자 축소 등으로 36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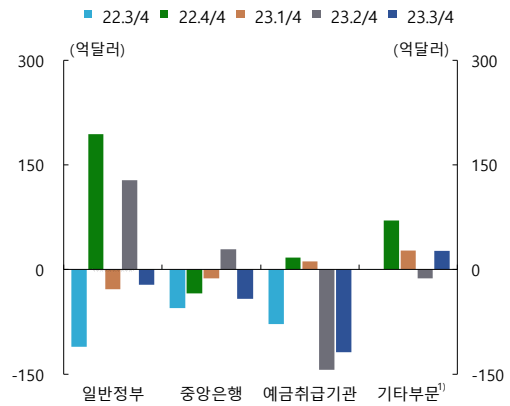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3년 3/4분기말 6,493억달러로 1/4분기 대비 157억달러 감소하였다. 일반정부는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 증가 등으로 106억달러 증가한 데 비해 중앙은행은 외국인의 통안증권 투자 감소 등으로 13억달러 감소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은 외국인의 은행채 투자 감소와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축소 등으로 263억달러 감소하였다. 기타부문은 민간의 외화증권발행이 확대되면서 14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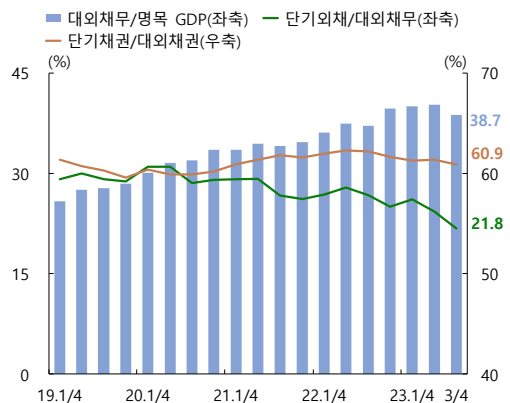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3년 3/4분기말 38.7%로 1/4분기(40.0%) 대비 감소하였다.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은 21.8%로 1/4분기(26.1%) 대비 하락<sup>22)</sup>하였다. 대외채권중 단기채권 비중은 60.9%로 1/4분기(61.2%)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5).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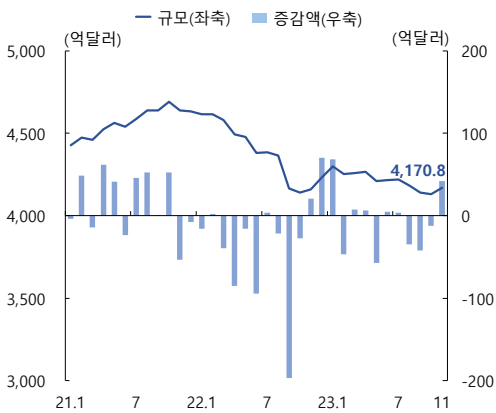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2) 2023년 3/4분기말 단기외채는 은행의 대외차입 및 외국인의 단기 원화채권투자 감소, 이란의 국내 동결자금 회수 등으로 1/4분기 대비 321억달러 감소하였다.

## 외환보유액 감소

2023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금년 5월말(4,209.8억달러) 대비 39.0억달러 감소한 4,170.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 포함) 등에 기인한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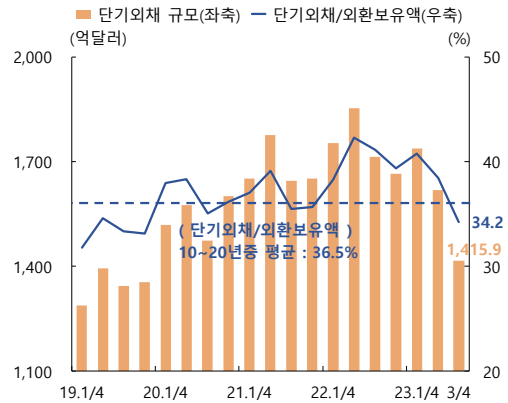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sup>1)</sup>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3년 3/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4.2%로 단기외채가 크게 감소하면서 1/4분기(40.8%) 대비 6.5%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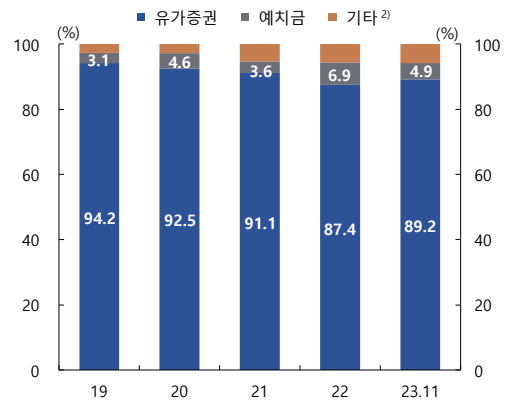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3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89.2%) 및 예치금(4.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sup>1)</sup>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 Ⅲ.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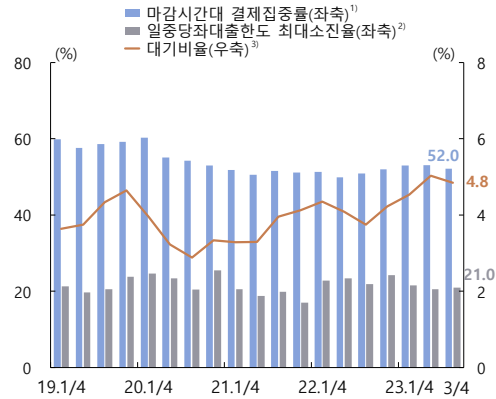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3/4분기중 543.9조원으로 지난해(524.3조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3년 3/4분기중 각각 21.0%, 4.8%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3/4분기중 52.0%로 전년동기(50.8%)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I-1).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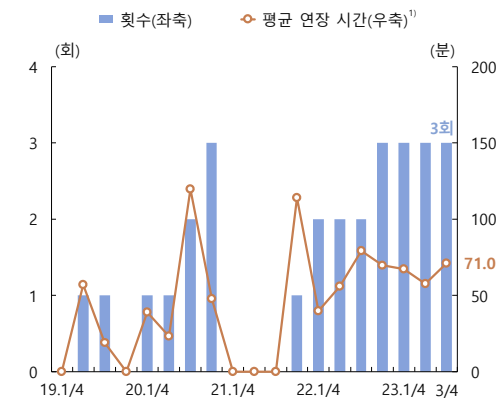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연장은 2023년 3/4분기중 3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 RP매입 입찰실시에 따른 결제 처리 등에 따른 것이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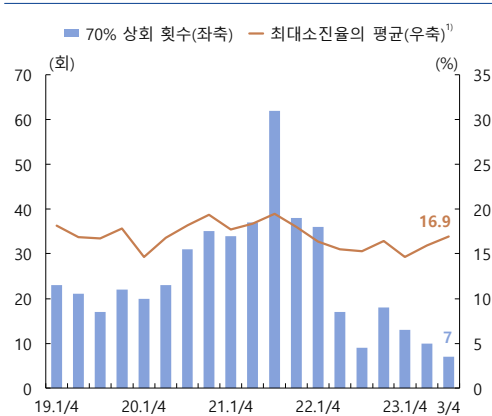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3/4분기중 96.7조원으로 지난해(99.3조원)보다 줄어든 가운데 관련 결제 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sup>1)</sup>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4분기중 7회로 전년 동기(9회)에 비해 감소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을 평균은 2023년 3/4분기중 16.9%로 전년동기(15.3%)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3년 3/4분기중 265.5조원으로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36.8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3/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표 III-1).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sup>1)</sup>

	기준시한 <sup>2)</sup>	비중(%)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주식 기관투자자	16:50	-	-	-	-	-

주: 1) 해당 기간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1)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오전 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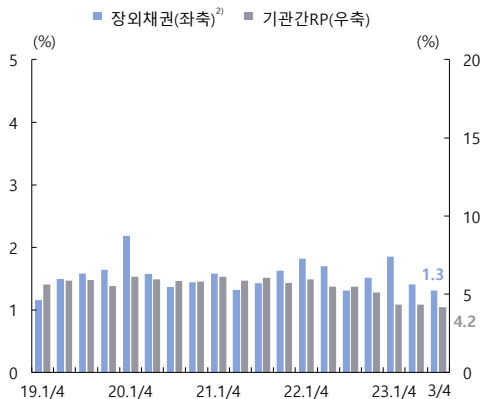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 비중이 2023년 3/4분기중 각각 1.3% 및 4.2%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 외환결제시스템<sup>2)</sup>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sup>3)</sup>의 결제액은 2023년 3/4분기중 일평균 750.9억달러로 지난해(748.4억달러)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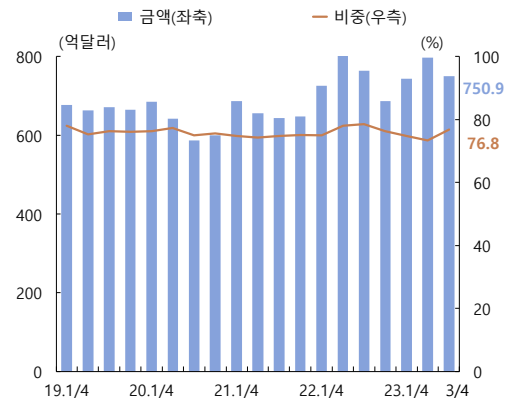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3년 3/4분기중 76.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5).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sup>1)</sup>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sup>1)</sup> 및 비중<sup>2)</sup>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 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 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

# 종합평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년 하반기중 신용 레버리지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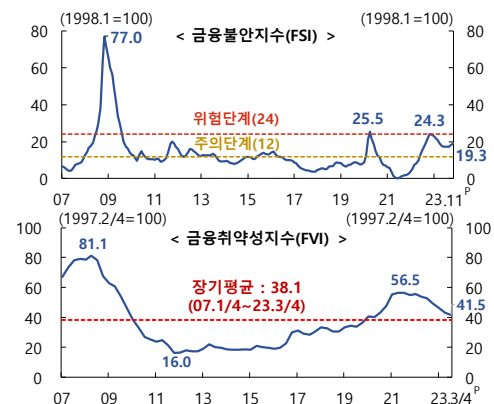
금리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그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LTV, DSR 규제 등을 통해 담보가치와 차주의 신용 및 소득구성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온 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의 채택으로 특히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위기대응역량이 꾸준히 확충되어 온 점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평가받은 바<sup>1)</sup>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부동산PF 시장 불안, 새마을금고 자금인출 사태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과거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10월중 크게 상승하였던 금리가 11월 들어 연준의 긴축기조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하고 같은 기간 중 주가도 하락 후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통화긴축의 영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4/4분기중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인동 없이 원활하게 재예치되고 있다.<sup>2)</sup> 다만 높아진 금리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sup>3)</sup>는 2023년 11월 19.3(주의단계)으로 지난 5월(17.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시장 불안시(24.3)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 금융불안지수(FSI)<sup>1)</sup> 및 금융취약성지수(FVI)<sup>2)</sup>



주: 1) 단기적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부분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험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12과 24로 설정

2) 중장기적 금융취약성 상황을 나타내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자료: 한국은행

1) Economist誌는 5개 경제·금융 지표(근원물가상승률, 2%이상 상승 소비자물가상품 비중 변화, 성장률, 실업률, 주가)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2022년 4/4분기~2023년 3/4분기중 경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를 2위로 평가하면서 선제적인 금리인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다(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Finance and economics Section, Economist誌, 2023년 12월 17일).

2) 최근 금리상승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용 관련 주요 리스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3) 금융불안지수(FSI)는 금융불안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2012년 최초 편제되어 활용해 왔으며, 금년부터 비은행부문의 영향력 증대 등 금융시스템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단기적 금융스트레스 상황에 유의하는 방향으로 FSI를 전면 개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하반기중 민간신용 증가세가 다소 더디게 둔화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sup>4)</sup>(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2023년 1/4분기 46.3에서 3/4분기 41.5로 하락하여 장기평균 수준(38.1)에 근접하였으나, 하락폭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다.

### 취약성 평가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세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높아진 금리 수준이 가계와 기업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을 높이고 소비를 제약하여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소비회복 지연 등이 지속될 경우 해당 업종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대출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sup>5)</sup>

자산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을 받아 채권 및 주식 가격이 변동성이 높아졌다. 주택 가격은 3/4분기중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반등하였으나 4/4분기 들어서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가계대출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가격전망 등 시장참가자의 기대 변화와 매수심리 변동 등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현재로서는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금융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앞으로도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차를 두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높이고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자금유출 등에 따라 유동성리스크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시스템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이다.

5)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1.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 리스크 요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리스크 요인<sup>6)</sup>으로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세 약화, 부동산경기 불확실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에 따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될 경우 최근 둔화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높은 금리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경우 기존 차주들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면서 취약가계, 부동산·건설업 등 대출의 신용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여력도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년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PF-ABCP, CP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지면서 신용스프레드 상승과 자금조달 비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 대응 방안

우선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계신용의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기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채무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업신용의 경우 부동산 관련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여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부문에 공급된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취약기업 부실문제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여 채무조정과 추가적인 금융지원조치 등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상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출자산의 신용리스크

6) 2023년 하반기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70.1%), 높은 금리 수준 지속(55.8%),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37.7%), 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35.1%)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9>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확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7)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등에 있어 은행에 비해 다소 느슨한 부분을 보완하여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와 여전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sup>8)</sup>에 대응하여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간 정책공조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자금조달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도 관리해야 하는 만큼 비은행에 대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sup>9)</sup> 강화 등을 통해 분석의 정도를 높이고 적기 조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sup>10)</sup>하고 정책당국, 기업, 금융기관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7) 금융당국은 경기상황 등에 대응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감독규정화 하였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11월 1일).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9) 한국은행은 금융불안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개편하였으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였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년 7월 27일·10월 31일).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8>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여건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 7.

###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sup>1)</sup>

금융불안지수(Financial Stress Index, 이하 'FSI')는 금융 및 실물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속도성 있게 판단하는 지수로 한국은행이 2012년 동 지수를 최초 편제한 이후 현재까지 매월 산출하고 있다. 지수 개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비은행부문의 영향력이 증대<sup>2)</sup>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구조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2021년에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상황을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도입<sup>3)</sup>함에 따라 두 지수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단기적 금융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도록 FSI를 개편하였다.

#### 주요 개편 내용

우선 FSI 구성부문 및 세부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실물, 가계, 기업을 실물 부문으로 통합하고 비은행 부문을 추가하여, 금융시장, 대외, 실물, 가계, 기업, 은행의 6개 부문을 금융시장, 대외, 실물, 은행, 비은행의 5개 부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각 부문을 구성하는 세부지표를 주요 위기 설명력, 데이터 가용주기 및 입수시점 등을 고려하여 재선별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비은행 부문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단기불안상황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전체 세부지표 수는 기존과 동일한 20개를 유지하였다.

#### FSI 구성부문 및 세부지표<sup>1)</sup>

부 문	세부지표	부 문	세부지표
금융시장	KOSPI 변동성	은행	외화부채비중
	KOSPI 하락률		연체율
	신용스프레드		은행채 스프레드
	장단기스프레드		저축은행 연체율
대외	원/달러 변동성	비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차익거래유인		여전채스프레드
	한국 CDS 스프레드		MMF 증가율
	외환보유액갭		보험회사 부채/자산비율
실물	주택가격 변동성	소비자심리지수	
	교역규모 감소율	전산업BSI	

주: 1) 굵은 글씨는 이번 개편으로 변경된 세부지표를 의미

다음으로 종합지수 산출 방식을 개선<sup>4)</sup>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세부지표 표준화(normalization), ② 5개 부문별 공통요인(factor) 추출<sup>5)</sup>, ③ 공통요인의 등분산 기중평균<sup>6)</sup>을 통한 종합지수 시산, ④ 지수 변환<sup>7)</sup>(0~100)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하였다. 부문별 지수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FSI 임계치의 명칭을 기존의 주의·위기 단계에서 주의·위험단계로 변경<sup>8)</sup>하는 한편, 임계치 수준을 재조정하였다. NTSR(noise-to-signal-ratio) 방식<sup>9)</sup>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와 최근 금융리스크 증대 시기에 대한 정보를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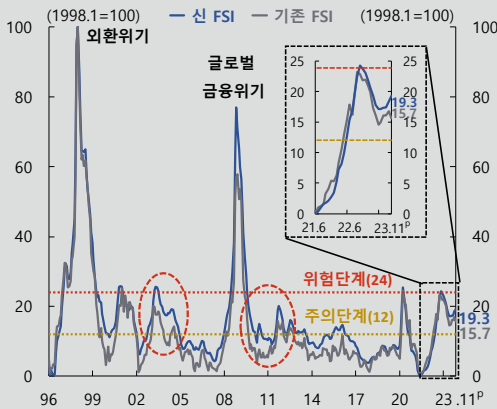
- 1) 본고는 박지수·이영재(시스템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임호성(시스템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자산 기준)이 2010년 40.3% → 2015년 47.1% → 2020년 48.4%로 확대되었다.
- 3) FVI 개발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주요 현안 분석> 「1. 금융취약성지수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 4) 부문별 요인 선정방식을 단순평균 방식에서 공통요인 추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FSI 편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2012년 4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IV-1> 「금융안정지수 개요」를 참조하기 바란다.
- 5) 지표별 중요도에 시변성을 반영하는 시변 모수 동태요인모형(Time-varying Parameter Dynamic Factor Model)을 통해 추출하였다. FVI 산출시에도 동 방법론을 적용중에 있다.
- 6) 변동성이 상이한 공통요인들이 전체 지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해 동 방식을 적용하였다.
- 7) 역사적 최고치를 100으로, 최저치를 0으로 설정하였다.
- 8) 주의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 위험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정의하고 '위기'라는 용어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 수준의 금융위기로 이해될 수 있어 용어를 순화하였다.

영하여 추정된 결과 주의·위험단계 임계치는 각각 12 및 24로 설정되었다.<sup>10)</sup>

## 산출 결과

새롭게 산출된 신 FSI와 기존 FSI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나, 주요 시기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및 2011년경에는 카드사태 및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 증대에 따라 신 FSI가 기존 FSI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에는 양 시간대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1월 이후에는 신 FSI가 기존 FSI보다 소폭 높게 산출되었다.

## 신 FSI와 기존 F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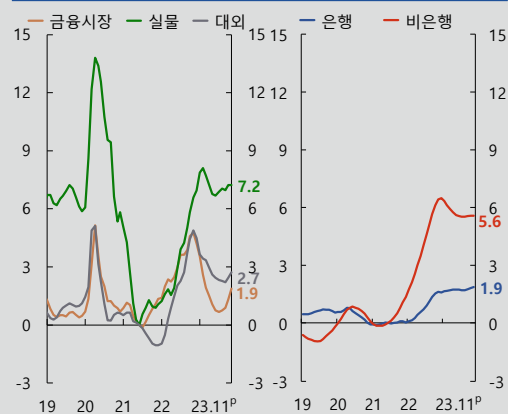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추가로 최근의 FSI 흐름을 세부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기별로 주요 상승·하락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인 2020년초에

는 급격한 교역규모 축소 및 심리지표 악화 등으로 실물부문이 FSI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실물·대외 및 금융시장 부문의 영향이 컸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비은행 부문이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세부분문별 FSI<sup>1)</sup>



주: 1) FSI 최저시점(21.6월) 대비 각 부문의 상대적 변화를 평가한 지수로 부문별 지수의 총합은 종합지수와 동일  
자료: 한국은행

## 평가 및 시사점

금융시스템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금번에 개편된 신 FSI는 기존 FSI에 비해 위기 예측능력<sup>11)</sup> 및 GaR 분석을 통한 경제성장률 하방리스크 예측력<sup>12)</sup>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 금융불안 상황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불안 상황을 포착하는 금융취약성 지수(FVI)와 함께 금융안정 상황 판단을 위한 핵심 참고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9) 주의·위험단계에 해당하는 이벤트 발생시 이를 정확히 예측할 확률[1-(1종 오류)] 대비 주의·위험단계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잘못 예측할 확률[2종 오류]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임계치 산출방법이다.

10) 임계치가 상승한 이유는 비은행부문 신설 등으로 신 FSI 수준이 상향 조정된 데 주로 기인한다.

11)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기로 잘못 예측할 확률[2종 오류]을 X축, 위기발생시 위기를 정확히 예측할 확률[1-(1종 오류)]을 Y축에 표시한 ROC(Receiving Operator Curve) 곡선의 하단 면적을 계산한 신 FSI의 AUC값(0.942)이 기존 FSI의 값(0.9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의 AUC가 높을수록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12) 각 FSI를 이용하여 1분기 후 GDP 하방 10% 분위수를 추정하고 이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사태 등 주요 위기 시기의 GDP 실제치와 비교한 결과, 신 FSI의 오차(0.4~1.0%포인트)가 기존 FSI(0.8~3.2%포인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8.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여건 및 시사점<sup>1)</sup>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sup>2)</sup>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각 당사국에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토록 하였다. 각 국은 동 협정에 따라 국제 공조 차원에서 5년마다 NDC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정된 NDC를 제출하도록 하였다.<sup>3)</sup>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인 2030 NDC<sup>4)</sup>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이행방안과 함께 연도별(2023~30년)·부문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sup>5)</sup>를 2015년에 도입하여 NDC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규제대상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sup>6)</sup> 방식으로 특정 계획기간 단위로 사전 할당하고 있으며, 2021~25년은 제3차 할당 계획기간에 해당한다.

최근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4차 계획기간(2026~30년)을 앞두고 향후 배출권 할당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행 NDC의 경우 2027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빠르게 강화되는 경로로 설정되어 있어 제4차 계획기간과 맞물려 배출허용총량이 종전보다 축소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살펴보고, 기업 재무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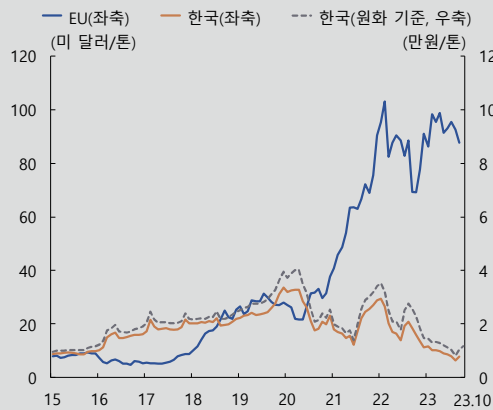
####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도입된 이후 거래량은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이나 배출권 거래가격은 2020년 들어 급락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배출권의 공급 과잉, 취약한 수요 기반 등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2023년 8월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월평균 톤당 8,338원)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배출권 가격이 반등(2023년 10월중 11,732원)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온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과 대비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sup>7)</sup>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이 오히

1) 본고는 김경섭·김재윤·이지원(지속가능성장연구팀)이 작성, 이범호(금융안정연구부장)가 검토하였다.  
2)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3) UNFCCC는 2023년 9월 이행점검에 대한 첫 종합보고서(technical dialogue of the first global stocktake)에서 당사국들이 현재 설정한 NDC가 온도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약 7.3억톤)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NDC는 2023년(약 6.3억톤)부터 2030년(약 4.4억톤)까지 연도별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의 부문별로 설정되어 있다.  
5)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평균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할당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기업 상호간에 거래토록 하는 제도이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배출량의 73.5%를 포괄한다.  
6) 제3차 계획기간에는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전체 할당량의 최대 10%로 설정되어 있다.  
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5년에 2030년의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초 수립하였으나, 2021년에 기준연도인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려 하락하고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해야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금년 9월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기반 확충과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한국과 EU 배출권 시장의 거래가격<sup>1)</sup> 추이



주: 1) 월평균 현물가격 기준  
자료: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적 여건 변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번 조치가 시장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만큼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 완화 및 공급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이 종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배출권 거래가격이 낮은 수준을 지속한 데에는 배출권 이월(banking)<sup>8)</sup>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차기연도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는 물량을 제한<sup>9)</sup>함에 따라 배출권이 남는 기업(실제 배출량 < 할당 배출권)은 초과 배출권을 매년 시장에 대량 매도하게 되어 배출권의 공급 과잉 현상이 최근까지 만성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장 여건에서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에게 배출권 이월 물량을 늘려 주는 금번 조치<sup>10)</sup>로 배출권 매도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제4차 계획기간에 할당될 배출허용총량의 축소 정도<sup>11)</sup>에 따라 배출권 가격의 상승 압력이 잠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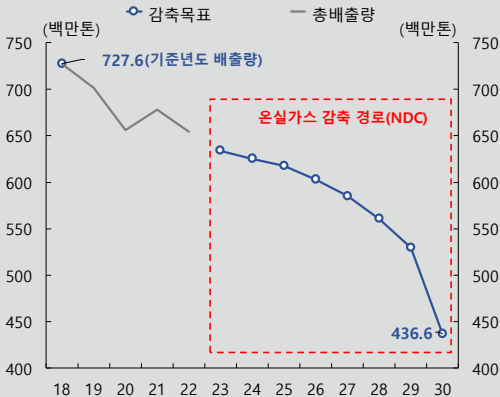
한편, 금번 조치에 따른 향후 배출권 가격의 상승 기대와 더불어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각국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간 공정한 부담원칙에 따라 EU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sup>12)</sup>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U가 CBAM에서 산정하는 탄소비용을 EU 배출권 시장 가격에 연계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의 글로벌 수렴 현상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EU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EU 가격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CBAM의 본격 시행과 맞물려 국내 배출권 가격 상승 압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8)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의 배출권을 매년 8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차기연도에도 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을 허용한다. 이에 반해 EU에는 배출권 이월에 제한이 없다.
- 9) 배출권 잉여 업체는 해당연도 순매도량의 1배 이내에서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었으나, 금번 이월 제한 기준의 완화 조치로 이월 한도가 해당연도 순매도량의 3배로 늘어남에 따라 현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된다.
- 10) 또한, 정부는 시장유동성 확충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배출권 수급상황에 따라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는 시장안정화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를 마련하는 등 배출권 시장의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기반 확충 조치로 배출권 위탁거래와 선물시장이 도입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가 허용될 예정이다.
- 11)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년 7월)에 따르면, 종전보다 강화된 현행 NDC 목표를 감안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배출허용총량 결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 12) CBAM은 EU지역으로 수출되는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및 수소)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EU 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CBAM 신고서 제출)함에 따라 수입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세로 작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부담한 탄소 배출 비용은 CBAM 신고서 제출 시 공제 대상이 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경로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계획되므로 향후 NDC 이행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기준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2.9억톤 상당)를 감축해야 하는 현행 NDC를 연도별로 보면, 2027년 이후 감축목표가 급격히 강화되는 경로로 설정되어 있다. 부문별로 보면<sup>13)</sup> 전환(전기, 가스 발전 등) 부문이 45.9%(1.2억톤)로 감축목표가 가장 크며, 산업은 11.4%(3.0천만톤), 수송은 37.8%(3.7천만톤)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NDC 달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환 부문의 감축부담이 2027년부터 급격히 확대되는 구조이다.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NDC)<sup>1)</sup>



주: 1) 2023년 3월 수정 NDC 기준  
자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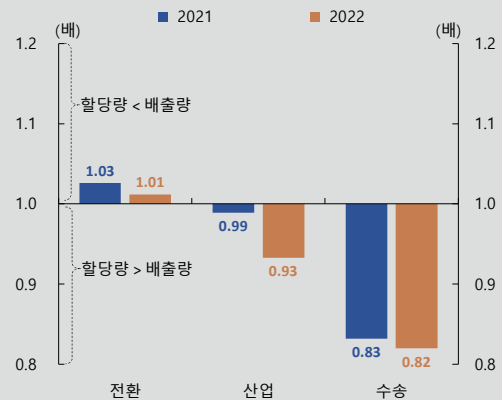
현행 NDC 경로가 2030년에 근접할수록 감축목표가 급격하게 강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정부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 이와 같이 강화된 NDC 감축경로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부여되는 배출허

용총량이 현행보다 축소되어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할당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 매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부담이 늘어나고 배출권 시장에도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 평가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배출권 가격이 낮은 수준인데다 배출량이 대체로 할당량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sup>1)</sup> 비율



주: 1) 온실가스의 부문별 연간 총 할당량 및 배출량 기준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그러나 향후 배출권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잠재하는 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강화되어 감에 따라 감축부담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에 2030년까지의 NDC 경로를 전제로 NGSF<sup>14)</sup> 시나리오의 탄소가격 경로를 배출권 가격으로 적용하여 주요 탄소 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향후 배출부채<sup>15)</sup> 규모와 이로 인

13) 온실가스 감축부문은 전환(전기, 가스 공급 등),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의 배출 부문과 흡수원, 여타 흡수·제거 부문으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기업을 주로 포괄하는 전환, 산업 및 수송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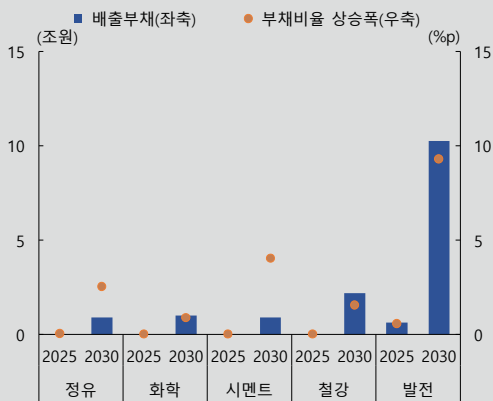
14) NGSF(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로 구성된 기후리스크 연구 및 논의 협의체이다.



한 부채비율 변화를 시산해 보았다. 배출부채가 2025년에는 2022년말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2030년에는 큰 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업종을 보면, 배출부채가 2025년에도 2022년말에 비해 크게 인식되며 2030년말에는 부채비율이 9.3%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경로에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강, 정유, 화학, 시멘트 등의 업종은 2025년 이후 배출부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업종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출부채<sup>1)</sup> 및 부채비율 변화<sup>2)</sup> 추정<sup>3)4)5)</sup>



주: 1) 배출부채는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로, 할당량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한 배출비용(초과 배출량×배출권 시장가격)과 유상할당 배출권 구매 비용을 합한 값으로 산출

2) 총부채/총자본 비율의 2022년말 대비 변화폭

3) 배출권 할당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은 2021-22년 평균 배출량에 과거 3년간(2019-22년)의 연평균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출

4) 할당량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할당량을 가정하되 2030년은 전 부문에 유상할당 비율 10%를 적용

5) 배출권 가격은 NGFS의 2050 탄소중립(net zero) 시나리오의 탄소 가격 추정치를 사용

자료: 한국은행 시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NGFS

## 시사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는 한편 유상할당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최근 가격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sup>16)</sup> 이에 더하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의 감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발전업종의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의 상승 요인도 잠재해 있다.

이에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은 향후 가중될 감축부담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선제적으로 축소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향후 전환리스크에 대한 감내 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sup>17)</sup>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환리스크 충격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 가구 등의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피해를 줄여주는 포용적 지원도 요구된다.<sup>18)</sup> 아울러 발전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주로 의존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채권시장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질서있는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5) 배출부채는 기업이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로서, 유상할당 배출권과 초과 배출량(배출량 > 할당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지출로 추정하여 인식한다. 매입 배출권은 자산으로 인식하나 본고에서는 부채 측면에서 인식되는 기업의 배출권 제출 부담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16) 2026년부터 강화되는 감축목표에 대응하여 2025년부터 배출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배출허용총량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한 시기(2021년)에 배출권 가격이 큰 폭 상승한 사례가 있다.

17) 화석연료(석탄, LNG 등) 발전이 2022년 국내 총발전량의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전력통계, 2022).

18) 화석연료 발전 감축 등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그룹(탄소집약산업과 동 산업의 근로자, 저소득층 등)을 포용하여 전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just energy transition)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 9.

###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 서베이 결과<sup>1)</sup>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3년 10월 30일 ~ 11월 6일중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았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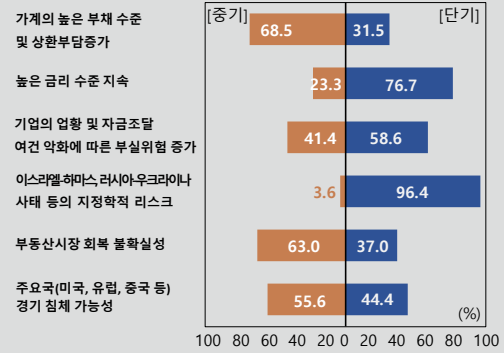
#### 주요 리스크 요인

2023년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단순 응답빈도수 기준<sup>3)</sup>, 70.1%), '높은 금리 수준 지속'(55.8%),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37.7%), '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3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스라엘-히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36.4%),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35.1%) 등을 지목하였다.

주요 리스크 요인의 발생 시기에 대한 평가를 보면,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은 중기(1~3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높은 금리 수준',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는 단기(1년 이내)적 이슈라고 판단한 비중이 높았다.

#### 주요 리스크 요인<sup>1)</sup>별 발생 시계<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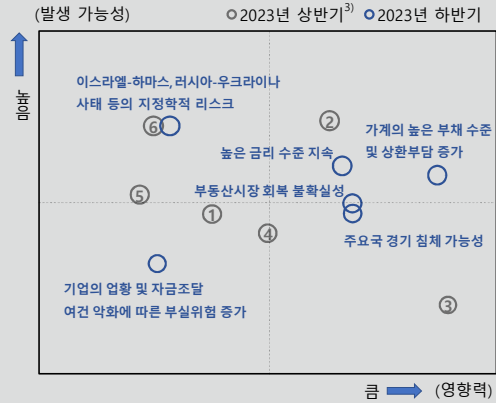
주: 1)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  
2) 응답 비중(%) (단기: 1년 이내, 중기: 1~3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리스크 요인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

지난 상반기<sup>4)</sup>와 비교 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수준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편으로 평가되었다. 응답자들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및 '높은 금리 수준 지속'의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높다고 평가한 반면, '부동산시장 회복 불확실성',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외 리스크 중 응답 비중이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지목하였다.

1) 본고는 백운아·박서정(은행리스크팀)이 작성, 이종한(금융리스크분석부장)·송길성(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 ECOS 전자설문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총 82명(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관리 담당자 등 72명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10명) 중 77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3.9%였다.  
3) 응답자별로 대내외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리스크 요인 5개를 선정토록 하였다. 괄호 안은 응답 비중으로, 응답 비중 70%는 응답자의 70%가 해당 리스크를 5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음을 의미한다.  
4) 2023년 상반기중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는 2023년 5월중 실시하였으며 당시 선정된 상위 6개 리스크 요인은 금번 서베이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

## 주요 리스크 요인<sup>1)</sup>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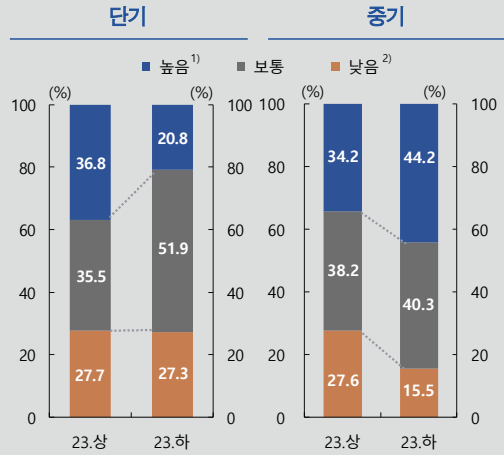


- 주: 1)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상위 6개  
2) 리스크 요인별 상대적 위치를 나타냄  
3) 2023년 상반기 상위 6개 리스크 요인은 ①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 ②부동산시장 침체, ③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④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 ⑤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⑥경상수지 적자 지속이다.  
자료: 한국은행

##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및 제고 방안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응답 비중을 보면, 단기(1년 이내) 충격 발생 가능성을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20.8%로 지난 서베이(36.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중기(1~3년)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44.2%로 지난 서베이(34.2%)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계별 금융시스템 충격 발생 가능성



- 주: 1) ‘매우 높음’ 포함  
2) ‘매우 낮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6.1%로 상반기 서베이와 비슷하였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수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과 ‘부동산PF 대출 관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기관 대상 선제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및 ‘자산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과 함께,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간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활용 증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 주요 현안 분석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102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	115

#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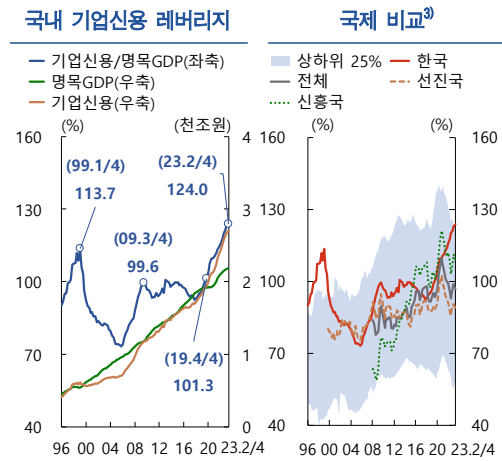
1. 검토 배경
2. 부문별 기업신용 확대 특징
3. 기업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4. 과거 위기 시와의 비교
5. 평가 및 시사점

## 1. 검토 배경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 및 채권 등 신용이 큰 폭 증가하면서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sup>2)</sup> 비율<sup>3)</sup> (corporate credit-to-GDP, 이하 ‘기업신용 레버리지’)이 2023년 2/4분기말 기준 12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 주요국의 기업신용 레버리지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동 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였다(그림 I-1).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당시 경험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기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신용이 급증하였던 코로나19 이후 기간을 중심으로 최근 기업신용 확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입금의 분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그림 I-1. GDP<sup>1)</sup> 대비 기업신용<sup>2)</sup> 비율



주: 1) 당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 합산 기준  
 2)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 중 채권, 대출금, 정부용자 합산 기준  
 3) BIS 신용통계에 포함된 43개국 기준. 한국은 신용통계에 포함  
 자료: 한국은행, BIS

## 2. 부문별 기업신용 확대 특징

기업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코로나19 전후에 평균 4.8%에서 9.9%로 상승하였다. 기업신용 항목별로는 채권 및 정부용자<sup>4)</sup>보다는 금융기관 대출금, 기업특성별로는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 신용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표 I-1).

표 I-1. 코로나19 전후<sup>1)</sup> 기업신용 증가율 평균<sup>2)</sup> 비교 (%)

	기업신용	대출금	채권	정부용자	민간기업	공기업
코로나19 이전	4.8	5.3	3.8	6.2	5.0	4.1
코로나19 이후	9.9	11.9	4.8	10.1	10.4	6.9

주: 1) 코로나19 이전은 2010년 1/4분기에서 2019년 4/4분기, 코로나19 이후는 2020년 1/4분기에서 2023년 2/4분기를 의미  
 2) 기간중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국민소득, 자금순환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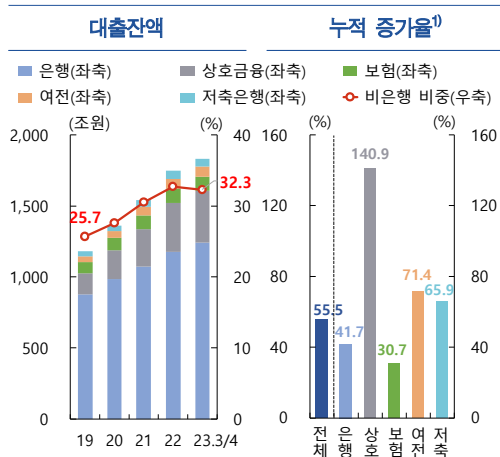
1) 본고는 편도훈·허정(안정분석팀)이 작성하고,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기업신용은 일반적으로 자금순환통계상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 중 대출금, 채권 및 정부용자 잔액의 합계로 정의한다.  
 3)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기업신용 잔액을 명목GDP의 당분기 및 직전 3분기 합산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정부용자의 평균 증가율(전년동기대비)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기업신용 전체에서 정부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기간중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년말 5.2% → 23년 2/4분기말 5.2%).

## 가. 금융기관 대출금<sup>5)</sup>

### 비은행 및 중소기업 대출 큰 폭 증가

2023년 3/4분기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1,241.0조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1.7% 증가(+365.2조원)하였으나 비은행 기업대출(591.7조원)은 동 기간중 95.4% 증가(+288.9조원)함에 따라, 전체 기업대출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말 25.7%에서 2023년 3/4분기말 32.3%로 상승하였다. 특히, 비은행권 중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기업대출이 2019년말 대비 140.9% 증가하여 대출잔액이 151.8조원에서 365.8조원으로 확대되었다<sup>6)</sup>(그림 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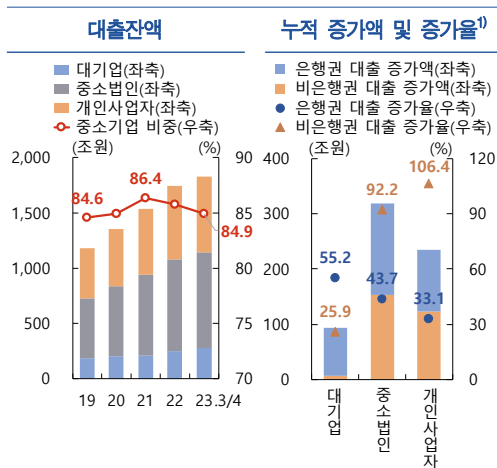
그림 I-2. 코로나19 이후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추이



주: 1) 금융업권별 기업대출의 2019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차주 기업의 규모별로는, 2019년말 이후 대기업 대출이 총 51.3% 증가(+93.5조원)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각각 58.4%(+318.8조원) 및 51.8%(+234.6조원) 증가하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84.9%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중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은행권<sup>7)</sup> 대출이 전체 대출 증가 규모의 약 50%를 차지하였다(그림 I-3).

그림 I-3.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추이



주: 1) 은행 및 비은행의 규모별 기업대출 2019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동산 관련·코로나19 피해업종 대출 증가

기업대출(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기준)의 증감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업종과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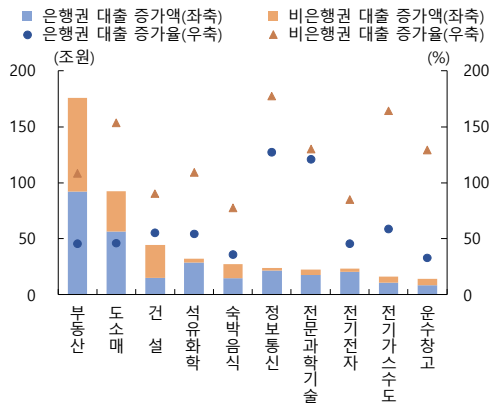
5) 본고에서는 자금순환 통계를 기준으로 기업신용 전체 동향(잔액 및 명목GDP 대비 비율)을 평가하였으나, 금융기관 기업대출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기 업무보고서와 산업별 대출금(예금취급기관) 등 통계도 함께 활용하였다. 각 통계마다 대출 항목 및 금융업권의 포괄 범위가 다르므로, 통계별로 기업대출 잔액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기업대출도 2019년말 대비 각각 72.5% 및 68.0% 증가하여 은행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7) 2023년 3/4분기말 비은행권이 취급하는 전체 기업대출의 94.0%가 중소기업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가 중소기업대출의 큰 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업(+175.7조원)과 건설업(+44.3조원) 대출 증가 규모가 분석대상 업종<sup>8)</sup> 전체 대출 증가 규모(+567.4조원)의 38.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이들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이 2019년말 대비 거의 2배 규모로 확대<sup>9)</sup>되는 등 이들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중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경우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 영향으로 대출이 각각 92.7조원과 27.5조원 증가하였다(그림 I-4).

그림 I-4. 코로나19 이후 주요 업종별 기업대출<sup>1)</sup> 증감<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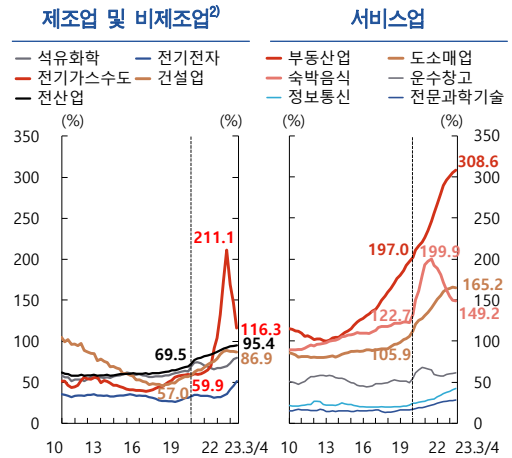


주: 1)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기준  
 2) 2019년말 대비 2023년 3/4분기말 업종별 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이러한 산업별 대출 증가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산업별 생산 GDP(명목, 4분기 합산 기준) 대비 산업별 대출의 비율(이하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sup>10)</sup>')을 분석하였다. 먼저 부동산업의 경우 대출 레버리지가

2019년말 197.0%에서 2023년 3/4분기말 308.6%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9년말 대비 부동산업 대출이 60.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는 소폭 증가(3.6%)에 그친 데 기인하였다. 건설업의 대출 레버리지도 동 기간중 57.0%에서 86.9%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산업 평균 대출 레버리지(95.4%)를 하회하고 있다. 한편,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과 금융지원 증대로 대출 레버리지가 2019년말 122.7%에서 2021년말 199.9%까지 상승하였다가, 2022년 이후 업황 개선 및 대출 증가세 둔화<sup>11)</sup>로 2023년 3/4분기말 149.2%로 하락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출 레버리지가 2019년말 105.9%에서 2023년 3/4분기말 165.2%까지 상승하였다(그림 I-5).

그림 I-5. 주요 업종별 GDP 대비 기업대출 비율<sup>1)</sup> 추이



주: 1) 산업별 생산GDP(명목, 4분기 합산) 대비 대출금 비율  
 2) 서비스업을 제외한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비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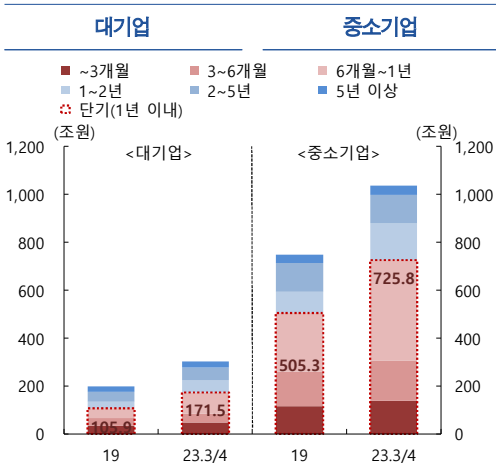
8) 기업대출의 업종별 현황 분석을 위해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은 제조업, 비금융 서비스업(금융보합업, 공공행정서비스 제외),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만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9) 부동산업 대출 (조원) : 19년말 59.8 (은행 27.9, 비은행 31.9) → 23년 3/4분기말 104.1 (은행 43.3, 비은행 60.8)  
 건설업 대출 (조원) : 19년말 59.8 (은행 27.9, 비은행 31.9) → 23년 3/4분기말 104.1 (은행 43.3, 비은행 60.8)  
 10)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는 개념상 기업신용 레버리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과 동일하나, 동 비율에는 채권 및 정부유자를 제외한 대출금만 포함되며 자금순환 통계가 아닌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사용하여 비율 값에 차이가 있다.  
 11) 숙박음식업 명목GDP(4분기 합산) 누적 증가율: 19년말 ~ 21년말 -15.4%, 21년말 ~ 23년 3/4분기말 43.6%  
 예금취급기관 대출금 누적 증가율: 19년말 ~ 21년말 32.5%, 21년말 ~ 23년 3/4분기말 11.5%



## 은행 단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 상승

은행의 기업대출<sup>12)</sup>을 잔존만기 구간별로 살펴보면, 2023년 3/4분기말 현재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은 은행권 기업대출의 67.0%인 897.3조 원으로, 은행권 기업대출 총 잔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출 비중이 코로나19 이전(2019년말 61.2조원, 64.8%)보다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단기대출(+220.5조원)이 대기업 단기대출(+65.6조원)보다 더 큰 폭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단기대출 비중(2023년 3/4분기말 70.0%)이 대기업(57.0%)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6).

그림 I-6. 은행 기업대출<sup>1)</sup>의 잔존만기 구간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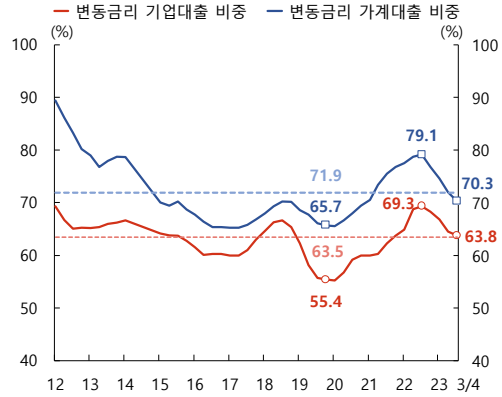


주: 1) 금융보험업 대출 포함  
자료: 금융기관(은행) 업무보고서

한편, 은행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9년말 55.4%에서 2022년 3/4분기말 69.3%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고정금리 대출의 신규 취급이 증가<sup>13)</sup>함에 따라 2023년 3/4분기말 현

재 63.8%로 하락하여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63.5%) 수준까지 회귀하였다(그림 I-7).

그림 I-7. 은행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sup>12)</sup>



주: 1) 잔액 기준  
2) 점선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의 장기평균(2012년 1/4분기 ~ 2019년 4/4분기)  
자료: 한국은행(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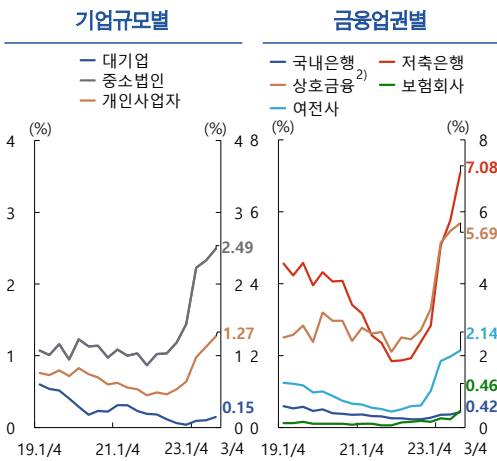
## 비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 증가

기업대출의 부문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기업규모별로는, 2023년 3/4분기말 현재 중소기업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2.49%, 1.27%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 0.15%를 크게 상회하였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및 보험업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각각 7.08%, 5.69%, 2.14%로 전년보다 상승하였다(그림 I-8).

12)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세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은행의 기업대출(금융보험업 포함)을 기준으로 만기구조 및 금리 분포 관련 분석을 진행하였다.

13) 고정금리 기업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 : 22년 2/4분기말 35.4% → 23년 1/4분기말 51.6% → 23년 3/4분기말 45.8%

그림 I-8. 기업규모 및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연체율<sup>1)</sup>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합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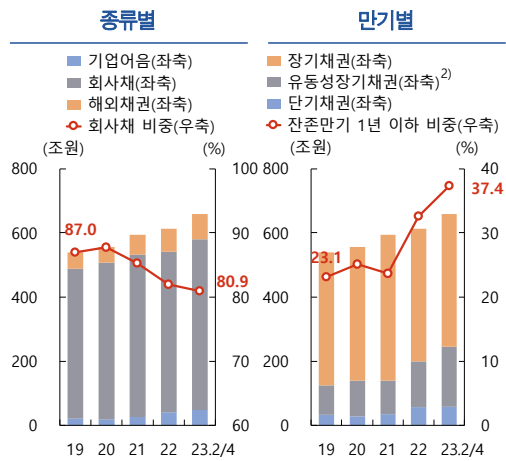
## 나. 채권

### 잔존만기 1년 이하 단기 및 우량물 비중 상승

코로나19 이후 기업신용 중 채권 증가와 관련한 특징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채권 종류별로는 기업어음(CP)이 회사채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회사채 비중은 2019년말 87.0%에서 2023년 2/4분기말 80.9%로 다소 하락한 반면 기업어음 비중은 3.8%에서 7.2%로 상승하였다.

만기별로는, 2023년 2/4분기말 현재 잔존만기 1년 이하인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장기채권(발행만기 1년 이상인 장기채권 중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의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채권 비중이 2019년말(23.1%)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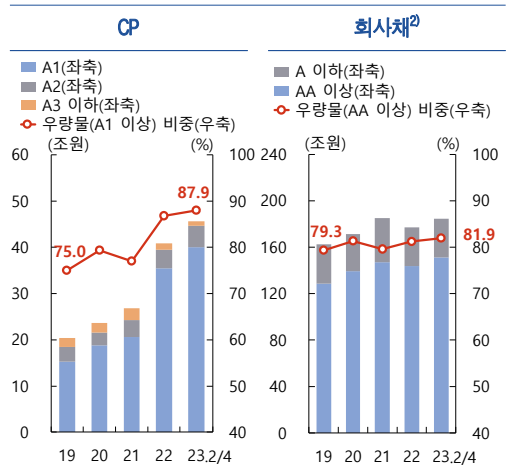
그림 I-9. 코로나19 이후 종류 및 만기별 채권 추이<sup>1)</sup>



주: 1) 비중은 연도별 채권 잔액 대비 종류 및 만기별 잔액 비중  
 2) 발행만기 1년 이상 장기채권 중 잔존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신용등급별로는 기업어음과 회사채 모두 대부분 우량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어음은 A1 등급 이상 우량물 비중이 2019년말 75.0%에서 2023년 2/4분기말 87.9%까지 상승하였다. 회사채는 코로나19 기간중에도 우량물 중심의 발행 행태가 지속되었다(그림 I-10).

그림 I-10.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별 채권 추이<sup>1)</sup>



주: 1) 비중은 연도별 채권 잔액 대비 우량물 잔액 비중  
 2) 공모 회사채 기준(사모 제외), 금융회사 발행분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연협인포맥스

### 3. 기업<sup>14)</sup>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코로나19 이후 기업신용이 비은행·중소기업·단기 대출을 중심으로 양적으로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차주 기업이 이익과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기업신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장기업 기준으로 유량(flow)과 저량(stock)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과 자산에 기반한 상환능력별로 차입금<sup>15)</sup>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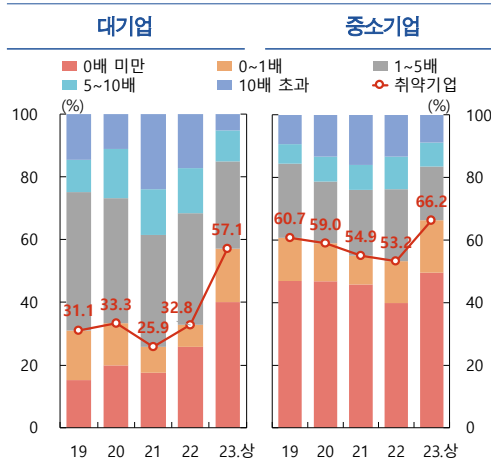
#### 가. 이익 기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기업이 연중 영업활동에서 확보한 이익을 활용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유량(flow)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이익 기반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차입금 비중이 상승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기준 차입금 분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난해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분포를 유지

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중 이자상환부담이 과다한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전기전자 등 주력업종 업황 부진 및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인해 영업적자(이자보상배율 0미만)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차입금 규모도 확대되면서<sup>16)</sup>, 취약기업 차입금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I-11).

그림 I-11. 이자보상배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주: 1) 영업이익/총이자비용(배)

2) 취약기업은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한편 기업의 원금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차입금상환배율<sup>17)</sup>(총차입금/EBITDA<sup>18)</sup>) 기준으로는, 대기업의 차입금 분포는 악화되었으나 중소기업의

14) 이하에서는 2023년중 기업의 재무상황 변화를 시의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 연말 및 2023년 2/4분기말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23년 2/4분기말 2,558개, 대기업 1,291개, 중소기업 1,267개)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비해 중소기업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5) 기업의 총차입금은 재무상태표상 장단기차입금, 장단기사채 및 유동성장기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개념적으로는 자금순환통계상 기업신용 중 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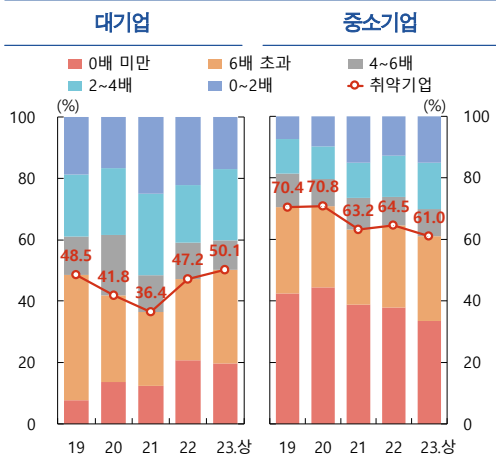
16) 이자보상배율·총차입금 : (삼성전자) 21년말 213.3배·9.7조원 → 22년말 87.3배·3.1조원 → 23년 2/4분기말 -15.9배·25.5조원 (SK하이닉스) 21년말 71.0배·13.8조원 → 22년말 21.7배·18.0조원 → 23년 2/4분기말 -8.5배·25.3조원

17) 차입금상환배율(Debt multiple)은 재무상태표상 총차입금(분자)을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EBITDA)(분모)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로, 기업이 실제 가능한 현금흐름(EBITDA)에 비해 차입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동 배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미 연준과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체로 동 배율이 5~6배를 넘어서는 경우 기업의 상환능력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18)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sales)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한 것으로, 회계상 순이익과 달리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배제된 순이익을 의미한다.

차입금 분포는 개선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상환 능력에 비해 차입 규모가 과다한 취약기업(차입금상환배율 6배 초과 혹은 0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22년부터 다시 상승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약기업 차입금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12).

그림 I-12. 차입금상환배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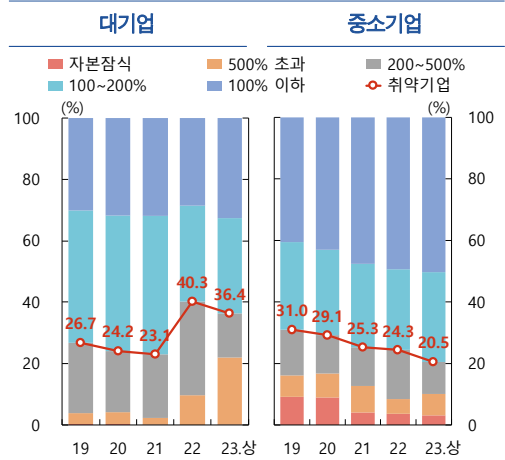
주: 1) 총차입금/EBITDA(배)  
 2) 취약기업은 차입금상환배율 6배 초과 혹은 0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나. 자산 기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

기업이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장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 저량(stock)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산 기반 상환능력이 양호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이 소폭 상승하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부채구조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기준으로는, 2021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과다부채 취약기업(부채비율 200% 초과 혹은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입금 분포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 규모가 큰 일부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sup>19)</sup>함에 따라 과다부채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차입금 분포는 개선되는 모습을 지속하였다(그림 I-13).

그림 I-13. 부채비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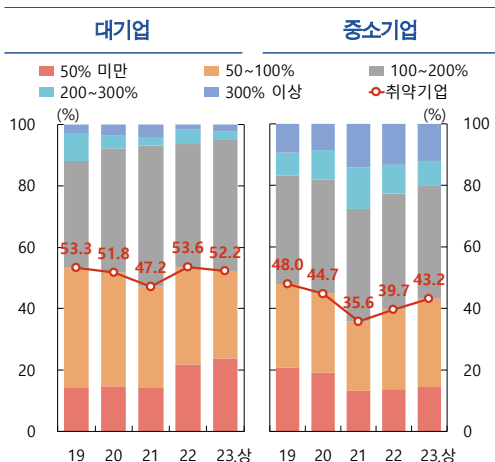
주: 1) 부채/자기자본(%)  
 2) 취약기업은 부채비율 200% 초과 혹은 자본잠식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기업의 단기 부채 대비 단기 자산의 비중을 통해 유동성을 평가하는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으로는, 유동성 취약기업(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021년까지

19) 부채비율 · 총차입금 : (한국전력공사) 21년말 145.7% · 39.1조원 → 22년말 493.9% · 76.8조원 → 23년 2/4분기말 727.1% · 86.8조원  
 (한국가스공사) 21년말 452.6% · 26.4조원 → 22년말 642.9% · 43.1조원 → 23년 2/4분기말 579.5% · 39.5조원

하락하였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3년 2/4분기말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유동성 취약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4).

그림 I-14. 유동비율<sup>1)</sup>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주: 1) 유동자산/유동부채(%)  
2) 취약기업은 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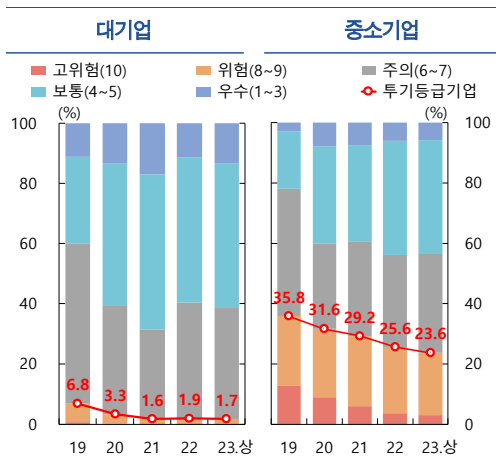
#### 다. 신용등급 및 부실위험별 차입금 분포

기업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용등급 및 부실위험 측면에서 차입금 분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저신용 혹은 고위험 기업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이 하락하는 등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점차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신용등급<sup>20)</sup>을 기준으로 차입금 분포를 살펴보면, 신용도가 낮은 투기등급 기업(KIS 신

용평점 8~10)의 차입금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2023년 2/4분기말 현재 대기업 차입금의 98% 이상, 중소기업 차입금의 75% 이상을 투자등급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었다(그림 I-15).

그림 I-15. 신용등급<sup>1)</sup>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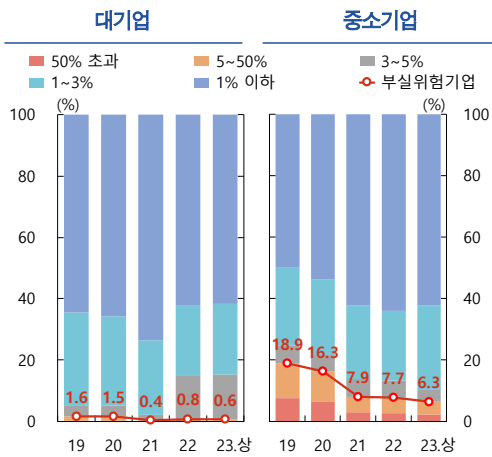
주: 1) KIS신용평점 기준  
2) 투기등급기업은 신용평점 8-10점(B 등급 이하)인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기업의 다양한 재무지표들을 통해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을 평가하는 부실위험<sup>21)</sup> 기준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부실위험기업(부실위험 5%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대체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인 차입금 분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2/4분기말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대기업 차입금의 99% 이상, 중소기업 차입금의 93% 이상을 저위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16).

20) 본고에서는 KIS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대상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크게 5단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등급을 S&P,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비교하면, 우수(1~3)는 AAA-AA 등급, 보통(4~5)은 A 등급, 주의(6~7)는 BBB 등급, 위험(8~9)은 B-C 등급, 고위험(10)은 D 등급에 해당한다. 통상 BBB 등급 이상을 투자등급으로, 그 미만을 투기등급으로 분류한다.

21) 부실위험은 기업이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익(이자보상배율, 총자산순이익률), 자산(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및 차입여건(차입금의존도, 차입금평균이자율) 등을 나타내는 재무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통해 추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최근 기업부문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I-16. 부실위험<sup>1)</sup> 수준별 기업 차입금 분포<sup>2)</sup>



주: 1) 기업의 재무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통해 추정된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  
 2) 부실위험기업은 부실위험 5%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최근 기업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를 요약하면, 이익을 활용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영업손실 등으로 차입금 분포가 다소 취약해졌으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익과 자산, 그리고 차입여건(차입금의존도, 평균 차입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개선세를 지속하여 현재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4. 과거 위기 시와의 비교

기업신용 레버리지(2023년 2/4분기말 124.0%)가 과거 위기 당시 수준(외환위기 1999년 1/4분기말 113.7%,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3/4분기말

99.6%)을 상회하면서 일부에서는 기업신용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기업신용의 구성 및 기업 차입금 분포를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먼저 기업신용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2/4분기말 현재 회사채, CP 등 기업의 시장성 차입 비중(24.4%)은 과거 위기 시보다 감소한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간접금융 조달 비중(70.4%)은 확대되었다. 기업특성별로는, 공기업 보다는 민간기업이 여전히 기업신용의 대부분(86.0%)을 보유하고 있다(표 I-2).

표 I-2. 기업신용 구성 비중<sup>1)</sup> 비교<sup>2)</sup>

	신용항목별			기업특성별	
	대출금	채권	정부용자	민간기업	공기업
1997	56.8	41.9	1.2	88.9	11.1
2008	66.0	31.5	2.5	84.6	15.4
23.2/4	70.4	24.4	5.2	86.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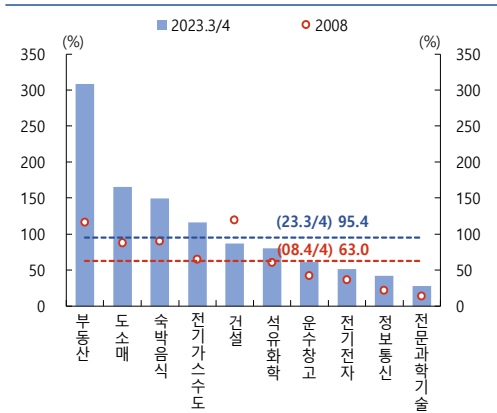
주: 1) 연도별 기업신용 전체 잔액 대비 비중  
 2)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는 각각 1997년 및 2008년 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다음으로,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sup>2)</sup>하면, 분석대상 전체 업종 기준으로 평균 대출 레버리지는 2008년말 63.0%에서 2023년 3/4분기말 95.4%로 상승하였다.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도소매, 숙박음식, 전기가스수도업의 대출 레버리지가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큰 폭 상승하여 전산업 평균(95.4%)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 선정 시 분자로 활용되는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가 2008년 1/4분기부터 가용함에 따라 과거 외환위기 당시(97-99년)와는 비교가 불가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8-09년) 수준과 비교하였다.

43.8% 증가(2008년말 72.4조원 → 2023년 3/4분기말 104.1조원)하였으나, 건설업 GDP(명목, 4분기 합산 기준)가 동 기간중 97.9% 증가<sup>23)</sup>(60.6조원 → 119.8조원)하여 대출 레버리지는 2008년말 119.6%에서 86.9%로 하락하였다(그림 I-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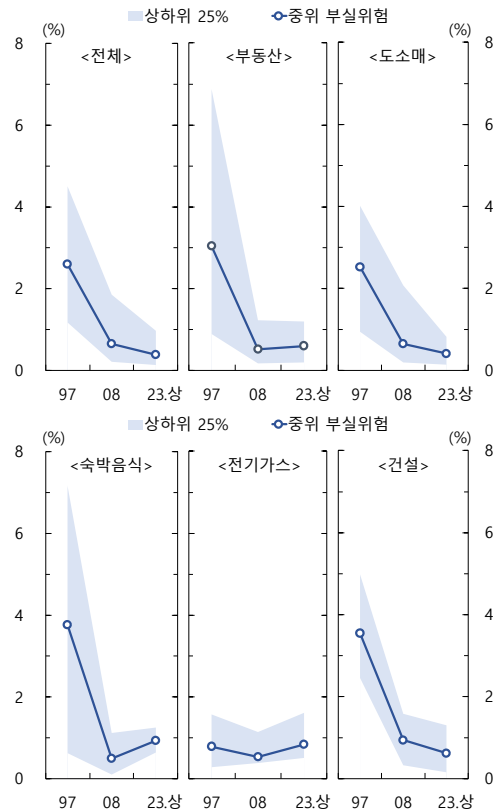
그림 I-17.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sup>1)</sup> 비교<sup>23)</sup>



주: 1) 산업별 생산GDP(명목, 4분기 합산) 대비 산업별 대출금 비율  
 2) 점선은 2008년과 2023년 3/4분기말 기준 분석대상 전체 업종 대출 레버리지를 의미  
 3) 자료 제약으로 인해 외환위기 시(1997년)와는 비교 불가  
 자료: 한국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산업별 대출의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해 대출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부실위험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부분 산업에서 기업의 부실위험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중위 부실위험 기준으로 부동산·도소매·숙박음식·건설 등 업종은 외환위기 당시 2% 중반에서 3% 후반 수준이었으나 2023년 2/4분기말 현재 모두 1%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전기가스 공급업은 부실위험이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산업 특성상 공기업 비중이 높아 업종내 기업들의 부실위험이 1~2% 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18).

그림 I-18. 산업별 기업<sup>1)</sup> 부실위험<sup>2)</su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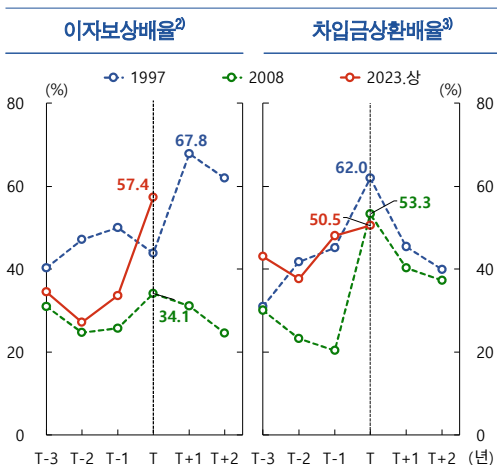
주: 1) 1997년말, 2008년말 및 2023년 2/4분기말 상장기업 기준  
 2) 기업의 재무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logit model)을 통해 추정된 1년 후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이 발생할 확률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기업의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기준으로 과거 위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2023년 2/4분기말 현재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나, 지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2008년말 이후 2023년 3/4분기말까지 건설업 명목 GDP(4분기 합산)가 97.9% 증가한 가운데 실질 GDP는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부가치 증대에 건설원가, 인건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기업의 이익에 기반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2023년 상반기중 차입 규모가 큰 일부 기업들의 영업손실로 인해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57.4%)이 금융위기 시(2008년말 34.1%)보다는 높지만, 외환위기 당시 고점 수준(1998년말<sup>24</sup>) 67.8%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차입금상환배율 기준으로 보면, 취약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50.5%)이 외환위기(1997년말 62.0%)는 물론 금융위기(2008년말 53.3%) 당시 수준을 하회하였다(그림 I-19).

그림 I-19. 이익 기반 상환능력 취약기업 비중 비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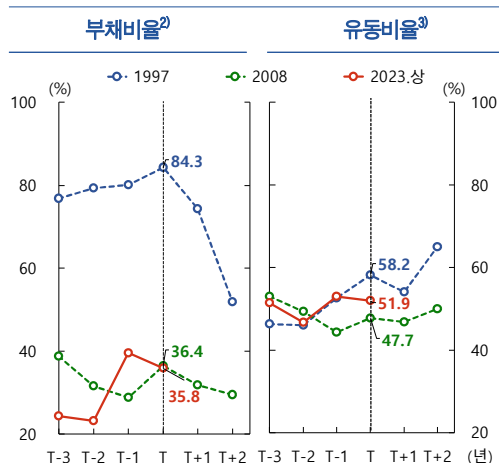


주: 1)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현재(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T를 설정  
 2)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  
 3) 차입금상환배율 0 미만 또는 6배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아울러 기업의 보유 자산에 기반한 상환능력 측면에서는,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채비율 취약기업(부채비율 200% 초과 혹은 자본잠식 기업)이 상장기업 차입금의 35.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2008년말

36.4%)와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외환위기 당시(1997년말 84.3%)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향후 1년 이내 상환이 필요한 부채보다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한 기업(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51.9%)도 금융위기 당시(2008년말 47.7%)보다는 높지만 외환위기 당시(1997년말 58.2%)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I-20).

그림 I-20. 자산 기반 상환능력 취약기업 비중 비교<sup>1)</sup>



주: 1) IMF 외환위기(1997년말),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말), 현재(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T를 설정  
 2) 자본잠식 또는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의 차입금 비중  
 3) 유동비율 100% 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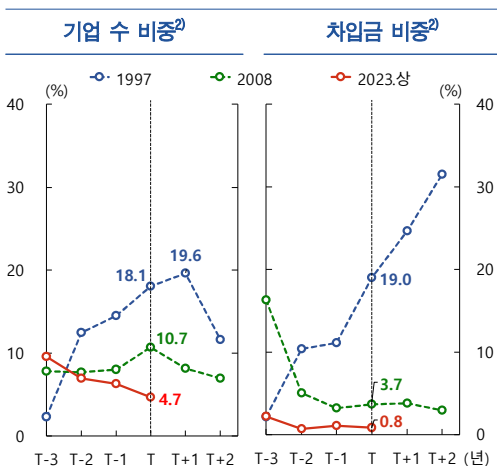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업의 유량(flow)과 저량(stock) 측면의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부실위험이 5%를 초과하는 기업(이하 '부실위험기업') 비중을 과거 위기 당시와 비교한 결과,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실위험 기업 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모두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24) 외환위기 당시 충격이 97년 연말에 발생하면서 98년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97년에 비해 33.8% 감소하고 평균 총이자비용은 43.8% 증가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기준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97년보다 98년에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다만, 98년 상장기업의 평균 총차입금은 97년에 비해 2.6% 감소하면서, 차입금상환배율(총차입금/EBITDA) 기준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98년보다 97년에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에는 차입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로 부실위험이 높아지면서 부실위험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1997년말 19.0%)이 기업 수 비중(18.1%)을 상회하였던 것과 달리,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실위험기업의 대부분이 차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어<sup>25)</sup> 부실위험기업의 보유 차입금 비중(0.8%)이 기업 수 비중(4.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I-21).

그림 I-21. 부실위험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 비교<sup>1)</sup>



주: 1)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현재(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T를 설정

2) 부실위험 5% 초과 기업의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

자료: 한국은행 시산(KIS-Value)

## 5.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기업신용이 명목GDP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신용 레버리지가 과거 시점(시계열 차원)은 물론 주요국(횡단면 차원)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신용이 양적으로 확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기업의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 부실위험이 대부분 산업에서 과거 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신용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의 연체율 수준을 크게 하회<sup>26)</sup>하고 있으며,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의 비중도 기업의 이익과 보유 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신용 레버리지가 과거 위기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인 만큼 다음의 리스크 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업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부동산업의 부가가치(GDP)를 상회하는 대출이 공급된 점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책당국에서는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은행과 비은행 각각의 순기능을 고려하면서도 권역별 규제차익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

25) 외환위기 당시(1997년말) 부실위험기업(319개) 중 대기업(169개)이 전체 부실위험기업의 53.0%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 2/4분기말 현재 부실위험기업(120개)의 80.8%가 중소기업(9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6)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연체율 : (08-09년중 최고치) 은행 1.79%, 저축은행 18.91%, 상호금융 8.61%, 보험 5.41%, 여전 5.48% (23년 3/4분기말) 은행 0.42%, 저축은행 7.08%, 상호금융 5.69%, 보험 0.46%, 여전 2.14%

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부동산PF 정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sup>27)</sup>함으로써 부실 PF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신용 중 대출금과 채권 모두에서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물의 비중이 늘어난 상황이므로, 높아진 금리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기업신용의 차환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년중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은 보유 자산 매각이나 추가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유사시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차환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도 연체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하겠지만, 계속사업이 어렵다고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2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시자료가 없어 본고의 기업 분석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상당폭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과 영업비용 증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

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상환능력 및 채무분포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이 잠재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은행(2021), “최근 기업부문의 부실위험 평가 및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2021.12)」, pp. 31-37

\_\_\_\_\_ (2022), “최근 기업신용의 부문별 유입 현황 및 기업 재무건전성과의 관계 분석”, 「금융안정보고서(2022.6)」, pp. 139-149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9), “Global Corporate Vulnerabilities: Riskier Business”, Chapter 2 in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9(October)

\_\_\_\_\_ (2023), “Soft Landing or Abrupt Awakening?”, Chapter 1 in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3(October)

Kovner A. and Zborowski B.(2019), “Is There Too Much Business Deb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Liberty Street Economics* (blog), May 29

27)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였으며 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7월 4일).

##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sup>1)</sup>

1. 검토 배경
2. 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의 특징
3. 주요 잠재리스크 점검
4.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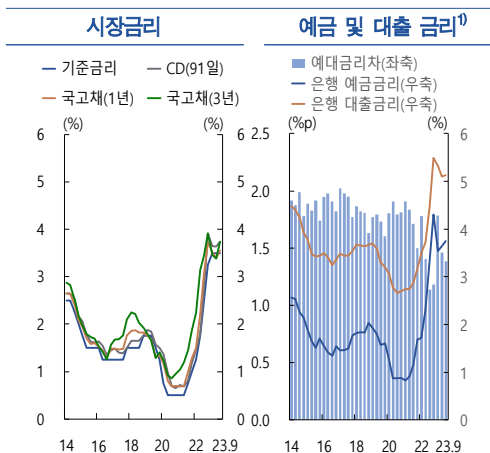
### 1. 검토 배경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대내외적으로 예금취급기관<sup>2)</sup>의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 확대 우려로뱅크런을 겪으며 파산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부각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인출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한편 작년 3/4분기 들어서는 예금취급기관간 예금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예금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예대금리차<sup>3)</sup>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II-1). 이와 같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측면에서도 대출자산 부실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대손충당금과 자본적정성 등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었다.<sup>4)</sup>

예금취급기관은 안정적으로 예금을 조달하여 대출로 운용하는 영업모델을 지니고 있어 시장성 자금조달과 운용을 주로 하는 증권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높은 금리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되면서 잠재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하 '비은행')을 중심으로 최근 금리상승기 전후로 자금조달 및 운용 측면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높은 수준의 금리가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

그림 II-1.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 금리



주: 1) 신규취급액 저축성수신 및 일반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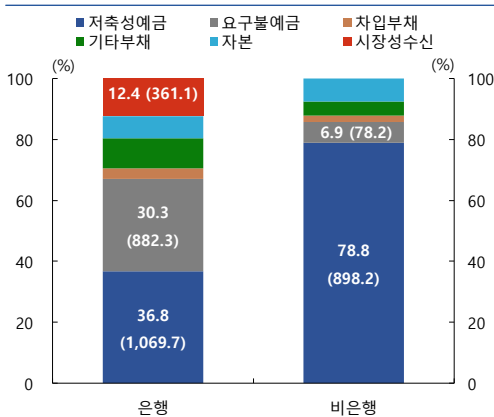
- 1) 본고는 유재원·백윤아·박서정·홍준의(은행리스크팀)가 작성, 이종헌(금융리스크분석부장)·송길성(은행리스크팀장)이 검토하였다.
- 2) 본고의 예금취급기관은 은행(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제외)과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주요한 자금조달원이 예금인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다.
- 3)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보면 대출금리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은행간 경쟁 강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국면에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대출자산의 부실 가능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고객 이탈 등으로 영업기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4) 금리상승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현안 분석> 「II.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의 특징

### 가. 자금조달

예금취급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은 예금(예수금)이며 은행은 비은행과는 달리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채 발행의 용이성, 저축성예금 및 요구불예금의 비중에 따라 은행, 비은행 및 비은행내 업권간 자금조달 부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조달구조를 보면, 은행은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23년 3/4분기말 기준)이 전체 수신의 12.4%를 차지하고, 금리상승의 영향이 적은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의 비중(30.3%)이 비은행(6.9%)에 비해 매우 높다. 반면 비은행은 전체 수신 중 저축성예금 비중이 78.8%로 은행(36.8%)보다 2배 이상 높다(그림 II-2). 또한 비은행은 수신 유치를 위해 통상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은행에 비해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구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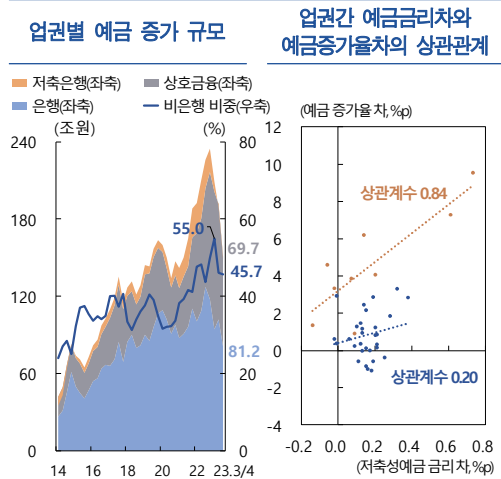


주: 1) 2023년 3/4분기말 구성항목별 비중, 괄호 안은 잔액(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비은행으로의 예금유입 확대와 예금시장에서 은행 및 비은행간 경쟁도 증가

예금취급기관별 수신 변화를 중기적 시계에서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이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 하반기중 예금취급기관으로 유입된 예금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1.4%였으나 2023년 1/4분기중에는 55.0%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예금금리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 기간중 은행과 비은행(상호금융) 간 예금금리 차와 예금증가율 차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는 과거보다 강화(상관계수 0.20 → 0.84)되었다(그림 II-3).

그림 II-3. 예금취급기관 업권별 예금 증가 규모<sup>1)</sup>, 예금금리<sup>2)</sup> 및 예금증가율<sup>3)</sup> 차이 간 관계<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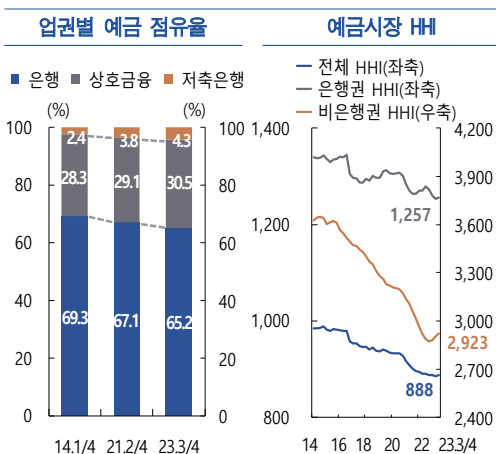


주: 1) 저축성예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 규모  
 2) 저축성예금의 금리 차이(상호금융-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3) 저축성예금의 증가율 차이(상호금융-은행, 전년동기대비)  
 4) 파란점은 2014년 1/4분기-2021년 2/4분기, 붉은점은 2021년 3/4분기-2023년 3/4분기에 해당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5) 2019년 1/4분기-2023년 3/4분기중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각각 평균 2.56%, 2.77%인 반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평균 2.13%, 은행채(1년 만기 AAA기준) 금리는 평균 2.09% 수준이다.

한편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저축성수신에서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30.7%)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3/4분기말 34.8%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비은행으로의 예금유입 확대, 예금시장에서의 비은행 비중 상승 등으로 인해 만기도래 예금 재예치 및 신규 예금유치를 위한 은행 간, 비은행 간, 은행 및 비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저축성예금시장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정도를 HHI(Herfindahl-Hirschman Index)<sup>6)</sup>를 통해 살펴보면, 동 지수가 2023년 3/4분기말 888로 2014년(985)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개별 금융기관 간 수신 경쟁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4).

그림 II-4.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시장 점유율<sup>1)</sup> 및 HHI<sup>2)</sup>



주: 1) 저축성예금 기준

2)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특히 비은행권 예금시장의 HHI를 보면 2023년 상반기까지 일부 상호금융 단위조합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유치 유인이 강화되면서 비은행권 내 경쟁도가 상당폭 높아진 모습이다. 이는 비은행권에서 저금리 기간중 준조합원 가입 확대, 비과세 상품판매 증대 노력 등 적극적인 수신 유치 활동을 통해 조달했던 예금의 만기가 금년 중 도래하면서 재예치 필요성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단기금융 시장 불안시 은행의 자금 수요가 예금시장 내 업권간 경쟁을 일시적으로 촉발시킨 가운데 비은행권 내에서 만기도래 예금의 재유치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sup>8)</sup>

### 정기예금의 만기 단기화 심화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은행채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비은행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은행과 비은행 사이의 경쟁 촉진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편익이 체고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기 예금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예금의 만기가 지나치게 단기화되면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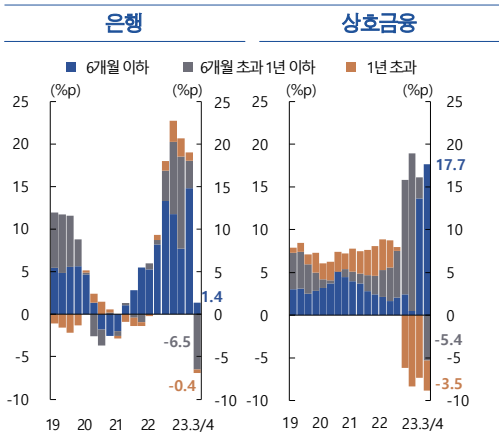
6)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시장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을 합한 값으로 산정되며 독과점시장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HHI가 높아지면(낮아지면) 경쟁도가 낮아진(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HHI가 1,000 미만이면 경쟁도가 높은 시장, 1,000에서 1,800 사이이면 경쟁도가 중간인 시장, 1,800 이상이면 경쟁도가 낮은 시장으로 구분되나 적용기준은 각 나라의 금융제도 및 산업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2023년 9월 현재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가입수는 2015년말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말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하며 상호금융의 예금 증가에 기여하였다.

8) 다만, 2023년 3/4분기 들어서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이 전분기말 대비 3.0조원 감소하는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간 예금유치 경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금취급기관의 기간별 예금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만기 단기화 등으로 예금금리 산정주기가 짧아지고 만기도래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예금잔액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예금잔액 변동성에 대한 단기예금(잔존만기 6개월 이하<sup>9)</sup>) 기여도를 보면 은행에 비해 비은행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높아진 모습이다. 이는 금리상승기에 가계가 단기예금 상품을 선호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장기예금 수신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단기예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II-5).

그림 II-5. 예금잔액<sup>1)</sup> 변동<sup>2)</sup>에 대한 예금만기별<sup>3)</sup>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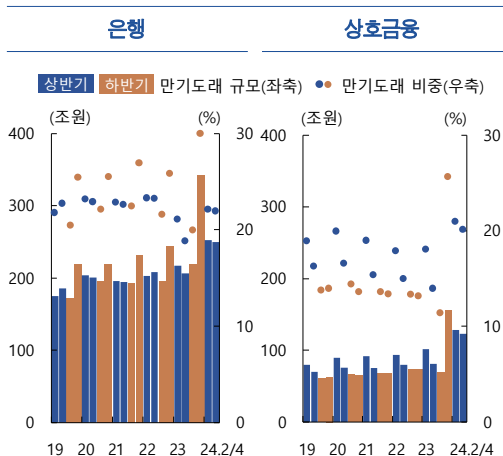


주: 1)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한부예금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잔존만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지난해 말 이후 수신 경쟁 과정에서 늘어난 단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보다는 비은행(상호금융) 예금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수금(기한부예금 기준) 규모

를 살펴보면, 은행(분기평균 251조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상반기 분기평균(204조원) 대비 23.0%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상호금융(분기평균 125조원)은 같은 기간 44.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중 상호금융의 전체 예수금에서 만기도래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상반기에 비해 4.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6).

그림 II-6. 만기도래 예수금<sup>1)</sup> 규모<sup>2)</sup> 및 비중<sup>3)</sup>



주: 1) 2023년 9월말 현재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한부예금 기준  
 2) 2024년 2/4분기는 추정치  
 3) 2024년 상반기 비중은 2023년 9월말 기한부예금 잔액으로 추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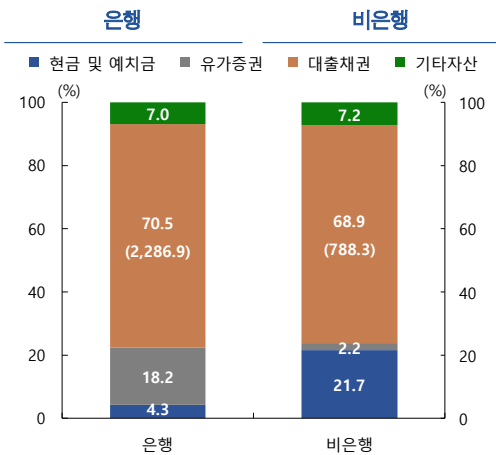
#### 나. 자금운용

예금취급기관들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가증권 투자보다는 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및 비은행의 총자산 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각각 70.5%(2,286.9조원), 68.9%(788.3조원)로, 대출채권이 각 업권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대출채권 다음으로 유가증권의 비중(18.2%)

9) 특정 시점의 잔존만기는 이미 예치된 예금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잔존만기와 해당 시점에 신규 예치된 예금의 계약 만기로 구성된다.

이 높은 편이나, 비은행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치금 비중(21.7%)이 유가증권(2.2%)보다 훨씬 높다(그림 II-7).

그림 II-7.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운용 구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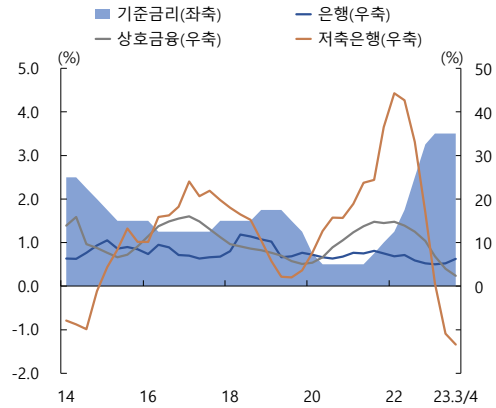


주: 1) 2023년 3/4분기말 구성항목별 비중, 괄호 안은 잔액(조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부동산담보대출시장에서 비은행 영향력 증가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자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두 번의 금리인하가 있었던 2020년 상반기 이후 부동산담보대출<sup>10)</sup>이 비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줄어드는 등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2019년말 이후 부동산담보대출의 분기평균(20년 1/4분기~23년 3/4분기) 증가율은 비은행(10.6%)이 은행(6.6%)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 II-8).

그림 II-8. 업권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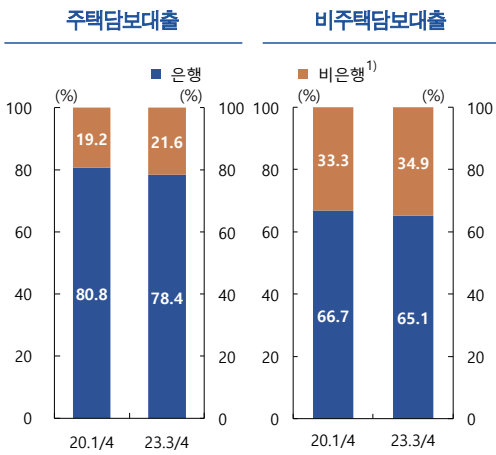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종류별<sup>11)</sup>로 은행과 비은행의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은행의 비중이 2023년말 3/4분기말 78.4%로 2020년 1/4분기말(80.8%) 대비 2.4%포인트 줄어들었으며, 비주택담보대출에서도 은행의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65.1%로 2020년 1/4분기(66.7%) 대비 1.6%포인트 축소되었다(그림 II-9). 반면 비은행은 같은 기간 중 주택과 비주택 담보대출 모두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는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규제 강도와 적용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은행에 먼저 적용된 이후 시차를 두고 비은행권에 적용되는 과정<sup>12)</sup>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된 대출 수요자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0) 가계 및 기업 차주를 포함한 전체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에 해당한다.

11) 담보종류별 부동산담보대출 데이터의 입수가능범위를 고려하여 2020년 1/4분기와 최근 시점을 비교하였다.

12)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전 금융권에 도입된 2014년 7월 이전에도 은행과 비은행 적용 시점이 달랐으며 차주단위DSR 및 금융회사 평균DSR 규제도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였다(2022년 1월 이후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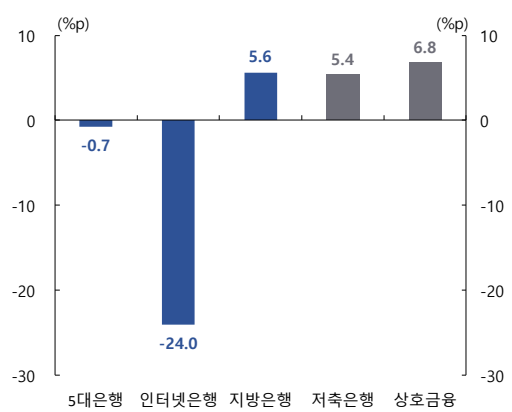
그림 II-9. 부동산담보대출 업권별 점유율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편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sup>13)</sup>이 높았던 비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금변 금리상승 기간중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였다. 2023년 3/4분기말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수도권 비중은 2019년말 대비 각각 6.8%포인트, 5.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권에서는 5대 은행 및 인터넷 은행<sup>14)</sup>과는 달리 지방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9년말 대비 5.6%포인트 높아졌다(그림 II-10).

그림 II-10. 업권별 수도권 주담대 비중 변화<sup>12)</sup>



주: 1) 2019년 4/4분기~2023년 3/4분기중 변화  
2) 5대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농협은행,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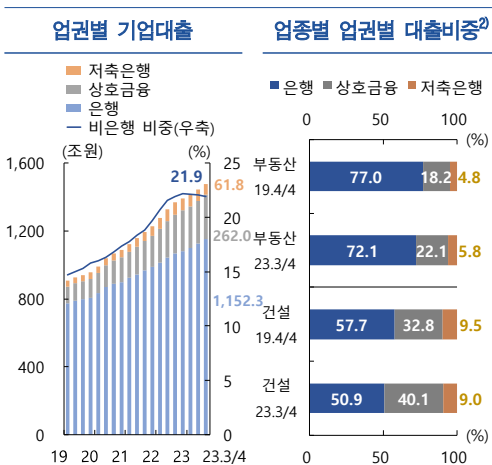
###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중 비은행 비중 확대

기업대출에서도 비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규모는 2019년말 151.0조원에서 2023년 3/4분기말 323.9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예금취급기관 전체 기업대출의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업종별 기업대출 중 비은행 점유율은 건설업(19년말 42.3% → 23년 3/4분기말 49.1%), 부동산업(23.0% → 27.9%)에서 각각 6.8%포인트, 4.9%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11).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확대는 안정적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금융중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것<sup>15)</sup>은 자금의 한계생산성을 낮추고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부동산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비은행 전체 대출에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65.4%로 은행(31.8%)보다 높다.  
14) 인터넷전문은행은 최근 전국으로 주담대 영업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비중이 큰 폭 하락(19년말 100% → 23년 6월말 76%)하였다.  
15) 은행 기업대출 중 건설업·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24.0%인 반면 비은행(새마을금고 제외)은 4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I-11. 예금취급기관<sup>1)</sup>의 기업대출 및 업종별 현황

주: 1) 새마을금고 제외  
2) 해당 업종에서 각 업권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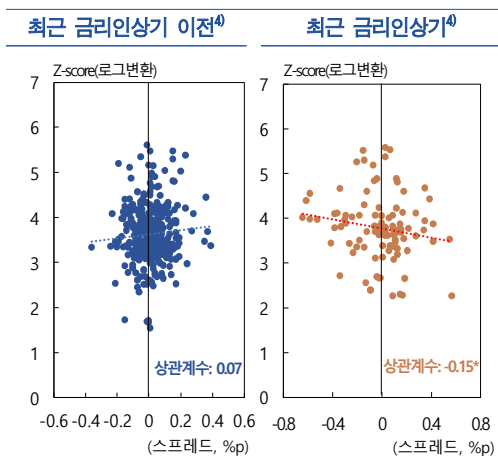
### 3. 주요 잠재리스크 점검

#### 과도한 수신경쟁 재현시 재무안정성 저하 우려

최근 시장금리의 상승폭 제약,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등을 통한 은행의 예금의존도 축소와 같은 금융당국의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예금취급기관의 과도한 수신경쟁<sup>16)</sup> 행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중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여전히 예년보다 큰 상황이므로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경쟁적 수신확보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조달비용 상승에 대응하여 예금취급기관들이 대출금리 인상이나 고위험 대출 확

대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설 경우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대와 더불어 연체율, 자본적정성 등 재무지표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 경쟁이 재무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금리인상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금리상승기 이전인 2016년 1/4분기~2021년 2/4분기중 예금금리 스프레드<sup>17)</sup> 변화와 재무안정성(Z-score)<sup>18)</sup> 간의 유의적인 연관성은 없었으나 금번 금리상승기(21년 3/4분기~23년 2/4분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그림 II-12).

그림 II-12. 예금금리 스프레드<sup>1)</sup>와 재무안정성<sup>2)</sup> 간 관계<sup>3)</sup>

주: 1)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분기별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예금금리와 CD수익률 간 차이  
2)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Z-score = [(총자산수익률 + 자기자본비율)의 4분기 이동평균 / 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를 통해 측정  
3) 상관계수의 \*는 10%에서의 유의수준을 의미  
4) 최근 금리인상기 이전은 2016년 1/4분기~2021년 2/4분기, 최근 금리인상기는 2021년 3/4분기~2023년 2/4분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16) 2022년 하반기 예금취급기관은 부동산PF 관련 금융불안, 일부 규제 정상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확보에 경쟁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17)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수신경쟁의 대응지표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CD수익률의 차이를 통해 계산하였다. 동 스프레드는 절대적인 금리 수준(level)이 아닌 상대적 의미로 특정 예금취급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 시장금리 대비 얼마나 큰 폭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했는지를 측정한다.

18) Z-score(로그 변환)는 [(총자산수익률+자기자본비율)의 4분기 이동평균]/(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로 계산되며 Z-score가 높을(낮을)수록 재무안정성은 양호(저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경쟁과 재무안정성과의 관계를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더라도 최근 금리상승기(21년 3/4분기~23년 2/4분기)의 예금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다른 기간보다 예금취급기관의 재무안정성을 더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아울러 예대금리차 수준별로 수신경쟁과 재무안정성 간 관계를 추가 분석해 보면, 금리상승기 예금금리 스프레드 확대와 재무안정성 간 부(-)의 상관관계는 주로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이번 금리상승기 동안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들에서 예대금리차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점<sup>20)</sup>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금융기관들이 향후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경로<sup>21)</sup>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비은행의 취약부문 부실자산관리 부담 증대

예금취급기관들이 예금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높아진 금리 수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높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대출금리 수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관측되고 있다. 2019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대출금리(t)와 3분기 후 고정이하여신비율(t+3)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수준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정(+)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그림 II-13).

또한 금리 상승기별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의 시차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과 달리 비은행은 금리 상승 시작점을 2~6분기 후행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비은행 건전성 지표의 저하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그림 II-14).

19) 2016년 1/4분기~2023년 2/4분기 15개 예금취급기관(일반은행 12개, 상호금융 2개 업권 및 저축은행 79개 전체 1개 업권)의 예금금리 스프레드, 은행 특성변수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제2023-33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형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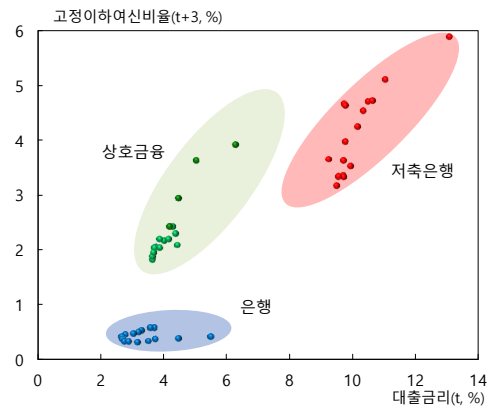
$$Y_{i,t} = \alpha_1 + \beta_1 \text{예금금리 스프레드}_{i,t-1} + \beta_2 \text{금리상승기}_{i,t-1} + \beta_3 \text{예금금리 스프레드}_{i,t-1} \times \text{금리상승기}_{i,t-1} + \gamma \text{은행 특성변수}_{i,t-1} + v_i + \tau_t + \varepsilon_{i,t}$$

$Y_{i,t}$ 는 예금취급기관 i의 t분기 Z-score(로그 변환)이며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CD수익률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였다. 금리상승기는 2021년 3/4분기~2023년 2/4분기 기간은 1, 이외의 기간은 0으로 나타낸 더미 변수이며 은행 특성변수는 총자산, 부채 대비 예수금 비중, 자산 대비 대출채권 비중, 연체율 및 이자이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v_i$  및  $\tau_t$ 는 각각 은행 및 연도 더미를 나타낸다.

20) 예대금리차 수준별 금리인상기 예대금리차 변화를 보면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의 2021년 3/4분기 예대금리차는 1.79%포인트에서 2022년 4/4분기 1.14%포인트로 0.65%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예대금리차 수준이 높은 예금취급기관은 같은 시기 3.20%포인트에서 3.18%포인트로 소폭(0.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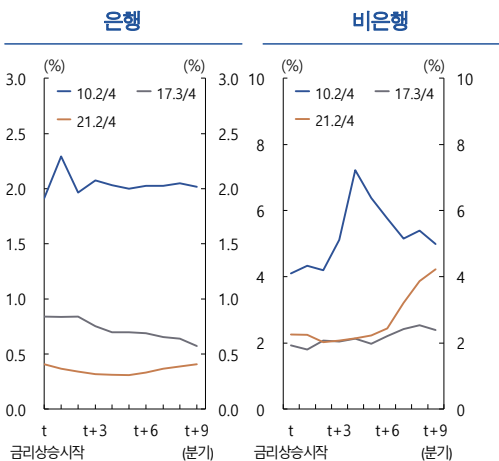
21) 예대금리차 수준이 낮은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Z-score 구성요소의 분해 결과를 보면, 금번 금리상승기 예금금리 스프레드가 10bp 확대될 경우 총자산수익률의 4분기 표준편차는 18b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가파른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가 총자산수익률의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13. 대출금리<sup>1)</sup>와 고정이하여신비율 간 관계<sup>2)</sup>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2) 업권별로 16개 시점의 대출금리(19년 1/4분기-22년 4/4분기)와 고정이하여신비율(19년 4/4분기-23년 3/4분기)을 3분기 시차를 두고 비교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14. 금리상승기별<sup>1)</sup> 고정이하여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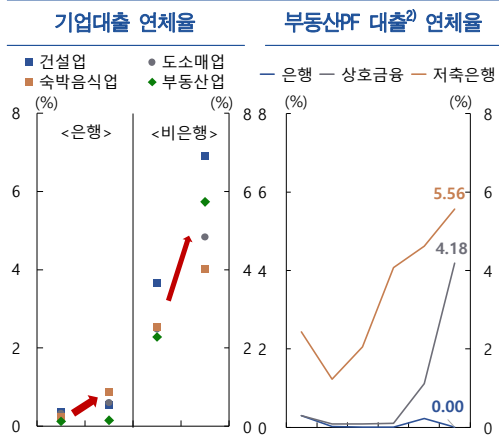


주: 1) ① 2010년 2/4분기-2012년 3/4분기, ② 2017년 3/4분기-2019년 4/4분기, ③ 2021년 2/4분기-2023년 3/4분기를 3차례의 금리상승기로 구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부동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3년 3/4분기말 연체율을 2020년말과 비교해 보면, 부동산업의 상승폭이 3.4%포인트(2.3% → 5.7%)로 가장 가장 크

고, 다음으로 건설업(3.2%포인트), 도소매업(2.4%포인트)에서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의 경우에도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에서는 은행과 달리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그림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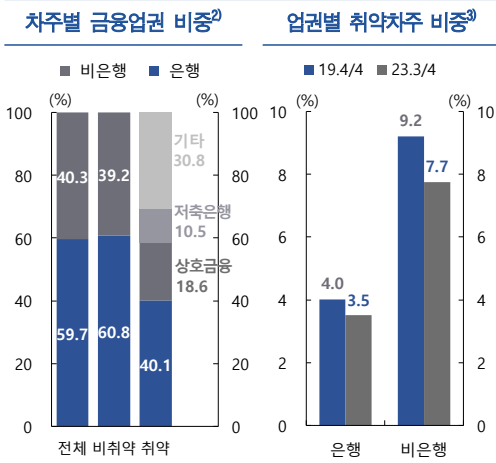
그림 II-15. 업종별 기업대출 연체율<sup>1)</sup>



주: 1) 은행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은행은 외은지점을 포함한 전체 은행,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 제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

취약차주 가계대출의 업권별 비중을 보면 2023년 3/4분기말 은행이 40.1%, 상호금융(18.6%) 및 저축은행(10.5%)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59.9%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비은행금융기관이 7.7%로 은행(3.5%)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3년 3/4분기말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2019년말 대비 각각 0.5%포인트, 1.5%포인트 감소하였다(그림 II-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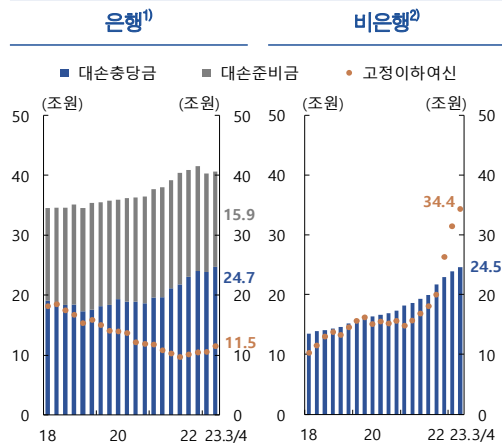
그림 II-16. 업권별<sup>1)</sup> 취약차주 가계대출



주: 1) 은행은 국내은행, 비은행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기타금융업, 대부업을 포함  
 2) 2023년 3/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의 업권별 비중  
 3) 해당 업권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금취급기관의 손실흡수여력을 살펴보면, 2023년 3/4분기말 은행은 고정이하여신 규모(11.5조원)에 비해 대손충당금(24.7조원)과 대손준비금(15.9조원)을 양호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비은행은 고정이하여신 규모(34.4조원)가 대손충당금(24.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sup>22)</sup>(그림 II-17). 은행은 리스크 관리 및 금융당국의 추가 적립 독려 등으로 손실흡수력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현재 고정이하여신이 단기간에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손실흡수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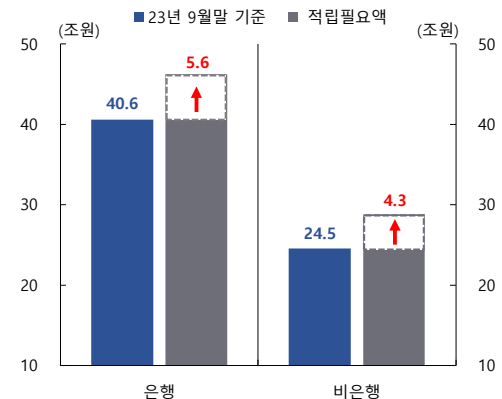
그림 II-17. 업권별 총당금 적립현황



주: 1) 국내은행 전체를 포함하며 대손충당금 + 대손준비금 기준  
 2) 대손충당금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록 은행이 총당금을 양호한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상정할 경우 은행도 총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산된 만큼, 보수적인 상황 전개를 가정하면서 손실흡수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II-18).

그림 II-18. 총당금 적립필요액<sup>1)</sup> 시산<sup>2)</sup> 결과



주: 1)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친 감독규제상 최소 총당금적립필요액, 비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필요액을 추정  
 2) 2009년말 이후 부실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시점의 부실채권 비중으로 건전성 악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1년 후의 적립필요액을 시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시산

22) 다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모두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감독기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다.

## 4. 평가 및 시사점

예금취급기관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금원인 예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대출자산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여 부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거치면서 예금만기는 단기화되고 조달비용은 크게 높아졌다. 한편 부동산관련 대출이 코로나19 기간을 전후하여 크게 늘어난 상황이므로, 높은 금리 수준이 시장 기대보다 장기화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유동성 상황이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상당폭 호전된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적정성이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실흡수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기시계에서는 만기도래 예금 규모가 확대되고 높은 금리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중에도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안정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sup>23)</sup>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 업권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업권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역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많은 일부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자산의 상·매각 등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부실 규모는 확대되고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 보장이 긴요하다. 은행의 경우 2024년부터 부과되는 경기 대응완충자본 적립의 순조로운 이행과 더불어 경기상황을 감안한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대응 여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홍진(2023), “국내은행의 예금 및 자산생산성: 예금시장 경쟁을 중심으로”, KIF연구보고서
- 노유철, 정서립(2023),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71(2), pp. 123-153
- 박경훈 외(2022),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2(27)
- 박정희(2007), “예금금리 경쟁과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 금융학회지, 12(1), pp. 73-106
- 유재원 외(2023),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3(33).
- Anginer, D., Demircug-Kunt, A., Zhu, M.(2014), “How does competition affect bank systemic risk?”,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3(1), pp. 1-26
- Apergis, N.(2015). “Competition in the banking sector: New evidence from a panel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and the financial crisis”, Emerging Markets Review, 25, pp. 154-162
- Craig, B. R., Dinger, V.(2013), “Deposit market

23)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 중앙회의 예수금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금 유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실시간 예수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동 자료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인프라에 활용될 예정이다.

competition, wholesale funding, and bank risk",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7(9), pp. 3605-3622

Demirguc-Kunt, A., Huizinga, H.(2010), "Bank activity and funding strategies: The impact on risk and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8(3), pp. 626-650

Fiordelisi, F., Mare, D. S.(2014), "Competi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European cooperative banks",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45, pp. 1-16

Fu, X, Lin, Y., Molyneux, P.(2014), "Bank competi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Asia Pacific",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8), pp. 64-77

---

# 부록

1. 그림 및 통계표	129
2.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35





# 1. 그림 및 통계표

## 그림 차례

### [금융안정 상황]

그림 I -1.	신용시장 상황 변화 지도	11
그림 I -2.	가계신용	11
그림 I -3.	대출유형별 가계대출 변동	12
그림 I -4.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변동	12
그림 I -5.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
그림 I -6.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3
그림 I -7.	취약차주 비중	14
그림 I -8.	신용도 및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구성비	14
그림 I -9.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15
그림 I -10.	금융기관 기업대출	16
그림 I -11.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17
그림 I -12.	주요 업종별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율	17
그림 I -13.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기업대출 연체율	17
그림 I -14.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조달 동향	18
그림 I -15.	기업규모별 부채비율	18
그림 I -16.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19
그림 I -17.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19
그림 I -18.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20
그림 I -19.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및 신용 증가율	20
그림 I -20.	부문별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및 갭	21

---

그림 II -1.	자산시장 상황 변화 지도	29
그림 II -2.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30
그림 II -3.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30
그림 II -4.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	30
그림 II -5.	회사채 순발행	31
그림 II -6.	회사채 등급별 수요예측참여율	31
그림 II -7.	코스피 및 글로벌 주가	32

그림 II -8.	주가 변동성 지수	32
그림 II -9.	PER 및 PBR	33
그림 II -10.	주요국의 PER 및 PBR	33
그림 II -11.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33
그림 II -12.	주택매매가격 추이 및 상승률	34
그림 II -13.	가격소득비율 및 가격임대료비율	34
그림 II -14.	월별 주택매매거래량	35
그림 II -15.	주택전월세가격 상승률	35
그림 II -16.	월별 주택전월세거래량	36
그림 II -17.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물량	36
그림 II -18.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및 공실률	37
그림 II -19.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 및 거래량	37
그림 II -20.	부동산PF 대출잔액 및 연체율 추이	38
<hr/>		
그림 III -1.	금융기관 건전성 상황 변화 지도	43
그림 III -2.	일반은행 총자산 규모	43
그림 III -3.	일반은행 대출 증감 규모 및 대출 증가율	44
그림 III -4.	부실채권 발생·정리 실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44
그림 III -5.	일반은행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45
그림 III -6.	일반은행 주요 업종 고정이하여신비율	45
그림 III -7.	일반은행 수익성	46
그림 III -8.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구성요소	46
그림 III -9.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	47
그림 III -10.	상호금융의 대출 증감 규모 및 대출 증가율	47
그림 III -11.	저축은행의 대출 증감 규모 및 대출 증가율	48
그림 III -1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차주별 고정이하여신비율	48
그림 III -1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자산순이익률(ROA)	49
그림 III -1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당기순이익 구성요소	49
그림 III -15.	총자산 규모 및 증가율	50
그림 III -16.	보험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	51
그림 III -17.	증권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	51

그림 III-18.	여신전문금융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	51
그림 III-19.	보험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	52
그림 III-20.	증권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	52
그림 III-21.	여신전문금융회사 총자산순이익률(ROA)	52
그림 III-22.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	53
그림 III-23.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 구조	53
그림 III-24.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관련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	54

그림 IV-1.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	59
그림 IV-2.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60
그림 IV-3.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60
그림 IV-4.	차익거래자금 유출입	60
그림 IV-5.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	61
그림 IV-6.	거주자 해외 주식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61
그림 IV-7.	거주자 해외 채권투자자금의 투자주체별 증감	61

### **[복원력]**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	68
그림 I-2.	일반은행 바젤Ⅲ 기준 자본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	69
그림 I-3.	일반은행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	69
그림 I-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	69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70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	70
그림 I-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	71
그림 I-8.	일반은행 CDS 프리미엄	71
그림 I-9.	상호금융 손실흡수력 지표	72
그림 I-10.	저축은행 손실흡수력 지표	72
그림 I-11.	보험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73
그림 I-12.	증권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73
그림 I-13.	여신전문금융회사 손실흡수력 지표	74
그림 I-14.	보험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74

그림 I -15.	증권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75
그림 I -16.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대응능력 지표	75
<hr/>		
그림 II -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80
그림 II -2.	순대외채권	80
그림 II -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81
그림 II -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81
그림 II -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	81
그림 II -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	82
그림 II -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82
그림 II -8.	외환보유액 구성	82
<hr/>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83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8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84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	85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 및 비중	85

**[주요 현안 분석]**

그림 I -1.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102
그림 I -2.	코로나19 이후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추이	103
그림 I -3.	코로나19 이후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추이	103
그림 I -4.	코로나19 이후 주요 업종별 기업대출 증감	104
그림 I -5.	주요 업종별 GDP 대비 기업대출 비율 추이	104
그림 I -6.	은행 기업대출의 잔존만기 구간별 잔액	105
그림 I -7.	은행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105
그림 I -8.	기업규모 및 금융업권별 기업대출 연체율	106
그림 I -9.	코로나19 이후 종류 및 만기별 채권 추이	106
그림 I -10.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별 채권 추이	106
그림 I -11.	이자보상배율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	107
그림 I -12.	차입금상환배율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	108

그림 I -13.	부채비율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	108
그림 I -14.	유동비율 구간별 기업 차입금 분포	109
그림 I -15.	신용등급별 기업 차입금 분포	109
그림 I -16.	부실위험 수준별 기업 차입금 분포	110
그림 I -17.	산업별 대출 레버리지 비교	111
그림 I -18.	산업별 기업 부실위험 비교	111
그림 I -19.	이익 기반 상환능력 취약기업 비중 비교	112
그림 I -20.	자산 기반 상환능력 취약기업 비중 비교	112
그림 I -21.	부실위험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 비교	113
<hr/>		
그림 II -1.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 금리	115
그림 II -2.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구조	116
그림 II -3.	예금취급기관 업권별 예금 증가 규모, 예금금리 및 예금증 가율 차이 간 관계	116
그림 II -4.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시장 점유율 및 HHI	117
그림 II -5.	예금잔액 변동에 대한 예금만기별 기여도	118
그림 II -6.	만기도래 예수금 규모 및 비중	118
그림 II -7.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운용 구조	119
그림 II -8.	업권별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	119
그림 II -9.	부동산담보대출 업권별 점유율	120
그림 II -10.	업권별 수도권 주담대 비중 변화	120
그림 II -11.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 및 업종별 현황	121
그림 II -12.	예금금리 스프레드와 재무안정성 간 관계	121
그림 II -13.	대출금리와 고정이하여신비율 간 관계	123
그림 II -14.	금리상승기별 고정이하여신비율	123
그림 II -15.	업종별 기업대출 연체율	123
그림 II -16.	업권별 취약차주 가계대출	124
그림 II -17.	업권별 총당금 적립현황	124
그림 II -18.	총당금 적립필요액 시산 결과	124

## 통계표 차례

### [금융안정 상황]

표 Ⅲ-1. 금융업권 간 업권별 상호거래 규모	54
표 Ⅲ-2. 금융업권 간 상품별 상호거래 규모	54

### [복원력]

표 Ⅰ-1. 일반은행 NSFR	70
표 Ⅲ-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84

### [주요 현안 분석]

표 Ⅰ-1. 코로나19 전후 기업신용 증가율 평균 비교	102
표 Ⅰ-2. 기업신용 구성 비중 비교	110

## 2.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부문	집필자
<b>작성총괄</b>	금융안정국 이정연(안정분석팀장)
<b>[개관]</b>	김혜연·허 정(안정분석팀)
<b>[금융안정 상황]</b>	
I. 신용시장	
1. 가계신용	이주연·이도훈·이해인(안정총괄팀)
2. 기업신용	편도훈·허 정(안정분석팀)
3. 신용 레버리지	이주연·이도훈·이해인(안정총괄팀)
참고1.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김재영·김영주·이해인(안정총괄팀)
참고2.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	편도훈·신정후(안정분석팀)
II. 자산시장	
1. 채권시장	금융시장국 정기영·김현옥(채권시장팀)
2. 주식시장	안제원·이진섭(주식시장팀)
3. 부동산시장	금융안정국 박재현·정운재(안정분석팀)
참고3.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박재현·정운재(안정분석팀)
III. 금융기관	
1. 은행	유재원·박서정(은행리스크팀)
2. 비은행금융기관	유재원·박서정(은행리스크팀) 나성오·권윤정·송수혁·남승희·안준기 (비은행리스크팀)
3. 상호연계성	박지수·이영재(시스템리스크팀)
참고4. 국내 비은행금융증개(NBFI)의 현황 및 특징	금융안정국 경제통계국 권윤정·송수혁(비은행리스크팀) 김현만·배주원(자금순환팀)
IV. 자본유출입	
참고5.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의 특징 및 평가	국제국 윤승완·표상원·정성우·박상우(자본이동분석팀) 윤승완·정성우(자본이동분석팀)
<b>[복원력]</b>	
I. 금융기관	
1. 은행	금융안정국 백윤아·홍준의(은행리스크팀) 이종찬·정성우(자본이동분석팀)
2. 비은행금융기관	금융안정국 백윤아·홍준의(은행리스크팀) 나성오·권윤정·송수혁·남승희·안준기 (비은행리스크팀)
참고6. 증권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 평가 및 시사점	송수혁·남승희·나성오(비은행리스크팀)
II. 대외지급능력	
	국제국 이종찬·윤동재(자본이동분석팀) 이승우·서수경(외환회계팀)
III. 금융시장인프라	
	금융결제국 이한별·오건우(결제안정팀)
<b>[종합평가]</b>	
	금융안정국 김혜연·허 정(안정분석팀)
참고7. 금융불안지수(FSI) 개편 결과	박지수·이영재(시스템리스크팀)
참고8.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여건 및 시사점	김경섭·김재윤·이지원(지속가능성장연구팀)
참고9.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백윤아·박서정(은행리스크팀)
<b>[주요 현안 분석]</b>	
I. 최근 기업신용 확대 관련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편도훈·허 정(안정분석팀)
II.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요 리스크 점검	
	유재원·백윤아·박서정·홍준의(은행리스크팀)





---

## 금융안정보고서

**발행인** 이창용  
**편집인** 김인구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23년 12월 28일  
**제작** (주)제일프린테크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주요 보고서 >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전화 02-750-6843, 이메일 [finstabl@bok.or.kr](mailto:finstabl@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ISSN 1975-6607

